

‘평가를 줄 줄 평가한다’

일제고사, 교원평가 폐지와 새로운 교육평가 마련을 위한 교육학 심포지엄

일시 : 2010년 7월 13일 (화) 13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주최 : 교원평가범대위, 교육공동체 나다, 대안교육연대, 범국민교육연대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 전국교과모임, 전교조서울지부, 진보교육연구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자료 순서>

2 | [프로그램] 교육학 심포지엄 ‘평가를 평가한다’

[1부] 학생평가

- 3 | [발제] 한국 학생평가의 문제점과 새로운 평가패러다임
- 30 | [자료1] 서울지역 학교교육 실태조사 분석 결과
- 일제고사, 학교선택제 이후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
- 45 | [대안예시] 초등교육에서의 새로운 평가방안 모색
- 64 | [토론1] 일제고사에 대한 문화정치학적 논의의 필요성
- 70 | [토론2] 전인적 발달을 돕는 평가 사례
- 슬기로운 생활과 과학에서 “관찰” 을 중심으로 -

[2부] 교사평가, 학교평가

- 83 | [발제] 교사 및 학교평가의 문제점과 대안
- 115 | [사례발표] 대안교육에 있어서의 교사, 학생, 학부모의 소통과 진단
- 122 | [자료2] 대안교육현장의 진단 사례
- 154 | [토론]

[3부] 총괄발제 및 종합토론

- 155 | [발제] 평가를 평가한다

[프로그램] 교육학 심포지엄 ‘평가를 평가한다’

개회) (사회 : 교과연합 진영호) (1:00-1:20)

1부) 학생평가 (1:20-2:10)

발제 || 한국 교육평가의 문제점과 새로운 교육평가 패러다임 (진보교육연구소 손지희)

대안예시 || 초등교육에서의 새로운 평가 방안 모색 (홍순희 서울초등교육과정연구팀)

토론1 || 일제고사에 대한 문화정치학적 논의의 필요성 (경희대 성열관)

토론2 || 전인적 발달을 돕는 평가 사례 (정현주 서울초등교육과정연구팀)

2부) 교사평가, 학교평가 (2:15-3:00)

발제 || ‘교사 및 학교평가의 문제점과 대안’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김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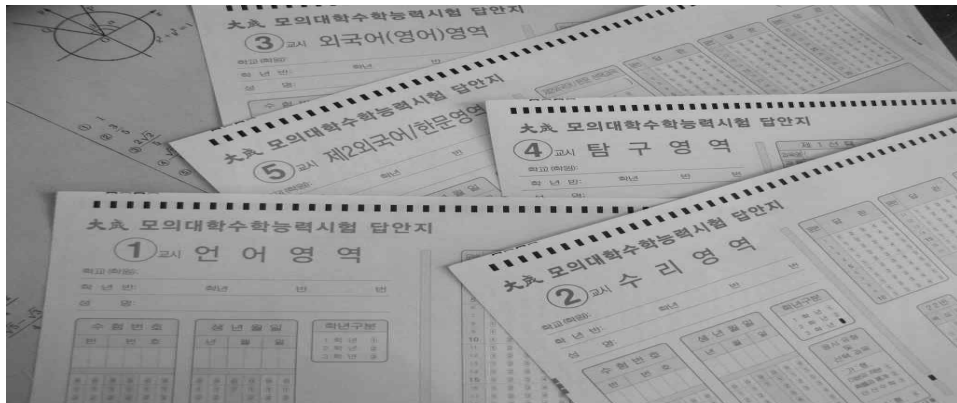
사례 발표 || ‘대안학교에서의 교사, 학생, 학부모의 소통과 진단’ (대안교육연대 이치열)

토론 || (동국대 조상식)

3부) 총괄발제 및 종합토론 (3:10-4:30)

발제 || ‘평가를 평가한다’ (고려대 강수돌)

종합토론 || (사회 : 중앙대 강내희)



한국 학생평가의 문제점과 새로운 평가패러다임

손지희 (진보교육연구소)

교육평가 : 학습자의 행동변화 및 학습과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이용하여 교육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첫째, 인간의 현실성보다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둔다. 가능성을 부인하고 현실성에 집착할 때 인간을 심판·판단·범주화시키는 인간 규정의 의식이 대두되며, 가능성에 더 의미를 부여할 때 인간이해의 평가개념이 성립된다. 교육평가의 목적은 행동증거를 수집하여 얻은 결과에 의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다음 단계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둘째, 평가자료와 대상과 시간은 무한하다. 학생이 남겨놓은 낙서 한 줄, 그림 한 장, 일기장 한 토막, 대화 한 마디가 모두 인간이해의 자료가 될 수 있다. 교사는 교과전문가이기 이전에 인간이해자여야 한다. 셋째, 계속적이고 종합적인 과정이다. 종합성(comprehensiveness)이란 평가의 과정이 한 학생의 전체에 걸쳐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넷째,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의 변산(variability)을 다룬다. 이것은 그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규명·변별해주는 것보다는 그것이 왜 발생하고 무엇이 그것을 발생시키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그것을 통제해 변산을 극대화하거나 극소화하거나 또는 0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1. 한국 교육평가의 문제점과 현황

1) 평가관

가. 측정관에의 매몰

한국에서는 통상 [평가=점수매기기]를 의미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평가는 계량화가 빠지지 않으며 '시험'이 계량화의 주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즉 교수·학습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 학생평가의 주요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측정(measurement)이라 함은 "어떤 규칙에 따라 속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에 수치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회계적인 개념으로는 자산, 부채 등 재무제표의 기본요소에 대해 그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¹⁾ 즉 가치를 일정 기준에 따라 수치화하는 인간의 행위가 측정이다.

1)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1XXX15324>

하지만 교육평가는 측정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서 점수매기기, 시험, 성적을 넘어서는 교육적 행위들을 포괄한다. 교육평가의 지향은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상황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행하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실천의 한 부분이 바로 교육평가이다. 교육평가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그 중 측정에 의한 점수 산출은 비교와 서열화를 위해 사용되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학교교육에서 측정을 평가로 혼동하는 순간 오류발생은 필연적이다. 학습의 결과는 인간 정신기능의 발달, 즉 질적 개념인 반면 측정은 '잣대를 들이대어 수치화하는' 계량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를 측정이론에서는 '오차'라고 부른다. 즉 재어야 할 것을 제대로 재지 못하는 상황, 즉 측정의 타당성 문제는 항상 피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역설적으로 측정의 이론과 실제에서 '오차의 최소화'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지만 실제 '학교교육에서의 측정' 즉 학업성취도를 계량화하는데 있어서 오차는 거의 무시된다. 반면 편차는 절대시하고 또 학생평가 결과가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로 간주한다. 성취도 검사도구나 학교 내 정기고사, 수능 시험지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강조되는 것은 "변별력"이다. 학습자 간의 차이를 드러내야 좋은 검사지로 여긴다.

하지만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측정은 시험점수 그 자체이지만 평가는 이를 근거로 가치판단에 이르는 과정"2)으로서 교육적 판단이 우선이다. 나아가 오차 무시, 편차중시의 풍토에서 측정의 결과는 학습자의 미래에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심각한 교육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차발생이 불가피함에도 오차를 무시한 채 신뢰하는 반면 집단간 내지 개인간 편차의 해석함에 있어서 능력차 혹은 단위학교 간 교육력 차이로 규정된다. 문제는 이렇게 개인의 문제, 단위학교의 문제로 환원시켜서는 안 되는 복잡한 사회적 환경을 간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과 오류를 은폐시키는 부가적 기능을 평가(특히 국가단위 일체고사)를 통해 수행한다는 점이다.

측정관에 매몰된 평가시스템에서는 교육의 본질과는 무관한 비본질적 교육행위가 증대한다. 예컨대, 교수-학습과정 그 자체보다는 검사도구 개발과 교사의 전문성 가운데 평가전문성을 우위에 놓고 정작 가르치는 행위보다 평가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게 만든다. 또한 평가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 기저에는 '시험성적의 결과는 교수-학습을 개선하고 학생의 학습에 도움을 준다'는 강력한 믿음이 존재한다.

2) 전성영 외 역(2008) 『학교교육의 측정과 평가』, 서울 : 원미사, 27쪽

<일반교육학의 교육평가론>

◎ 개념

교육평가는 ‘교육 행위’이자 교육적 판단을 위한 과정과 활동으로서 윤리적이고 인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간이해를 위한 것이지 인간규정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교육평가는 교육적 의사결정을 위한 행위와 과정으로서 현실성보다는 가능성에 비중을 두는데 그 이유는 인간을 심판, 판단, 범주화시키는 인간규정 의식을 교육에서는 특별히 더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 기본 전제

교육평가는 평가대상에게 윤리적으로 피해가 가게 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과 관련된 평가인 만큼 교육평가는 ‘윤리적이고 인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목적 : 교육을 도와주는 역할

이론적 차원에서는 “교육평가는 교육을 도와주는 기능이지 구속하는 기능이 아님”을 강조한다. 교육평가는 철저히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하거나 수집하는 과정이다.

◎ 기능

- 중심적 기능 : 교육과정, 프로그램, 교구, 교재 등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기능
- 부차적 기능 : 선발 혹은 자격증 부여 / 책무성 평가 / 행위 동기부여 / 상벌 등 평가를 통한 권한 행사 (평가대상에게 윤리적으로 피해가 가서는 안 됨)

◎ 대상 : 인간 그 자체는 교육평가의 직접적 대상에서 제외

인간 그 자체는 교육평가의 직접적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며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학업성취도가 교육평가의 주요 대상이다.

◎ 평가의 순기능과 역기능

▷ **평가의 순기능** : 아래와 같은 평가의 기능이 현실 속에서 제대로 발휘될 경우

- 진단적 기능 : 평가 대상에 대한 상태 혹은 실태를 파악하는 기능
- 형성적 기능 : 어떤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간점검을 하여 그 활동을 개선하고 수정·보완하거나 대안을 탐색하는 것
- 총괄적 기능 : 어떤 활동이 종료된 후 그 활동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기능
- 전략적 기능 : 평가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능. 이는 평가의 본질적 기능이라기보다는 파생적 기능. 예컨대 학습동기 유발이나 특정 내용 홍보 목적으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교육기관 평가, 왕권강화를 위해 과거제 시행 등)

▷ **평가의 역기능**

- 진단적 기능 : 진단에서 드러난 대상간의 ‘차이’가 차별의 근거로 이용되는 경우.
- 형성적 기능 : 특정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 기능 발휘 (특히, 외부평가)
- 총괄적 기능 : 평가 대상들 간의 지나친 배타적 경쟁 유발로 긴장감과 불안감 조성, 삶의 여유 박탈, 동료들 간의 공동체 의식 붕괴. 아울러 피평가자들을 합격자/불합격자, 성공자/실패자, 능력자/무능력자로 구분하여 낙인찍혀 낙오자로 취급받게 함.
- 전략적 기능 : 평가의 본질적 측면이 소홀히 되고 전략적 기능만 지나치게 강조.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통제’, ‘교육부의 시책이나 규정에 따른 업무의 계획 및 집행’ 등만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 등.

측정관에 몰입된 교육평가는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³⁾이었다. 무지의 소산이 아니라 알면서도 이렇고도 있는 것이 한국의 교육평가가 빠져있는 현실이다. '시험'으로 대변되는 평가제도가 유발하는 비교육적 성격과 그 역기능에 대한 지적은 매우 많고 지속적이며 교육학자, 관료, 정치인, 일반대중 등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시험위주 교육에 대해 비판한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한국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이 마치 교육평가 그 자체인양 오인되는 것은 한국의 학력에 대한 관점과 깊은 연관이 있다.

나. 계량주의적 학력관

학력(學力)의 사전적 의미는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나 기술 따위의 능력.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응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다. 학력의 연관어로는 학력증진, 학력향상, 학력검사, 학력저하 등이 있는데 이는 계량화하기 불가능한 ‘능력’이라는 질적 개념을 양적 개념으로 왜곡하는 현실태를 보여준다.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학력저하, 학력격차 논란에서 근거는 시험점수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학력관은 일제의 잔재 중 하나이다. 총독부는 석차(상대평가)를 근간으로 학력의 서열화를 도모하여 이를 식민 지배 전략으로 활용했다. 일제강점기 ‘학력에 따른 민족분할 정책’은 식민지 지배의 전형적인 전략의 하나로 학력에 따라 민족의 분할을 도모하여, 높은 학력을 가진 자가 낮은 학력을 가진 자를 대리 통치케 함으로써 식민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통교육이나 개화기의 학교

3) Stufflebeam과 Shinkfield는 미국 교육에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계기로 교육평가의 기본 방향이 변화되었다고 보고 이를 5단계로 구분하였는데 Tyler가 처음으로 Educational Evaluationfksms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의 시대를 Tyler이전 시기로 통칭하고 Tyler가 교육평가를 목적달성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시기를 2단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진보주의 교육관이 현장에 적용되었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여유있는 시기 집단보다는 개인이 중심이 되는 교육철학이 전개되던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였다. 4단계는 1958년부터 1972년에 이르는 시기로 소련의 Sputnik발사에 대한 충격으로 교육의 책무성 문제를 제기하며 연방정부가 교육에 개입하여 학교 교육을 평가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국가수준의 표준화 검사가 개발되었고 교육 종사자에 대한 업적을 평가하여 학교와 학군의 교육결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을 실시하였고 연방정부에서 선발한 전문가 집단이 수시 혹은 정기적으로 학교를 평가하였다. 이 시기에는 표준참조평가(즉 상대비교평가)가 널리 이용되어 1957년 이후 수년간 학력비교, 서열화 등의 목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교육결과를 평가하였으나 1963년 이후에는 상대비교평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Cronbach는 표준참조평가에 의하여 상호비교가 유행하고 있는 현상을 보며, 교육평가는 ‘어떤 말이 일등으로 들어왔느냐’에 관심을 두는 승마경기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1971년에 조직된 National Study Committe도 교육평가가 병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에서 학생들의 품행에 대해 별도로 평가하여 기록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부터 학적부의 학업성적란에 조행이라는 항목을 첨가하여 갑/을/병/정, 혹은 우/량/가/부로 구별하여 평가. 성행란을 두어 성격, 재간, 악벽, 장애, 이상, 취미, 기호, 언어, 동작, 용모 등에 대해 서술식으로 기록(규율을 어기지 않도록 유도하는 소극적 통제 전략)했다. 학적부의 기록은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교장이 작성하는 '소견서'(내신서라고도 함)의 근거가 되었다. 당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초중등학교에서의 평가는 학생들의 전과목 평균점수에 따라 석차를 매기는 상대평가제를 도입하여 그 석차를 진급, 진학, 취학 등에 활용(능동적 통제 전략)하고, 동시에 학생들의 품행평가 즉 조행이나 성행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진급, 진학, 취업 등에 활용하였다. 특정 집단에서의 상대적인 서열을 말해주는 석차를 제시하는 일은 개항 이전의 전통 교육과 일제강점기 이전 개화기 교육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석차도입은 '학력에 따른 민족분할 정책'에 따라 학교의 '교육적 기능' 보다 '사회적 선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의 경쟁 혹은 투쟁 대상이 곧 함께 지내는 동료학생들이 되게 함으로써 반일, 항일운동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초중등교육기관에 상대평가에 의한 석차를 도입한 또 다른 의도는 초중등교육기관을 일종의 종결교육기관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상대평가에 의한 석차는 '직업인 양성 및 차별적 채용'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종결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직업인양성소나 직업연수원 등에서 흔히 활용하는 평가 방식이다. 이를 초중등교육기관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 초중등교육기관을 종결교육기관으로 인식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차별적 채용이나 선발에 활용함으로써 '간이' '실용'을 강조한 식민지 교육정책에 부응하도록 유도한 증거이다.

해방 후 21세기에 이르는 지금 한국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일제의 잔재인 계량주의적 학력관이 인적자본론과 결합되어 있다. '글로벌 창의인'을 강조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은 이명박 정부 버전의 인적자본론을 근간으로 한 교육과정이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학생들을 자신들이 설정한 '미래사회'의 '인재'(노동력)로 규정하고 '자존적 자기이해, 의사소통, 상상력·창의력, 문화적 감수성, 문제해결력, 논리력, 공동체 시민정신, 지도성'을 글로벌 창의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개인의 교육의 권리주체가 아니라 특정한 사회형태에 적합한 부품으로 조형대상화하는 관점으로서 공교육을 이에 복무하게끔 강제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⁴⁾ 인적자본론과 계량주의적 학력관의 결합은 '엄정한 성취기준 설정'⁵⁾으로 준거지향평가(절대평가)를

4) "특별히 견제할 수 있는 국가 공동체와 개인의 안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전자가 후자에 우선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곽병선, 2009)

표방하면서도 학업성취기준 중심 학력진단의 주기적 실시(다시말해 표준화와 집단간 상대비교 기능을 하는 평가)를 교육과정 실효화 전략의 하나로 제시⁶⁾한 대목에서 드러난다.⁷⁾

2) 평가의 교육조형기능 : 평가가 교육의 실재를 심각하게 왜곡

교육평가가 교육실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평가의 교육조형 기능이라고 한다. 한국교육의 경우 평가에 의한 조형기능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잉상태이며 평가가 갖는 온갖 역기능이 포화상태를 넘어선 지경이다. 앞서 살핀 특성의 평가관, 학력관, 인간관은 관념에 머물지 않고 있다. 평가제도로 강제됨으로써 한국교육의 실재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에서 평가의 교육조형기능은 교육평가의 ‘부차적 기능의 절대화’ 현상으로 규

- 5) 교육평가는 평가방식에 따라 표준지향평가와 준거지향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표준지향평가는 학생의 학업성취를 그가 속해 있거나 또는 속해 있지 않더라도 비교가 되는 집단의 규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가늠하는 평가이다. E. L. 쏘다이크는 <교육성과 측정의 본질·목적·일반적 방법>에서 학생의 성취·숙달 성적이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어떤 표준에 비추어 본 측정이어야 하며, 이러한 측정은 물리측정과 같은 절대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표준화검사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대두되어 학교성적의 점수체제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고, 교수공학의 발달로 준거지향평가의 의의가 높이 평가되고 학업성취에서의 실패는 그들의 선천적 능력의 제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방법의 실패에 있다는 반성이 일어나면서 준거지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널리 확산되었다. 준거지향평가 개념의 정립은 G. 글래서의 <교수공학과 학습결과의 평가>라는 논문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표준지향평가에서 벗어나 의도했던 교육목표의 달성여부에 비추어 학생의 학업성취 정도를 가늠하는 평가이다. (출처 : 브리टे니커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2g1698a>)
- 6) ‘성취기준의 설정’으로만 보면 ‘준거지향평가’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일제고사를 실효화 전략으로 제시함으로써 준거지향평가라고 할 수 없다. 학교 내 상대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획일적으로 표준화된 검사지로 치루어 집단 간 비교를 하는 ‘일제고사’이다. ‘수능성적 공개’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집단간 상대적 비교에 이미 활용된 바 있다. ‘고교등급제’를 고교내신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제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비교를 목적으로 한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 7) 스웨덴의 경우, 평가는 국가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교사에 의한 평가에 신뢰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원되며, 개인들 간의 경쟁이 목적이 아니다. 우파 정권의 집권으로 변화가 시도되고는 있지만 환경당, 사회당 등 영향력 있는 정치세력들은 평가를 교육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정도로 교육의 목적은 평가가 아니라는 철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관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다면적 발달을 중시하는 홀리스틱한 관점(인지, 수공, 정서, 심미성, 신체기능, 사회성 포괄) 즉 다면적 학력관과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웨덴에서는 연대의 정신을 중시하는 다면적 학력관에 터하여 절대평가와 덜 세분화된 간단한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제도에 비해 느린 학습자들을 낙인화하지 않는 장점을 지닌다. (이윤미(2010) “스웨덴의 교육평가”, <진보교육> 4월호)

정할 수 있다.평가의 중심 기능은 인간발달을 위한 실천으로서의 교육을 돕는 것으로서 교육과정, 프로그램, 교구, 교재 등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기능임에도 책무성 추궁, 경쟁 유발, 상벌부여 근거 활용 등 외재적 동기 유발이 중심 기능을 압도하는 현실이다.

가. 일제고사

측정관에 매몰된 평가관, 인적자본론에 터한 인간관, 계량주의적 학력관, 평가적 국가⁸⁾관이 응축된 ‘잘못된 평가’의 대표적 사례가 일제고사이다. 일제고사는 모든 교육주체간 경쟁과 반목을 부추기는 고부담책무성평가로서 국가수준의 학력검사가 ‘교육과정평가’를 주요 목적으로 실시되고 정당화된다는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다. 최근 성취도평가는 폭력적 형태의 강제적 일제고사로 ‘책무성 모형’과 평가적 국가관에 의한 것이어서 국가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자료 수집이 용도가 아니라 학생의 성취도를 표준화된 검사지를 통해 전수조사하여 계량화된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학생의 점수가 학교와 교사에 부담이 되어 돌아오는 시스템으로 구조화되어 있어 그 모든 부담이 다시 학생에게 돌아간다.

누누이 경고했던 파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정규학사 일정에서 시험일이 끼어드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있는데 학사일정 전반은 물론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장애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학교의 성과’를 위해 학생들을 강제로 보충수업과 자습에 동원하는 학교가 일제고사 시행 전보다 압도적으로 늘어났다.

최근 서울지역 학교교육 실태조사 분석결과⁹⁾에 따르면

▷입시 위주 교육 등 학사파행 증대. 0교시, 보충수업, 야간학습 고등학교는 강화, 초중학교로까지 확대. 휴업일 강제 등교

▷정상적 교육활동 침해. 성적 향상 압박이 심해지면서 문제풀이식 수업강요, 부진아 대상의 보충수업 등 성적위주의 교육활동 강제. 하지만 학력향상은 의문시. ‘마지 못해 시늬’하는 현실

8) 평가적 국가(evaluation state)의 강화는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을 위시로 하여 나타난 국제적 추세로서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관료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 자율과 분권을 강화하고 질 관리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시도로서 요컨대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기획과 과정의 통제로부터 결과에 대한 평가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과정까지 통할 하려는 ‘평가중심의 통제’이다.

9) 첨부자료1 “서울지역 학교교육 실태조사 분석 결과 - 일제고사, 학교선택제 이후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참조.

▷ 학생인권 상황 악화. 특히 학교선택제의 압력에 놓인 고등학교의 경우 학칙의 무리한 적용으로 강제전학을 시키는 등 일제고사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쫓아내려는 시도가 증가. 보충, 자율학습 역시 학생의 의사는 무시된 채 강제.

가장 심각한 것은 '성적에 의한 차별'이라는 비교육적 행태가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노골적이고도 버젓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학업성취도 평가>¹⁰⁾

◎ 시행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생의 평가)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제7차 교육과정 :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의 학력평가, 교육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 목적

☞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학업성취도의 변화 추이 파악

☞ 교과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목표에 비추어 학생이 목표를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지 분석하고,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정착 정도를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기초가 되는 참고 자료 제공

☞ 문항 분석, 성취도와 배경변인과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장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산출

☞ 참신하고 타당한 평가도구를 개발·활용함으로써 일선학교의 평가 방법 선도

☞ 변화 추이 설계와 기법, 성취수준 설정 방법, 배경변인과의 심층 분석 방법 등과 같이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한 새로운 연구 설계와 방법을 탐색하여 확산시킴

◎ 내용과 방법

☞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과 목표와 내용을 제대로 학습하였는가를 평가 : 초등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 평가

☞ 평가문항은 선택형과 서답형 및 수행평가로 구성함

☞ 학생·교사·학교장 설문지를 통한 교육성취도의 배경 변인 조사 병행

☞ 준거지향평가로 성취수준을 보고 :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 분석결과 보고 및 활용 계획

☞ 표집평가에 참여한 학생의 개인별 평가지표를 제공,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도 및 진로지도 지원

☞ 평가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고, 시사점을 분석하여 국가 및 시·도교육청에서의 교육정책수립, 단위학교에서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진로지도 등의 자료로 활용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kice.re.kr/ko/board/view.do?menu_id=10168

“학업성취도평가 거부는 反교육이다” <문화일보 (이성호/중앙대 교수·교육학)>

전국 단위 학력평가에 대한 거부 선동이 또 사회 일각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중략)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국가의 교육 시책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반(反) 교육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는 이유인즉 ‘일제고사는 비교육적인 경쟁을 조장하고 그 결과의 공개를 통해 학교의 서열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들의 주장에 내포된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

우선,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은 개별 학생들의 우열을 판정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평가의 결과는 학교교육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 같은 자료 없이는 학교교육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분석부터 어렵다. 학교교육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있어야 교육은 발전한다. 이렇게 볼 때 학업성취도평가의 거부 는 교육의 진단과 분석과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인 셈이다.

다음으로, 서열화라는 쟁점이다. 이번엔 실시되는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는 학교별로 공개되기 때문에 학교 간의 비교는 불가피하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학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국 혹은 지역단위 학교들의 서열을 완전 공개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간혹 들리고, 필자 역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특정 학교의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조장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른바 일제고사폐지 시민모임이 주장하는 것처럼 학업성취도평가의 기본 취지가 학교 간의 줄세우기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게다가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학교 간의 격차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같이 공개된 평가를 토대로 낙후되거나 취약한 학교들을 가려내고, 이들에 대한 차등 지원을 통해 이러한 학교들의 교육 여건과 질을 향상시킨다면 학교 간의 격차는 점차로 줄어들 것이다. 결국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학교와 교사들을 더욱 동기화시키는 물론, 그들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학업성취도평가는 실보다는 득이 많은 제도라고 확신한다. 서열화를 이유로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끝으로, 경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분석해 본다. 학업성취도평가를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대로 경쟁이 비교육적인 것이라면, 경쟁을 조장하는 모든 평가, 보다 정확히 표현해 평가의 결과가 점수나 등급으로 표기돼 학생들 간의 비교가 가능한 평가는 거부돼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의 대부분은 폐지돼야 하는가.

양적 평가 위주의 교육과 과열된 경쟁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평가와 경쟁은 그러한 부작용보다 훨씬 중요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평가와 경쟁이 성취를 동기화한다는 것은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결국 학업성취도평가의 취지는 학교 간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대한 부정은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음을 학업성취도평가 반대론자들은 잘 알아야 한다.

나.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학생평가

○ 방식 표준화된 검사지에 의한 상대평가(석차), 양적평가(계량화, 원점수)
○ 기능 진단과 형성 기능은 매우 미미하고 총괄 평가, 전략적 평가의 역기능이 절대적

- 발달의 가능성 차단

교내 일제고사식의 정기고사(=표준화된 시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학생평가 역시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음. 한국 학교에서의 일상적 평가는 “인간의 현실성보다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둔다”는 교육평가의 대전제를 거스르고 있다. “평가는 교육에 도움을 주는 보조수단”이라는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평가에 교육활동이 종속되어 있고 학교에서의 평가는 곧 ‘시험’이고 점수화된 결과가 미래의 가능성을 예단하고 폐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사전 학습과 사후학습을 연결하는 피드백 기능 부재

많은 학생들은 시험을 치른 후 시험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려 한다. 결과는 괴롭지만 괴로운 만큼 이후 학습의 안내역할은 구체적으로 해주지 못한다. 학생의 시험 점수는 교사나 학부모는 점수화된 결과를 보고 ‘다음에는 몇 점 이상’ ‘더 열심히’ ‘몇 등 목표’라는 하나하나한 주문 외에는 학생에게 의미있는 피드백을 줄 만한 자료적 효용성이 없다. 더욱이 계량화로 인해 학급의 평균, 학교의 평균을 비교하는 일이 수반되기까지 함으로써 교사간에 쓸데 없는 경쟁의식을 부추기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의 평가는 학습 실패를 경험하는 학생들을 양산시키며 이는 학습포기자의 양산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초래한다.

- 교사를 인간이해자로서의 발달하고자하는 욕구 저해

평가방법 개선의 취지로 도입된 수행평가 및 서논술형 문항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독서이력철 등이 도입되도 소용이 없다. 현행의 점수산출(계량화)와 생활기록부 기록 중심의 학생평가는 교사의 교육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업무’의 일종일 뿐이다. 학생 개개인을 ‘점수’와 ‘종알종알’(행동발달특성) ‘각종 활동에 대한 누가기록’으로 처리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업무다. 교사의 판단을 중시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교사는 최대한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라는 ‘객관주의’의 허상에 시달린다. 학생의 미래에 흑시라도 마이너스가 될지 모른다는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의 압력은 교사들의 인간이해자로서의 전문성 발달을 촉발할 아무런 동기를 주지 않는다.

- 교육적 관계 훼손

점수를 주고받는 관계는 교육적일 수가 없다. 발달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탈바꿈되는 게 한국의 '점수'를 위주로 한 평가시스템이다. '점수 깎는다'는 협박을 통해 통제 수단으로 오용함으로써 교육적 권위와 학생과의 신뢰 관계가 저해된다.

- 정서와 가치관의 왜곡

성장기 아동, 청소년에게 정서적 손상을 유발하고 공동체 의식보다는 경쟁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강화한다. 학생에게는 시험이 미래를 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험 그 자체가 커다란 스트레스다. 아울러 공부에 대한 흥미와 배움의 의미를 박탈해버린다. [공부=시험준비], [공부를 잘하는 것=높은 등수]로 규정된 현실로 인해 배움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할 겨를 없이 배움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된다. 엄청난 역기능이 아닐 수 없다. 점수로 규정당하는 것이 싫으면서도 학생들 스스로도 친구관계를 성적으로 규정한다. 이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왜곡된 판단기준과 관점(학력, 학벌로 사람의 가치 판단)을 심어주어 재생산하는 효과를 내포한다.

3) '비교'라는 목적과 기능에서 벗어난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이 필요

위와 같은 현상들은 한국의 학생평가가 세계에서 비슷한 예조차 찾기 어려운 비정상적 형태이기 때문이다. 점수 측정 위주, 발달단계에 따른 명료한 기준의 부재, 평가권이 가르치는 주체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평가가 교육과정을 도리어 좌지우지한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을 학생평가가 수행하는 중심기능이 '비교'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상대평가가 갖는 문제로 나타나며 '계량화'에 이은 '서열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역으로 계량화된 결과는 서열화와 비교로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p><상대평가의 문제점>¹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평가의 기준점은 그 집단내부에서만 통하기 때문에 타 집단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상대평가는 개인의 상대적인 지위를 알려주지만 그 개인의 교육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는 제시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그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는 알 수 없으며, 학습의 결과 무엇을 할 수 있되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상대평가는 개인 간의 과열된 경쟁의식을 조장할 수 있다. ○ 상대평가는 경쟁의식을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외재적인 동기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학습이론에서는 외재적인 동기유발이 아니라 내재적인 동기유발을 권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외재적인 동기 유발 즉 경쟁의식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안이한 성취감이나 가혹한 패배감을 강요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강화체제를 흐리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사에서도 상대평가(규준지향평가) 즉 성적에 의한 서열화를 시행할 경우가 절대평가(준거지향평가) 시행할 경우보다 '낙오자'를 만들어내는 평가의 역기능 훨씬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조사에 따르면 서열화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국가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한국의 중학생 319명 중 66.5%의 학생들이 학생의 성적을 서열화하는 것에 반대(박정희, 200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평가에 대한 비판을 통해 수행평가, 참평가 등 '새로운 평가이론'이 구체화되었고 평가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정책화되어 학교현장에서 시행이 되었음에도 문제는 계속 심각해져왔다. 따라서 현재 목도되는 평가의 역기능들은 현재의 평가 패러다임의 자체를 바꾸어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시 말해 몇 가지 평가방식을 추가한다고 해서 바뀔 문제가 아니라 '관점까지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이다.

시장주의자들이 방패막이로 내세우곤 하는 '학부모의 요구, 권리'는 과연 격렬한 경쟁을 유발하는 계량화 중심의 상대평가를 지지할까? 달리 말해 학부모라는 존재가 원래 자기 자녀의 등수, 서열적 위치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가? 그렇지 않다. 학생 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2)을 살핀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들 역시 '바람직한 평가의 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학생평가는 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학생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바람직한 평가에 대한 생각
-수,우,미,양,가 -석차 -서열 -시험 -시험 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자신의 성장, 발달을 격려하는 것 - 관심분야, 능력을 파악하고 진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 장점을 살리고 적성을 찾는 것 - 잠재력을 파악하여 그것을 기준삼아 학생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 - 수치보다 잠재력, 품성에 더 관심 갖는 것 -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평가하여 학생의 장차 계획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 학습수행능력, 사고력, 글쓰기, 말하기, 교우관계 등을 평가하는 것 - 미래를 준비하고 격려하는 것

11) 출처 : <http://amable.tistory.com/8?srchid=BR1http%3A%2F%2Famable.tistory.com%2F8>

12) 서지혜 『중등대안학교 학생평가 분석』 (2006,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외국 및 대안학교의 학생평가

교육의 고통은 잘못된 평가에서 비롯된다는 통찰은 국민적 상식이라고 믿어도 좋다.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식민지 통치의 일 수단이었던 평가패러다임을 고수하는 '독립 국가'는 지구상에 한국이 유일해 보인다.

1) 외국의 학생평가¹³⁾

- 중심 방식 : 절대평가이자 질적 평가. 학생 상호간 경쟁을 철저히 배제. 원점수와 석차를 기재 배제. 교사가 평소 관찰 등을 종합하여 서술식으로 통지하고 이를 학부모 상당의 주요자료로 활용. 중등학교에서도 절대기준에 따른 평점 부여.
- 평가권 : 학생평가의 중심주체는 외부기관이 아니라 직접 가르친 교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역시 이를 그대로 통지하지 않고 평소 교사의 평가와 종합하여 결과 통지.

가. 미국

- 1980년대 후반 평가 개선 노력 : 문장기술식, 수행평가 등 질적평가 도입. 교수-학습 과정 개선과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돕고, 전인교육을 강조, 결과와 과정 모두 중시. 1980년대까지는 선발, 배치 용도의 점수 매기기, 등수 정하기 등 양적 측정 치중.

- 통지표 : 석차 기재 하지 않음. 지역별 혹은 학교별로 특성화, 다양화. 성취수준(절대) 평가 원칙에 입각하여 3내지 4단계로 평가. 학년이 올라갈 수록 서술식 평가보다 간단한 평어 사용.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육적 처방을 돕기 교수-학습 보조 장부로 활용이 주 용도. 상급학교 선발 시에도 상대적 석차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수 여부 및 이수성취수준 파악을 위한 자료만 요구.

나. 일본

- 학교 내 평가와 상급학교 입시의 이분화 :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상급 학교 입학시험과 학교에서의 학습 달성도를 판정하는 것과 별개로 취급. 입학시험은 경쟁 강화 방향으로, 학교교육에서의 평가는 경쟁 지양하는 방향으로 진행.

13) 허경철 외 『국가 교육평가 정책수립 방안연구 -외국의 교육평가현황분석을 중심으로』 (1997, 한국교육개발원)

- 학교 내에서는 서술식 평가가 일반화되었고 상대평가의 폐해,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학교 운영 문제 등을 노출시키지 않음.
- 성취기준 평가 :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개인의 장점이나 개성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개정. 평가 내용에는 개인의 개성과 함께 사회적 요구 강조.

다. 영국

- 일상적 학교수업에서의 학생평가 : 일제시험 없음. 학생의 진도차에 따른 개별화된 시험. 형성평가적 기능. 거의 서술형 문항. 수행과제 위주. 주요과목 외에는 평소 교사의 면밀한 관찰 기록으로 시험 대신.
- 학생통지표 : 모두 서술식(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성취기준에 의하여 교사들이 성취 정도 평가) 초등의 경우 대부분 informal education(열린 교육) 실시하고 개별화된 완전 학습이 목표. 이에 따라 학생 중심의 비형식적인 절대평가 방식 취함. 학급 단위의 받아쓰기 암산 능력 시험(이것도 성적기록 목적이 아님) 외에는 쪽지 시험의 형태라라도 일제히 시험을 보는 일은 없음. 형성 평가 형태는 자주 실시되지만 이 역시 개별화. 개인 간 학습진도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김. 평가지와 학습지는 서술형문제 비중이 매우 크며 평소 과제에 대한 평가가 큰 비중. 국어 수학 외에는 개별화된 시험조차도 보지 않음. 평소의 학습 태도와 학습 결과에 대한 교사의 관찰 결과 기록으로 충분. 시험공부 할 일도, 시험날도 없고 동급생과의 비교도 없음.
- 통지표 양식 : 1993년도부터 서술식 통지표 작성. 매학기 이틀 가량 수업하지 않고 학부모 상담일 실시. (20분씩 개별 면담) 통지표가 상담의 중요한 자료.
- 국가 수준의 평가 : 절대기준 평가에 원리에 입각하여 실시. 목표 상세화, 국가 종합평가 결과 통보는 총점, 평균, 석차를 표기하지 않고 과목별로 설정된 하위영역에 대한 학생의 도달정도를 통지. (수업에 대한 열성, 흥미, 과제수행 정도도 통보) 목표의 성격에 적절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평가. 표준화 검사 결과와 더불어 직접 가르친 교사의 평정점수를 최종 성적 결정에 포함.

라. 프랑스

- 학교에서의 학생평가 : 고등정신기능의 발달이라는 교육의 본연과 부합하며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평소 학교수업을 열심히 해야 만함). 인문학 중시 풍토 속에서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의 습득과 탐구능력 함양 강조되며 국어와 철학, 수학 등이 전 교육과정을 통해 중시. 이런 풍토는 평가 과정에도 철저히 반영. 객관성 확보보다는 학교 교육이 본래 취지에 맞

게 이루어지는지 학생들이 충실하게 지적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는가가 관심.

- 평가 방법 : 논술형 필기시험, 구두시험, 과제물 평가,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찰평가 위주. 학교단위 평가가 유급, 진로선택, 변경 등 진로결정제도와 관련되어 사회적으로 중시됨. 학교 성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판단 근거로 작용. 여기에 각종 심리검사 결과, 학생의 개인사, 성격발달, 학생의 환경, 학교여건 등도 고려. 상대적으로 입학시험과 같은 선발장치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약.

- 학교단위의 학생평가 : 교사에 의한 평가 즉 내신 위주. 절대평가방식. 학생간 상호비교 평가가 아니라 교사의 교과전문가적 입장에서 설정된 기준에 비추어 성취여부 판단. 내신평가는 주로 과제물과 시험에 의함. 정기적인 일제고사는 없고 교사 자율적으로 수시 실시하며 채점도 교사 자율. 채점방식에 대한 체계화된 규정 없이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평가. 3개월 마다 통지되는 성적표에 일련의 점수로 기록. 한 학년을 한 두 명 이상의 교사가 가르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학교 내 비교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료교사들과 상의할 필요 없는 구조.

- 평가주체 : 교사가 교육방법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평가권 역시 거의 전적으로 인정. 지적 엘리트주의 교육전통 속에서 지식의 소유자와 전달자로서 사회적 지위가 확고히 인정되어 있음. 평가에 있어서도 신뢰를 받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평가에 있어서의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평가의 신뢰도,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학년위원회'의 조정으로 보완. 학교장, 해당학년 교사들, 학생대표2명, 학부모대표2명, 경우에 따라 진로상담가, 학교의사 등 참여. 주요 기능은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평가하고, 저조한 이유를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 학년말에는 진로결정에도 중요한 역할.

마. 독일

- 학생 간 상호 우열을 가리는 상대평가 방식이 아니라 교수목표 달성정도를 평가하는 절대평가방식 채택. 또한 평가는 학생들의 우열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닌 평범한 교육활동의 일부로 간주됨. 따라서 평가는 교사와 교장의 절대적인 교육권으로 간주되어 모든 평가결과들은 학생, 교사, 학부모 간 상호 신뢰받고 있음.

- 교육부령인 '일반학교규정'을 참조하여 1~6등급으로 성취에 대한 평점 부여. 필기시험을 비롯한 모든 평가에 사용. 등급부여 기준은 교사의 전문성에 의존해 결정. 신뢰도와 타당도 제고를 위해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많이) '제2의 평가검사교사제도' 활용. 학교장이 지명한교사가 출제 문항, 채점, 기록과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제

도. 기초학교¹⁴⁾ 1~2학년에서는 6단계 평가제도 대신 서술식 평정방식 사용. 서술에 있어서는 되도록 부정적인 평가는 피하고 긍정적 측면 강조.

- 기초학교에서의 평가 : 시험의 의미가 아닌 클라센아르바이트(“학급일”)로 지칭되는 평가방법 사용. 어린이들의 특성 파악을 위해 학급내에서 교사가 수시로 실시하는 시험을 의미. 이를 통해 교사들은 학업성취정도에 대해 알려줄 수 있게 되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알게 됨. 국어, 수학, 주제 탐구학습 내용에 대해서만 형식을 갖춘 시험을 지필 평가를 실시하며 공식적인 지필검사는 실시 2~3일 전에 통보해야 함. 평가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채점된 시험지는 바로 돌려주어야 하며, 아동들의 평가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불필요한 경쟁심을 조장해서는 안 되고 모든 아동들이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 평가 시 신중히 고려.

- 국가나 주 차원의 표준화된 시험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형태의 시험은 교사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음.

- 1,2학년은 사회성 발달이나 학습 범위 등에 대한 기술된 통지서를 학년말에 받으며, 3학년 부터는 매 학기 말에 6등급 평가제도에 의해 작성된 통지표. 지필검사 뿐 아니라 평소 관찰된 능력 점수 반영하여 평점 부여. 평소점수 비중은 1/2. 가장 중시되는 것은 언어를 통한 수업 참여정도. 이는 배우는 즐거움을 강조하는 토론중심의 수업 강조 분위기와 관련. 학부모회의의 결정에 따라 서술식 평정 적용 학교가 생겨나고 있음.

바. 스웨덴 15)

-평가철학 : 비교, 분류, 경쟁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각급 학교의 학습 목표에 맞는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성취수준을 제시하고 그 도달정도를 확인하여 지원하는 과정. 국가 교육과정 목표 안에서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적 판단을 하는 구조.

- 학교에서의 교육평가 : 절대평가로서 3단계(통과, 우수, 매우 우수) 평정방식 여기에 교사의 서술형 의견도 함께 제시. 최하와 최우수 학생 간의 차이를 줄이고 ‘느린 학습자’가 낙인감을 갖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배려에 기반한 것. (노르웨이1-6, 핀란드 4-10) 공식적 성적은 8학년에 처음 배부. 과목별 개인성적만 있고 석차 없음. 공식평가는 8학년 이후 학기당 한번씩 과목별 성

14) 우리나라의 초등 1~4학년에 해당.

15) 이윤미(2010) “스웨덴의 교육평가”, 진보교육37호 (2010년4월)

적표와 전체 성적표 작성, 배부. 담임교사는 전체를 수합하여 학기말 이전에 3자회의에서 이를 협의하고 3자 회의 이후 학생은 자기평가서 직접 작성 제출. 평가기준과 성적은 학교단위에서 협의되고 성적부여는 담당교사의 자율적 권한.

- 결론적으로 특징은 첫째, 절대평가, 둘째, 척도가 간단(1970년대 논쟁 거침. 간단한 척도만으로도 학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동기부여에 충분하다고 주장. 아울러 세분화된 상대평가 척도에 비해 느린 학습자들의 압박감 해소 효과). 셋째, 질적 평가. 스웨덴의 3단계 척도는 목표지향적/언어적 척도임.

2) 국내 대안학교 사례¹⁶⁾

서울지역 중등 대안학교인 S학교에서 학생평가는 프로젝트 수업은 물론 기초교과도 주로 발표, 과제로 진행된다. 한 학기동안 진행한 교육활동은 학기말에 '쇼하자'라는 행사를 통해 발표한다. 교사의 지원 속에 학생들은 컨셉 구상부터 준비, 발표까지 스스로 해내는 '쇼하자' 프로그램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 하지만 평가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자신이 한 것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보기도 하고 타인들을 통한 피드백 과정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며, 과정의 소중함을 느끼기도 한다. 또 소통의 방법을 배우게 된다.

- 다양한 평가방법 : 지필평가 뿐 아니라 그보다는 발표, 과제 수행, 다른 학생과의 소통, 쇼하자(공개 프리젠테이션) 등의 다양한 형태로 평가. '쇼하자'는 준비과정에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까지 평가의 대상. 공개적으로 행해진다는 면에서 학생 상호간 평가결과, 학부모에 의한 평가결과도 포함. 이는 집단적 활동 중심의 협동적 평가와 부합.

- 서술형 통지표 : 각 기초교과, 프로젝트 담당교사, 담임교사가 개별 학생에 대한 의견을 장문의 서술형으로 제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 변화 모습을 장점과 단점 모두 기술하며 다음 학기에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내용도 제시. 이는 '수'로 표현하는 것보다 학생에 대한 정보를 보다 많고 깊게 나타내줌. 따라서 숫자로 개별 학생을 '심판'하거나 학생에 대한 지표로 숫자를 사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새롭게 해줌. 또한 숫자로 된 성적표보다 훨씬 피드백 효과 큼.

- 소통을 위한 평가 : 소통하는 방식의 평가는 그 자체로 학습의 과정이 됨. 그래서, S학교에서의 평가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는가 점검하는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경쟁이 아닌 협동, 소유가 아닌 공유, 단절이 아닌 소통의 매개로서 구실.

16) 서지혜 『중등대안학교 학생평가 분석』 (2006,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잠재력을 중시하는 발전을 위한 평가 : S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생평가는 아이의 관심과 능력, 필요에 의거한 아이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방편으로써, 장차 어떤 일을 하여 살아갈지에 대한 근거가 되어 바람직하며 수치적 평가보다는 잠재력과 품성에 더 많은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즉, '평가는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여김.

3. 현대 교육평가 논의의 흐름

“(학생평가) 변화의 움직임은 몇 가지 지적해보면, 객관식 선택형 검사를 통한 평가로부터 논술형 검사를 통한 평가로, 표준 지향 평가에서 준거 지향 평가로,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지필 검사 형태의 심리측정적 평가로부터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참평가로의 변화.....새로운 패러다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성취 검사)보다는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학습평가)를 강조하며, 학습자를 분류, 선발하는 목적으로 평가를 이용하기 보다는 교수-학습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평가를 이용할 것을 제기한다.” (한순미, 비교초키와 교육, 교육과학사, 1999)

1) 학생평가에 대한 최근 논의 동향

교육평가 이론에서의 변화도 상당하다. 측정 위주의 전통적 이론으로부터 탈피하여 '질적 평가로의 변화', '성취검사보다는 학습평가로의 변화' '분류, 선발보다는 교수-학습의 개선 목적' '상호작용 중시의 역동적 평가' 등 전통적 평가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방향성을 지닌 이론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PISA 등에도 영향을 주었다. 한국에서도 교육 현실에 비해 이론 영역에서는 이론에서는 상당한 변화들이 진행되어 왔다.

가. 구성주의적 평가관 (백순근, 허형, 이종승, 허숙 등)

구성주의적 접근 역시 기존의 평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흐름에 동승해 있다. 구성주의적 평가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수행평가 도입을 주도한 참평가 논의가 구성주의자들의 기여한 점이다. 질적 접근, 주관주의, 활동중시, 과정평가, 협동적 평가로의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양적접근에서 질적접근으로 / 심리측정적 패러다임에서 맥락적 패러다임으로 / 객관주의에서 주관주의로 / 행동적 관점에서 인지적 관점으로 / 결과보다는 과정

강조, 수동적 반응보다는 능동적 구성을 평가 / 탈교과적이고 통합적인 평가로 / 지필평가에서 참평가로 / 단일 경우의 평가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표집행동의 평가로 / 단일 속성의 평가로부터 다면적 평가로 / 개별적인 학생의 평가로부터 집단의 평가로 전환하여 활동중심으로 협동적 평가 강조

한편, 허숙은 다음을 “인간교육을 위한 교육평가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 발달적 평가 : 학생들을 갈라내기보다는 모든 학생들의 발달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 전인적 평가 : 교과 지식만이 아니라 학생의 행동특성이 총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학생을 통합적, 총체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노력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교육평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초점이어야 한다.
- 종합적 평가 : 지나친 분과주의를 지양하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언어적 평가 : 교육평가는 숫자의 굴레를 벗고 언어를 매체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교육평가란 성적으로 학생들을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생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 활동이어야 한다. 어떤 과목 점수가 0점이라고 해서 과목 능력이 0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
- 교육적 평가 : 교육평가는 교육을 위해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평가를 위한 교육’으로 가치전도된 ‘입시준비교육’의 병폐 극복해야 한다.

구성주의적 평가관은 기존의 평가에 대한 반대를 지향했을 뿐 ‘발달적 관점’이 불충분했고 인적자본론을 근본적 부정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실증주의, 계량주의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하자는 정도일 뿐이다. 지나친 주관주의와 입시라는 구조적 현실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부재로 한계에 봉착해 있다. 7차 교육과정을 주도한 것은 구성주의자들이었다. 동일한 학자들이 ‘미래형교육과정’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완할 문제로 볼 뿐 폐지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인간발달’이 아니라 ‘평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중심주의로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 ‘평가가 문제다’라고 하는 주장은 지극히 옳지만 평가방식만 ‘개선’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경험한 바다.

나. 비고츠키 이론에 근거한 ‘역동적 평가’

‘역동적 평가’ 이론은 비고츠키 이론을 토대로 한 평가론이다. 비고츠키 이론은 ‘인

간적 발달'이라는 교육의 기본지향에 충실한 교육이론이다. 비고츠키 교육학은 평가의 목적이 인간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가능성의 형성과 교수-학습 과정의 개선에 둔다. 이로부터 출발하는 비고츠키 교육학의 평가 패러다임은 '인간적 역능(발달기능) 중심의 질적 평가' '잠재력과 가능성 중심의 미래 지향 평가' '관찰과 상호작용 중심의 지속적, 역동적 평가' 그리고 '소통 중심의 협력적 평가'를 지향하는 특징을 지닌다.

한순미는 '정적 평가'에서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 개념과 상호작용 개념에 영향을 받은 역동적 평가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사-학습자의 상호작용 중시하는 역동적 평가는 "아동의 문제해결과 사고과정을 탐구하면서 아동의 문제해결 전략이 변화, 향상되는 방식을 조사하기 때문에 교수에 대해 유용한 정보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핀란드, 교수학습과 평가의 유기적 결합 : "평가는 학습의 일부"

핀란드 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평가에서 절대평가와 질적 평가를 중시하며 교수-학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장학'이 활성화되어 있다. 핀란드는 교수-학습과정과 평가의 유기적 결합의 좋은 예이다.

핀란드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성적 등수표를 받아 볼 수 없다. 전 학년에 이르는 성적표는 Kiitetävä(끼이떼따바-아주 잘함), Hyvä(휘바-잘함), Tyydyttävä(뛰위뒣따바-보통), Vättävä(발따바-노력 바람), Heikko(헤익꼬-낙제)의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Kiitetävä는 10점 만점을 받은 점수, Vättävä 5점으로 과목 패스라인, Heikko는 4점으로 과목 낙제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 과목에서 Tyydyttävä 이상의 점수를 받고 있으며 5%에 이르는 소수의 학생들만이 Heikko를 받는데 그 과목에 선천적으로 흥미가 없거나 아주 싫어하지 않는 이상 Heikko를 받는 일은 없다.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Heikko를 받기 전 많은 충고와 도움을 주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한다.

활동 기능 중심의 발달단계 설정과 관찰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중시하며 이것이 핀란드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교사의 평가전문성이다.

또한 외부적 상벌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 주의집중 중시한다. '점수'가 몇 점이나, 얼마나 빠르게 과제를 해결하느냐로 아동을 독려하는 것을 배제하고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 학교와 가정이 협력한다.

핀란드 초등교육 2학년 <국어>의 학업 성취 기준

- 상호작용 기능 발달

- ◇ 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며, 청자가 설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신의 관찰과 경험을 소그룹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안다.
- ◇ 일상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적절히 행동할 수 있다. 교사와 다른 학생의 말과 토론을 이해하고, 말하거나 토의할 때 상호작용하려고 노력하며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들은 것에 반응할 수 있다.
- ◇ 표현 연습에 집중하며 참가한다.

- 읽기와 쓰기 능력 개발

- ◇ 초기 읽기 단계에서 기본 기술이 강화된 단계로 발전한다. 연령 그룹에 맞는 텍스트를 읽을 수 있을 만큼 독서가 풍부해진다.
- ◇ 읽는 동안 자신이 읽는 내용이 이해되는지 관찰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읽고 있는 것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 글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글쓰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글쓰기에 자신의 상상력을 활용할 수 있다.
- ◇ 손으로 쓸 때 글자를 연결시킬 수 있으며, 컴퓨터에서 원문을 만들 수 있다.
- ◇ 단순하고 익숙한 어휘를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며, 문장 부호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문장을 대문자로 시작할 수 있다.

- 문학과 언어의 관계의 구체화

- ◇ 적절하고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찾을 수 있으며, 즐거움과 정보 양쪽 모두를 위해 읽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 ◇ 자신의 읽기 능력에 알맞은 (최소한 몇 권의) 어린이용 책을 읽을 수 있다. 미디어 활용 능력은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따라갈 만큼 충분해진다.
- ◇ 언어에 관한 연령 그룹의 특성에 맞는 관찰을 할 수 있다. 단어의 음성학적 구조와 음절 구조를 분석하는데 흥미를 가지며, 알파벳순으로 글자를 나열하고 알파벳순으로 활용할 수 있다.
- ◇ 언어와 텍스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배운 개념을 활용하는 데 익숙해진다.

4.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

새로운 평가패러다임은 '발달의 관점'이 출발점이며 학습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평가가 자연스럽게 결합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평가하는 것이 발달의 관점에 부합한다는 점을 전제하고자 한다. 발달의 관점에서 본다면 '서열을 매기는 일'은 매우 우스운 일이다. 발달 단계가 다를 경우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고 발달 단계가 같다면 불필요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협력의 차원에서 본다면 점수 경쟁은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협력 그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학습 과정인데 점수 측정을 통해 서열을 매기고 비교하는 것은 협력 자체를 파괴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핀란드 교육관계자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경쟁은 교육과 반대되는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1)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의 방향

가. 발달 중심의 질적 평가

교육에서 가장 근본적인 의제는 '발달'의 문제이다. 교육은 인간 발달을 지향하는 것이며 인간적 발달은 사회적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발달은 지식의 양적 누적 이 아니라 '고등정신기능'이라는 인간적 역능의 인지적, 정서적, 실천적 발달을 의미한다. 교육의 목적을 인간적 발달에 두면서 고등정신기능의 질적 변화 과정에 주목할 때 교육평가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새로워진다. 즉 지식의 양적 측정과 서열화가 아니라 고등정신기능의 발달 상황과 과정에 대한 진단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기능의 구체적 발달 상황을 서술하는 질적 평가 방식으로 나타난다.

질적평가는 곧 주관적 평가는 아니다. 발달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평가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할 때 질적평가는 발달에 의미로운 과정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비고츠키 교육학은 인간발달 과정을 4개의 발달노선(자연적, 사회문화적, 개체발생적, 미소발생적)의 연관된 결합과정으로, 발달단계에 따른 고등정신기능의 양적 성숙과 질적 비약의 과정으로, 정신기능을 인지적·정서적·실천적 측면의 결합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호작용과정으로 보면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발달을 추구한다. 이 같은 논의에 기반하여 발달단계에 걸맞는 정신기능을 설정하고, 그 기능의 출현·성숙·내면화의 국면과 인지적·정서적·실천적 측면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기능들이 협력을 통한 상호작용과정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나가는가를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다.

발달 기능 중심의 진단과 개선 방향의 제시라는 질적 평가가 체계화될 수 있는 것이다.

나. 발달의 가능성을 중시하는 미래 지향적 평가

잠재적 발달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개념화한 것이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¹⁷⁾ 개념이다. 근접발달영역은 교사나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출현,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가능성을 의미한다. 인간의 발달 가능성을 현재의 인지능력만으로 판단하고 고정화해선 안 되며 교육은 근접발달영역의 창출을 통해 미래의 꽃을 피워나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비고츠키가 근접발달영역이라는 개념을 통해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은 교육이 현재 상황보다는 앞으로의 발달 가능성과 잠재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현재 수준 측정’에만 골몰하는 기존의 평가관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준다.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야말로 평가의 주요 영역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접발달영역이라는 개념은 이미 많은 교사들의 실천에서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교육실천은 기본적으로 발전 가능성에 입각해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이미 알거나 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모르거나 못하는 것을 상황과 단계를 고려하여 익힐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형태의 교육은 가능성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교육의 본질에서 본다면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진단이야말로 교육실천과 직결되는 평가 영역인 것이다.

ZPD(근접발달영역) 진단기법¹⁸⁾도 실제로도 이미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

17) 근접발달영역은 아동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수준과 아동보다 좀더 성인이나 또래의 도움을 받아 성취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수준 사이의 거리로 비고츠키에 의해 개념화된 것으로서 개인 혹은 집단이 ‘지금 당장은 수행할 수 없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면서 이후엔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발달영역’으로 규정된다. 여기서 발달영역은 새로운 질적 변화의 영역이며 따라서 한 두 번의 수업이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영역이다. 그리고 홀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나 어른, 또래집단과 함께 수행하는 집단적 과정이다. 근접발달영역 개념은 공교육의 의의, 집단적 협력학습의 의미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비고츠키 『사회 속의 정신』 ; 천보선(2009) “비고츠키 교육학과 참교육의 재정립”, <진보교육> 12월 ; 이종승, 정연희(2001) “비고츠키의 ZPD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18) 이종승과 정연희는 “비고츠키의 ZPD이론은 ‘교수’와 ‘평가’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고 한 가지 과정으로 통합되는 새로운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보고 지능을 측정하는 K-WSIC지능검사와 상호작용방법 및 점진적 단서제공방법에 의한 ZPD검사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평가의 과정에서 교사가 감독자가 아닌 적극적 도움을 주어야만 가능한 평가라는 점에서 기존의 평가와의 차이점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종승, 정연희(2001) “비고츠키

만 근접발달영역도 IQ 진단처럼 수치화되는 어떤 개인의 고정된 능력으로 오해되고 있기도 하다. 근접발달영역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창출하는 문제이며 발달 과정에 대한 지속적 관찰 속에서 파악과 진단이 가능하다.

다. 개별학습자 만이 아니라 집단적 관계와 과정 평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평가의 주요 대상은 개별학습자의 발달 상황만이 아니라 동료 간에 형성된 관계와 상호작용 과정 그리고 교사-학생집단 과의 상호작용 과정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장 주요하고 효과적인 학습과 실천이 집단의 협력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 가는 개별 학습자에 대한 평가 지점이 될 수 있지만(핀란드교육에서는 각 교과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자체가 주요한 평가 지표가 되고 있다) 집단 전체의 관계형성과 협력과정, 교사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교수-학습 과정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며 필수적이다.

라. 관찰과 대면 중심의 지속적(역동적) 평가

발달 상황과 가능성에 대한 진단의 주요한 방법론은 ‘지속적 관찰’과 ‘상호작용을 통한 역동적 파악’이 된다. 발달 과정과 가능성에 대한 파악을 한 두 번의 시험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학습과정과 과제 수행과 협력과정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구체적 대면(이야기하기, 질문하기 등)이 필요하다. 물론 관찰과 대면 외에도 필요한 경우 쪽지시험, 레포트 등 다양한 방법이 결합될 수 있다.

발달 상황은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관찰과 평가 지점 역시 역동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역동적 평가는 중간에 한 번 쯤 쪽지시험을 보는 기존의 ‘형성 평가’ 개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지속적인 관찰, 대면, 대화와 결합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다. 그를 통해 발달 상황과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질적 평가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마. 소통을 통한 협력적 평가

평가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관찰, 대면 외에 제기되는 것이 협력적 평가이다. 교사 일방만이 아니라 설정된 목표, 진행 과정 등에 입각하여 학습자와 소통하면서 함께 평가하는 것이다. 협력적 평가는 진단 내용에 대한 구체성과 동의의 수준을 높일 수

키의 ZPD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있으며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와 방향에 대한 주체적인 목표 의식을 훨씬 강화할 수 있다. 일부 북구 교육에서 개별학습자별로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협력적 평가' 방식을 수반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협력적 평가의 대상에는 개별학습자의 발달 상황만이 아니라 '교수-학습 프로그램'도 포함되며 어떤 주제학습이나 협력학습 등에 대한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하는 소통을 통해 개선,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새로운 교육평가 패러다임의 의의

가. 학습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진단과 교육적 처방

발달 기능이라는 분명한 지표를 기준으로 관찰과 대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단해 나간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교육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은 자명하다. 더욱이 협력적 과정을 통해 동의의 수준을 높인다면 이후의 학습실천을 개선하는 교육적 효과 역시 더욱 분명할 것이다.

나. 교육실천의 전문성 강화

'발달단계에 입각한 고등정신기능'이라는 분명한 지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관찰, 대면, 소통을 해나간다면 교육노동의 전문성 역시 크게 함양될 수 있다. 지금까지 막연한 관찰을 통해 '00는 심성이 착하며 머리가 좋다'식의 이해가 아닌 '00는 현재 소그룹 상호작용이 발달할 단계인데 1대1 대화는 잘하지만 여러 명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는 아직 미숙하다'는 관찰 결과는 훨씬 구체적이며 학습자와 학부모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된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관찰 등을 진단할 경우 학습자의 발달 상황에 대한 이해는 훨씬 구체화, 체계화, 전문화되며 지속적인 실천은 숙련도를 높일 수 있다.

다. 교수-학습 과정의 지속적 변화, 발전 추구

기존의 교육평가는 개별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수-학습의 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논의와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비고츠키 교육학의 평가 패러다임에서는 협력 학습 과정에 대한 개별 학습자의 상호작용은 물론이고 집단적 과정 자체가 진단, 평가의 대상이 됨으로써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 발전의 추구가 가능하다.

라. 교육적 본질의 추구

‘인간발달의 지향’ ‘가능성, 잠재력의 중시’ ‘협력적 과정’ 등의 핵심적 평가 지표들은 매우 본질적인 교육적 가치, 지향과 일치한다.

마. 교수-학습 과정과 평가의 통일

관찰, 대면, 소통 등의 평가 방법은 교수-학습 과정과 일상적으로 결합되는 것이다. 그것은 발달 과정이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기 때문이다. 진단, 평가가 일상적으로 교수-학습과정과 결합된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시험을 보거나 직접적 평가를 남발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 관찰과 소통을 통해 개별학습자와 학습 집단의 상황을 진단하면서 능동적으로 교수-학습과정에 반영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평가 지상주의와는 명확히 대립되며 평가는 교육적 실천과 교수-학습을 개선하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바. 협력하는 인간, 발전지향의 인간

교육적 인간관의 변화이다. 비고츠키 교육학에 따르면 인간은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본질을 지니며 자신과 집단에 닥친 위기와 모순을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본질을 지닌다.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의 등장은 아동, 학생들에겐 새로운 위기이자 모순이며 인간은 그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본질적 지향을 지닌다. 그리고 새로이 등장한 과제에 대해 아동과 학생들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해결해 나간다. 협력은 새로운 위기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발전의 경로이다. 학습자를 인간자본으로 바라보며 대상화하고 상호 경쟁으로 파편화시키는 경쟁적, 정태적 인간관을 ‘협력하는 인간’, ‘발전지향의 인간’이라는 관점이 대신하게 된다.

<보론> ‘학습부진’ 현상에 대한 관점과 처방

‘학습부진’이라는 말은 학문적,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태동했다기보다는 ‘사회적, 정책적 용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른바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현상을 기술한 용어이고 ‘학습부진아’라는 말도 사전에는 뜻풀이가 되어 있지 않다. 즉, 아동, 청소년에게 ‘너는 학습부진아야’라고 낙인찍은 것 자체를 조심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즉 어떤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지 사람에 대한 규정적 용어로 쓰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을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분명 개인 간 학습차가 교육에서

당연한 일처럼 간주되고 비일비재한 현상으로 때로는 교육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현상으로 간주되는 만큼 ‘학습부진’이라는 현상 자체를 쉽게 취급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의 경우 먼저 평가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우리의 학생평가시스템은 ‘학습부진’을 양산하고 실제보다 더 크게 드러나도록 한다. 변별력이 평가도구와 평가행위의 주요 덕목으로 취급되는 만큼 0점부터 100점까지 세분화하여 줄을 세우지 못하면 평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여기면서 ‘난이도 논란’으로 직행한다. 서구 유럽 등의 경우 기준 충족여부를 따지는 절대평가와 언어적 서술평가 그리고 세분화된 척도 사용을 피함으로써 제도에 비해 느린 학습자들을 ‘낙인화’하지 않는다. 유난히 ‘문제풀이 속도’ 강조하는 한국의 학생평가에서 느린 학습자들은 무능한 학생이 되기 십상이다. 저학년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반복될 경우 학습부진은 학습포기 현상으로 이어진다. 시험 한 번 치를 때마다 의욕을 갖는 학생보다는 자기 효능감을 상실한 ‘공부포기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교사들은 경험하고 있다.

학습부진의 원인 즉 ‘아이가 공부를 못 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불안, 우울, 강박 등 정서적 요인, 가정 불화, 빈곤, 스트레스 등의 사회 환경적 요인 혹은 잘못된 공부법, 심한 열등감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즉 지적 능력과 별개로 나타나는 학습부진의 원인은 학습자마다 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진단과 규정이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인과 그에 따른 처방에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일제고사는 학습부진에 대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발견과 원인 규명의 경우, 교사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몇 번의 수업이나 일상적 활동에서 관찰과 상호작용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며 별도 예산을 들일 필요도 없이 파악이 가능하며 학습자 개개인에 대해 어떤 처방을 해야 할지 잘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일제고사처럼 ‘낙인화’도 없다. 서울지부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났듯이 ‘일제고사에 의한 학습부진아에 대한 진단과 지원’ 정책으로 많은 학교들, 교사들, 학생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수학적 성적이 낮은 원인이 실은 독해력, 혹은 정서문제 등등 일지라도 일제고사의 점수는 그런 정보를 주지 못한다. 시험 준비 위주의 부가적 학습에 강제로 시달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교육당국의 정책 덕분에 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던 아이들마저 학교의 골칫덩이로 과도한 관심을 받으면서 낙인이 확실히 찍혀버렸다는 점이다. 일제고사가 할 기능은 학교 내에서 교육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발견을 못해서가 아니라 학습에 보다 많은 배려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뻗히 보여도 교사들이 손을 쓰기 어려운 구조적 조건이 문제인 것이다.

앞으로는 더 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 대신 지금 성적이 낮으니 당장 채찍질해야 한다는 조급함, 관료주의적 전시행정, 교사와 학교에 대한 통제 욕구, 계량주의적 학력관은 충분히 발달할 가능성을 지닌 아이들마저 학습도피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울지역 학교교육 실태조사 분석 결과

- 일제고사, 학교선택제 이후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

(2010.6.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실태 조사 방법과 참여 현황

1) 실태 조사 방법

- 조사 대상 : 서울지역 초, 중, 고등학교(급별, 설립자별로 전체학교의 약 20% 수준의 학교수 조사)
- 조사 기간 : 2010. 5월(약 한달 간 진행)
- 조사 방법 : 전교조 서울지부 주관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설문 조사 병행

2) 참여현황

- 총 256개교 : 초등학교 106개교, 중학교 76개교, 고등학교 74개교(공립고 38개교, 사립고 36개교)

1. 주요 현황과 문제점

입시위주 교육 등 학사 파행 증가

- 일제고사, 학교선택제 실시 이후 초·중·고 급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입시위주 교육이 강화되고 이를 위한 각 중 파행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
 - 정규수업 외 보충수업, 야간학습이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H중, Y중, D중 등),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실시되는 사례 발생(D초, S초)
 - 또한 주말 또는 놀토 등 휴업일에도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고등학교 약 36%, 중학교 약 37%, 초등학교도 약 8% 실시)

-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정규교육활동에서 부족한 다양한 교육활동 마련이라는 애초 시행 취지에 맞춰 진행되던 방과후활동이, 교과보충수업으로 전면 교체되고 있는 실정임. (중학교의 약 54%, 초등학교의 약 17% 정도)
-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선택제 실시 이후 우려했던 것처럼, 0교시, 보충수업, 야간학습 등 입시위주 교육이 강화되고(약 54% 응답) 다른 학교와 비교, 경쟁을 요구하는 일이 늘면서(약 65% 응답) 학교교육이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오전 8시를 전후하여 정규수업이 시작되는 학교도 상당수(약 27%)에 달하며, 8시 이전에 0교시가 실시되는 경우(약 16%)를 감안할 때 대부분의 학교는 7시 시간대에 등교가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됨.
 - 심지어 7시까지 등교하여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사례도 발생(Y고)
- 특히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주말 또는 놀토 등 휴업일에도 자율학습을 실시하거나(약 28%), 전학년 야간자율학습을 의무적으로 실시(약 19%)하는 등 학사 과정의 정도가 더욱 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최근 일련의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활동을 강제하는 것을 학교현장에서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학교별 성적 공개 등 학교간 학생간 경쟁 강화 정책으로 인해 입시 위주 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응답(고등학교 약 91%)
 - 자사고나 국제중고, 학교선택제 등으로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활동 강제(초등 약 70%, 중학교 약 74% 응답)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고(초등 약 71%, 중학교 약 63% 응답) 판단함

정상적인 교육 활동 침해

- 일제고사 이후 학교현장은 성적 향상 압박이 심화되면서, 문제풀이식 수업 강요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초등의 약 72%, 중학교의 약 42%가 일제고사 이후 성적 향상의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응답
 - 특히 초등의 경우 문제풀이식 수업을 강제하거나(약 28% 응답) 성적 위주의 교육활동을 강제하는(약 27%) 경우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학교도 이러한 경향이 약 1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무엇보다 학교현장에서 일제고사 성적부진아를 대상으로 한 보충수업 전면화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부상하고 있음.
 - 이러한 보충수업은 학력향상에 사실상 실효성도 없으면서(초등 별반 효과 없다 약 40%, 중학교 약 63% 응답) 오히려 교사들의 정규수업이나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됨(초등 약 73%, 중학교 약 64% 응답)

학생 인권 상황 악화

- 일련의 입시경쟁, 서열화가 강요되면서 학교명예나 선택을 등을 빌미로 학칙의 엄격한 적용이 강화되고 강제전학이나 용의복장 단속이 심화되는 등 학생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학칙의 엄격한 적용(중학교 약 26%, 고등학교 약 28%) 또는 엄격한 적용을 강조(중학교 약 38%, 고등학교 약 51%)하는 것으로 조사됨
 - 실제 학교선택제 실시 이후 고등학교에서 강제전학 등이 늘었다는 응답도 14%에 달하고 있음.
- 한편 정규교육 활동이 아님에도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등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 역시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기본권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고등학교의 경우는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이 사실상 강제로 실시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약 35%), 특히 사립의 경우 그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됨(약 58%)
 - 특히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경우도 새삼스럽게 등장하고 있음(Y고, S고 등)
 -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경우, 일제고사 성적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수업이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심한 경우는 방과후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S중, K중, S중, Y중 등)
- 또한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에게 가해지는 차별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성적'을 꼽고 있어(초등 약 76%, 중학교 약 70%, 고등학교 약 82%) 성적 위주의 학교교육의 변화가 시급한 과제를 알 수 있음.

낙제점수 받은 서울 교육

- 위와 같은 학교교육의 왜곡, 학사 파행 속에서 학교현장에서는 현행과 같은 서울교육을 50점 미만이라 판단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였음(초등 약 73%, 중학교 약 82%, 고등 약 77% 응답)
- 일부 교육청의 경우 자율적으로 보게 되어 있는 사이버자율학력평가 실시를 강요하면서 행정 파행을 자행, 학교교육을 더욱 왜곡하고 입시위주 교육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절대다수 대부분의 학교현장에서는 현재 교육의 문제점을 '입시위주 교육, 경쟁만능 교육, 서열화 교육'으로 꼽고 있었으며, 성적이 뒤처지는 학생들도 자기적성을 살리고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 교사든 학생이든 숨 좀 쉬며 살 수 있는 교육을 염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첨부] 학교교육의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한 자유응답 내용 정리 참조)

2.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초등학교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일제고사 실시 이후 성적 향상에 절대다수 학교에서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약 95%, 압박 심한편 약 72%, 압박이 심하지는 않으나 신경 쓰는 편에 약 24%) 일제고사 이전 이후에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는 약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중학교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성적 압박이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되어 그나마 자유로웠던 초등교육이 일제고사 이후 성적 위주, 입시 경쟁의 영향을 더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4. 일제고사 실시 이후 학교 현장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적 향상을 위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 (76개교 / 71.7%)
- ② 성적 향상에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압박이 심한 편은 아니다. (25개교 / 23.58%)
- ③ 일제고사 실시 이전이나 이후나 별 차이가 없다. (3개교 / 2.83%)
- ④ 기타 (1개교 / 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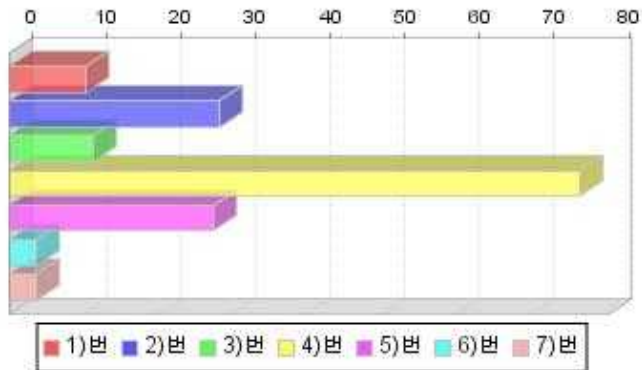


- 일제고사 이후 부진아 지도 강화(약 76%)와 성적 위주 교육활동 강제(약 27%), 시험대비 문제풀이식 수업 강요(약 28%) 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약 72% 응답)

5. 일제고사 이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파행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

- ① 방학 중 보충 수업 실시(11개교 / 10.38%)
- ② 시험 대비 문제풀이식 수업 강제(30개교 / 28.3%)
- ③ 교과 보충수업 전면화(12개교 / 11.32%)
- ④ 부진아 지도 강화(81개교 / 76.42%)
- ⑤ 성적 위주 교육활동 강제(29개교 / 27.36%)
- ⑥ 아침이나 야간 자율학습 강제(4개교 / 3.77%)

⑦ 기타 (4개교 / 3.77%)



7. 학교에서 실시하는 부진아 지도나 교과 보충수업으로 인해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이나 교육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2개교 / 20.75%)
- ②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편이다. (55개교 / 51.89%)
- ③ 그저 그렇다. (20개교 / 18.87%)
- ④ 별로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편이다. (7개교 / 6.6%)
- ⑤ 부정적인 영향은 전혀 없다. (0개교 / 0%)

○ 특히 방과후 활동이 교과 보충수업의 형태로 바뀌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선택권 제약을 이유로 금지해온 2~3개 교과를 묶어 진행하는 사례(S초, Y초)와 심지어 야간자율학습도 실시하는 사례(D초)까지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케 하고 있음.

2. 다음 중 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아침 자율학습을 영어듣기 등 30분 이상 진행 (3개교 / 2.83%)
- ② 1교시 정규수업을 8시 30분 전후로 실시 (3개교 / 2.83%)
- ③ 방과후 활동을 교과 보충수업으로 실시 (18개교 / 16.98%)
- ④ 교과 보충수업을 2~3개 과목을 묶어서 진행 (4개교 / 3.77%)
- ⑤ 야간자율학습 실시 (1개교 / 0.94%)
- ⑥ 주말 또는 놀토에도 교과 보충수업을 실시 (4개교 / 3.77%)
- ⑦ 기타 (25개교 / 23.58%)



- 대부분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은 아직은 다수 학교가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는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도 존재(약 12%응답)하여, 초등학교에서조차 최소한의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3. 정규수업 외의 교과보충 수업이나 자율학습 등에 학생들의 참여 방식은 어떠합니까?

- ① 원하는 학생들만 참여하도록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53개교 / 50%)
- ② 형식적으로 자율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로 실시하고 있다. (12개교 / 11.32%)
- ③ 무조건 강제로 실시하고 있다. (2개교 / 1.89%)

Response Option	Number of Schools
1)번	53
2)번	12
3)번	2

- 또한 정부의 일련의 학교서열화 정책으로 인한 입시와 경쟁 위주 교육의 강화(약 70% 응답), 사교육 의존도에 대한 우려(약 71%)가 크게 나타났으며, 현 교육정책을 낙제점 이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약 73%)

8. 최근 정부나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외고, 학교선택제 등 학교 서열화 정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학교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교사와 학교의 긴장감을 높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0명 / 0%)
- ② 지나치게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활동을 강제하고 있다. (74명 / 69.81%)

- ③ 학교 교육 외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75명 / 70.75%)
- ④ 학교 교육에는 별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3명 / 2.83%)
- ⑤ 잘 모르겠다. (0명 / 0%)



9. 현재의 서울시의 교육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① 90~100점 (0명 / 0%) ② 80점~90점 (0명 / 0%)
- ③ 70점~80점 (2명 / 1.89%) ④ 60점~70점 (12명 / 11.32%)
- ⑤ 50점~60점 (12명 / 11.32%) ⑥ 50점 미만 (77명 / 72.64%)



o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약 8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 인권 개선에 대한 교사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됨

10.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두발 문제나 체벌 문제를 포함하여 학생 인권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인권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광주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 서울에서 추진된다면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88명 / 83.02%)
- ② 반대한다. (3명 / 2.83%)
- ③ 잘 모르겠다. (12명 / 11.32%)



2) 중학교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중학교 역시 절대다수 학교에서 성적 향상에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약 87%, 압박 심한편 약 42%, 압박이 심하지는 않으나 신경 쓰는 편 약 45%), 일제고사 이전 이후에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는 약 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일제고사로 인한 학교교육 왜곡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음.

4. 일제고사 실시 이후 학교 현장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적 향상을 위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 (32개교 / 42.11%)
- ② 성적 향상에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압박이 심한 편은 아니다. (34개교 / 44.74%)
- ③ 일제고사 실시 이전이나 이후나 별 차이가 없다. (8개교 / 10.53%)
- ④ 기타 (2개교 / 2.63%)



- 중학교 역시 일제고사 이후 부진아지도 강화(약 68%)와 교과보충수업 전면화(약 22%), 성적위주 교육 활동 강제(약 20%)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약 64% 응답)

5. 일제고사 이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파행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

- ① 방학 중 보충 수업 실시(7개교 / 9.21%)
- ② 시험 대비 문제풀이식 수업 강제(8개교 / 10.53%)
- ③ 교과 보충수업 전면화(17개교 / 22.37%)
- ④ 부진아 지도 강화(52개교 / 68.42%)
- ⑤ 성적 위주 교육활동 강제(15개교 / 19.74%)
- ⑥ 아침이나 야간 자율학습 강제(3개교 / 3.95%)
- ⑦ 기타 (8개교 / 10.53%)



7. 학교에서 실시하는 부진아 지도나 교과 보충수업으로 인해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이나 교육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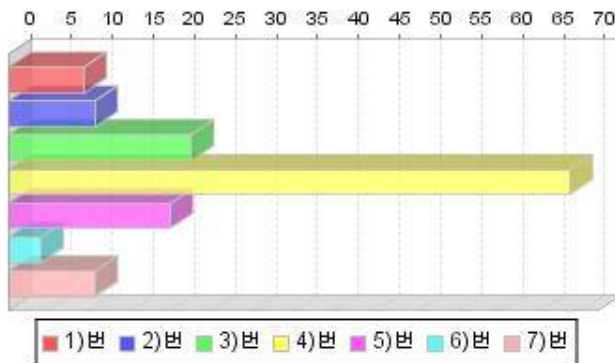
- ①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17개교 / 22.37%)
- ②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편이다. (32개교 / 42.11%)
- ③ 그저 그렇다. (12개교 / 15.79%)
- ④ 별로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편이다. (9개교 / 11.84%)
- ⑤ 부정적인 영향은 전혀 없다. (2개교 / 2.63%)



- o 특히 방과후 활동이 교과보충수업의 형태로 바뀌고 있고, 1교시 수업을 오전 8시 30분 전후에 시작하는 학교(D여중, D중)는 물론 야간자율학습(H중, Y중, D중 등)을 진행하는 학교까지 등장하는 등 학교교육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야간자율학습은 대부분 사립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어 사립학교의 학사과행이 더욱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

2. 다음 중 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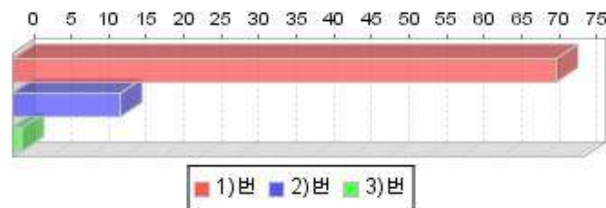
- ① 아침 자율학습을 영어듣기 등 30분 이상 진행 (8개교 / 10.53%)
- ② 1교시 정규수업을 8시 30분 전후로 실시 (2개교 / 2.63%)
- ③ 방과후 활동을 교과 보충수업으로 실시 (41개교 / 53.95%)
- ④ 교과 보충수업을 2~3개 과목을 묶어서 진행 (20개교 / 26.32%)
- ⑤ 야간자율학습 실시 (9개교 / 11.84%)
- ⑥ 주말 또는 놀토에도 교과 보충수업을 실시 (6개교 / 7.89%)
- ⑥ 아침이나 야간 자율학습 강제(3개교 / 3.95%)
- ⑦ 기타 (8개교 / 10.53%)



- 대부분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은 아직은 다수 학교가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참여를 강제하는 경우도 초등학교보다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약 15% 응답) 역시 학생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부진아학생의 경우는 별도로 강제 지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3. 정규수업 외의 교과보충 수업이나 자율학습 등에 학생들의 참여 방식은 어떠합니까?

- ① 원하는 학생들만 참여하도록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55개교 / 72.37%)
- ② 형식적으로 자율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로 실시하고 있다. (11개교 / 14.47%)
- ③ 무조건 강제로 실시하고 있다. (1개교 / 1.32%)



- 또한 정부의 일련의 학교서열화 정책으로 인한 입시와 경쟁 위주 교육의 강화(약 74% 응답), 사교육 의존도에 대한 우려(약 63%)가 크게 나타났으며, 현 교육정책을 낙제점 이하로 보는 것이 절대다수였음(약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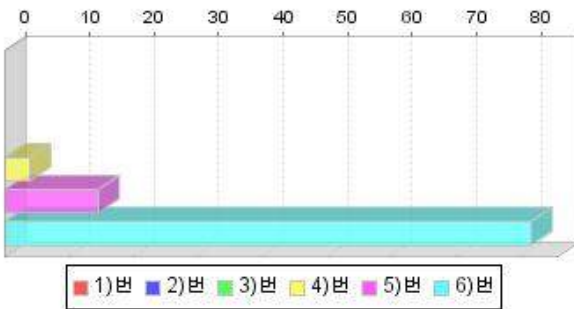
8. 최근 정부나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외고, 학교선택제 등 학교 서열화 정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학교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교사와 학교의 긴장감을 높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0명 / 0%)
- ② 지나치게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활동을 강제하고 있다. (74명 / 69.81%)
- ③ 학교 교육 외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75명 / 70.75%)
- ④ 학교 교육에는 별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3명 / 2.83%)
- ⑤ 잘 모르겠다. (0명 / 0%)



9. 현재의 서울시의 교육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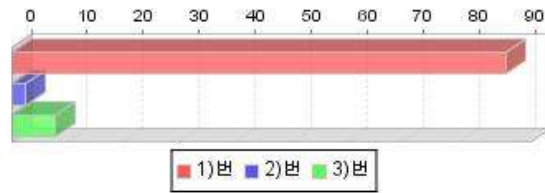
- ① 90~100점 (0명 / 0%)
- ② 80점~90점 (0명 / 0%)
- ③ 70점~80점 (2명 / 1.89%)
- ④ 60점~70점 (12명 / 11.32%)
- ⑤ 50점~60점 (12명 / 11.32%)
- ⑥ 50점 미만 (77명 / 72.64%)



-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하여서는 약 8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 인권 개선에 대한 교사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됨

10.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두발 문제나 체벌 문제를 포함하여 학생 인권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인권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광주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 서울에서 추진된다면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88명 / 83.02%)
- ② 반대한다. (3명 / 2.83%)
- ③ 잘 모르겠다. (12명 / 11.32%)



3) 고등학교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그동안도 입시위주의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었음. 그러나 예상한 것과 같이 학교 선택제가 실시되고 나서 입시 위주 교육활동 강화 등 학사 파행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입시 교육 강화 약 54% 응답, 다른 학교와의 경쟁 요구 약 65% 응답 등)

6. 올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학교 선택제가 실시되었습니다. 학교 선택제 이후 학교에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선택)

- ① 학교 시설이 좋아졌다. (12개교 / 16.22%)
- ②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이 다양해졌다. (2개교 / 2.7%)
- ③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늘었다. (6개교 / 8.11%)
- ④ 0교시, 보충수업, 야간학습 등 입시교육이 강화되었다. (40개교 / 54.05%)
- ⑤ 학교 규칙이 강화되었고 강제전학 등이 늘었다. (10개교 / 13.51%)
- ⑥ 다른 학교와 비교, 경쟁을 요구하는 일이 늘었다. (48개교 / 64.86%)
- ⑦ 기타 (7개교 / 9.46%)



- 이러한 변화 속에 절대 다수(약 85%)가 학교선택제가 실제 학부모나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단지 학교간 경쟁만 가져온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음. (매우 동의 약 72%, 동의하는 편 약 24%)

7. 학교 선택제가 실제로는 학부모나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단지 학교간 경쟁과 서열화만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동의한다. (53명 / 71.62%) ② 동의하는 편이다. (18명 / 24.32%)
 ③ 그저 그렇다. (2명 / 2.7%) ④ 동의하지 않는다. (0명 / 0%)
 ⑤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0명 / 0%)

Rating	Number of Responses
1)번	53
2)번	18
3)번	2
4)번	0
5)번	0

- 여기에 덧붙여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별 성적 공개 등 학교간, 학생 간 경쟁 강화 정책이 입시위주 교육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 (약 91%, 매우 큰 영향 68%, 큰 영향 23% 응답)

8. 최근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하여 학교 간, 학생 간의 경쟁을 강조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입시 위주 교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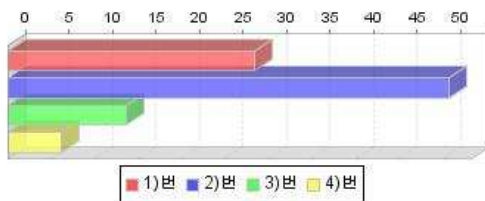
- ①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50명 / 67.57%)
- ②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7명 / 22.97%)
- ③ 그저 그렇다. (5명 / 6.76%)
- ④ 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1명 / 1.35%)
- ⑤ 영향은 거의 없다. (0명 / 0%)



- o 또한 학교선택제 이후 강제 전학이나 용의복장 단속 강화 등 학교 교칙의 적용을 강화하면서 학생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강제전학-용의복장 단속 강화 약 28% 응답)

9. 최근 학교 명예나 선택을 증가를 위하여 학교 규칙을 보다 엄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귀 학교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 ①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며 강제 전학, 용의복장 단속 강화 등이 일어나고 있다. (21개교 / 23.38%)
- ②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 (38개교 / 51.35%)
- ③ 그러한 주장이 드러나거나 강조되고 있지 않다. (9개교 / 12.16%)
- ④ 기타 (5개교 / 6.76%)



- 특히 공립고등학교에 비하여 사립고등학교의 학사 파행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비선택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삭감, 학급 수 감축 등 학교선택제가 (사립학교) 구조조정을 동반하면서 나타나는 상황이라 판단됨.
- 상당수의 응답 사립학교들은 1교시가 8시 전후로 시작하고(약 39%, 공립은 약 21%)
- 특히 야간자율학습을 전학년 강제하는 비율도 약 19%에 달하는데, 이는 공립의 약 5.2%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비율임
-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 있어서도 사립의 약 50%가 사실상 강제로 실시하고 있어 공립의 약 16%라는 응답과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역시 현 교육정책을 낙제점 이하로 보는 것이 절대다수였으며(약 77%),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하여서는 약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 인권 개선에 대한 교사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됨

12. 9. 현재의 서울시의 교육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① 90~100점 (0명 / 0%) ② 80점~90점 (0명 / 0%)
- ③ 70점~80점 (2명 / 1.89%) ④ 60점~70점 (12명 / 11.32%)
- ⑤ 50점~60점 (12명 / 11.32%) ⑥ 50점 미만 (**77명 / 72.64%**)



10.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두발 문제나 체벌 문제를 포함하여 학생 인권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인권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광주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 서울에서 추진된다면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61명 / 82.43%**)
- ② 반대한다. (3명 / 4.05%)
- ③ 잘 모르겠다. (8 / 10.81%)



초등교육에서의 새로운 평가방안 모색

홍순희(서울초등교육과정연구팀)

초등학교는 그 동안 지역사회 여건과 학생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수업을 해 왔다. 그리고 교사가 수행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과정을 평가 해 왔다. 또 평가한 결과를 통지표 양식으로 학부모에게 보내왔다. 그러나 3년 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로 인하여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은 획일화되어가고 있다. 그 동안 토론, 토의, 조사, 체험 등과 같은 수업은 사라지고 문제 풀이식 수업과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밀줄치고 요약하는 수업으로 전락되었다. 음악, 미술, 체육, 실과와 같은 교과는 국, 수, 사, 과, 영 교과에 밀려나게 되었다. 또 학교자율화로 교과 수업을 20% 증감 할 수 있도록 하여 국, 영, 수 집중 교육과정으로 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수업을 살리려고 노력하며 학부모와 소통을 통해 일제고사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제고사를 극복하고 수행평가를 살려 수업을 살리려는 모습과 통지표를 의미있게 살리는 방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1. 학교 현장에서 하는 평가

교사용 지도서에 교수 • 학습 평가는 발달적 관점에 기초하며, 결과와 함께 과정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교수 • 학습 수행 후에 평가와 함께 수행 중 평가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 교수 • 학습 활동, 평가 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¹⁾ 수행 평가 방법으로는 시연법, 참여 관찰법, 면담, 자기평가, 동료 평가 등이 제시되어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행평가를 중요시 하고 교육과정과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 하고 수업 수행 과정을 중요하게 제시하였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정 평가의 중요성은 그대로 제시하면서 교육과정 총론에 교육과정의 질 관리의 하나로,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들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1)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슬기로운 생활 1-1

평가를 한다.²⁾ 그러면서도 평가 방법은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 검사를 지양하고, 서술형 주관식 평가와 표현 및 태도의 관찰 평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고한다. 초등학교 교과 활동 평가는 학생의 활동 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서술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국가 교육과정과 선다형과 단답형 평가를 하는 일제고사의 논리적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1) 학습 활동 매 순간 이루어지는 평가

교사와 학생은 수업시간에 수 없이 많은 상호 작용을 한다. 또 학생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며 수업을 이끌어간다. 교사는 교사-학생, 학생-학생간의 상호 작용을 보며 수업을 만들어 간다. 수업하는 매 순간 순간이 평가인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에 도달해 가고 있는 과정이 부족하면 보충하고 쉬운 과정을 빨리 진행한다. 이런 모습들이 수업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교사들의 전문적인 평가의 안목이 발휘된다. 이런 수업의 흐름은 무계획적이며 비의도적이나 학생들에게 적절한 평가를 반영된 수업을 질적으로 다르다.

예를 들어 1학년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을 할 때 교과서에 있는 시간수로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음 수학 시간에 덧셈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수업을 바꾼다. 또 5학년에서 조상들의 의생활에서 여러 가지 의생활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온다. 학생들이 그 용어를 힘들어하면 ‘골든벨’ 형식으로 수업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도록 한다. 주로 국어시간과 사회간에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 정도를 고려하여 토론으로 진행될 경우 수업의 흐름은 예상을 깨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수업시간은 평가의 연속이다. 그 평가 속에 수업을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2) 수행평가를 통해 학습 과정 평가

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수행평가

학기초 교수 • 학습계획을 기초로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평가는 개개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평가 영역, 평가 시기, 평가 방법, 결과 처리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하는 학습 과정에서의 능력과 태도를 평가한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 총론, 재량활동, 175

(6) 학년 (1) 학기 (사회) 과 수행평가 과제

영역	인간과 공간2	관련 단원	1. 우리 민족과 국가의 성립
목표	고려와 거란, 여진, 몽고와의 관계를 역할극으로 해 보고 각 나라의 입장을 말할 수 있다.		
과제	1. 고려, 거란, 여진의 침략 전쟁 과정 조사 2. 각 나라의 입장에서 원하는 관계 토의하기		
평가 유형	토의활동		
평가 시기	6주(4월)		
평가 내용 및 평가 관점	1. 각 나라의 입장에서 원하는 국가관계를 잘 표현하였는가? 2. 각 나라의 입장에 맞는 근거를 들어 토론에 참여하는가? 3. 진지하게 토의활동에 참여하였나? 4. 토의활동 후에 고려의 입장을 잘 이해하게 되었는가? 5. 이 문제를 친구간의 문제로 본다면 어떤 입장을 선택할 것인가? 6. 친구 관계의 입장에서 근거 이유를 잘 표현했는가? 7. 역사를 통해 내 생활 모습을 반성하고 나의 친구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을 하는가?		

위에서 제시한 수행평가처럼 수업의 일련의 과정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한 내용을 이해해서 토론 활동을 하였다. 토론하는 과정을 대외관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다가 내 친구관계를 바꿨을 때 학생들이 입장을 정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대외관계와 친구관계에서 입장이 달라짐을 알고 자기 생활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어 사회 수업이 자기 생활과 관련이 있어 좋다고 하는 반응들이 많았다.

<지필평가 예시>

1. 다음 인물들과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바르게 줄로 이으시오.

(1) 서희 ·	· ㉠ 별무반 편성
(2) 윤관 ·	· ㉡ 외교 담판
(3) 강감찬 ·	· ㉢ 귀주 대첩

2. 다음 중 거란의 1차 침략의 원인으로 바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거란의 강동 6주 반환을 거절하였다.
 - ② 고려가 계속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
 - ③ 고려는 옛 고구려 땅을 되찾기 위해 거란을 침략하였다.
 - ④ 고려가 송나라와는 가까이 지내고, 거란과는 국교를 맺지 않았다.
 - ⑤ 고려에서 공물을 받아 가던 거란의 사신이 압록강 근처에서 피살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평가할 평가 항목을 선다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선다형 평가로 평가하자면 너무 깊이가 없다. 단순 암기 학습으로 진도를 쪽쪽 뺄 수 있다. 학습 방법도 단순하다. 위에서 제시한 수행평가와 일제고사의 선다형으로 평가했을 때 학력의 깊이는 너무 다르다.

나. 수행평가 중 학생 스스로 해 보는 자기 평가

자기 주도적 학습력과 생활습관을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점검을 하는 방식이 있다. 선생님들 마다 나름의 방식으로 공부습관, 생활습관을 바르게 기르기 위해 하는 방식이 있다. 이런 방법은 교사마다 다양하게 실시하고 제시한 자료 외에 별도의 방법들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해 보도록 하는 것이 많다.

이번 주 생활-신은희 선생님반에서 진행			
요일	공부할 내용(교과별로)	복습	읽은 책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가장 재미있었던 내용 :

* 힘들었던 내용 :

* 더 알아보고 싶은 것 :

학기말에 교과별 학습 활동 참여도와 흥미 있었던 것을 스스로 평가해 보는 것인

데 고학년 학생들이 자기 평가를 아주 솔직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교과 교사들이 한 학기를 정리하면서 학생 스스로 자기 학습 참여도와 흥미를 확인하는 것도 나름 효과적이다.

또 토론 학습, 모둠 학습을 할 때 모둠에서 상호 평가 방식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교사가 관찰한 것과 자기평가와 상호 평가를 반영하여 교사는 종합 평가를 할 때 반영하게 된다. 실제 교사들이 수행평가의 의미를 살리려는 노력은 눈물겹다.

6학년 1학기 자기 평가서	이름:
<p>1. 사회 수업을 통해 역사에 관심이 생겼나요? ① 예 ② 아니오 ③ 기타 (2,3번 일 경우 이유:)</p>	
<p>2. 토론 수업을 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미있다. ② 토론에 적극적이진 않지만 친구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재미있다. ③ 토론 내용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토론에 참여할 수가 없다. ④ 기타()</p>	
<p>3. 사회 시간에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사회 숙제로 사회책, 사회과 탐구 읽어 온 것 ② 역사와 관련된 책을 읽은 것 ③ 선생님의 설명 ④ 친구들 발표 ⑤ 기타()</p>	
<p>4. 칠판에 선생님이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 혼자 답을 찾아 쓸 수 있다. ② 주로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다. ③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④ 기타()</p>	
<p>5. 역사 수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거나 느낀점은 무엇인가요? ()</p>	
<p>6. 2학기에 ‘우리나라 민주정치’와 ‘세계 여러나라’에 대해 공부합니다.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제안하고 싶은 것을 써 주세요.</p>	

나를 진단한다 <학기말 담임이 해 본 자기 평가서> - 신은희 선생님 반에서 진행

김0

국어 : 말하기와 쓰기는 부족하다. 하지만 듣기는 잘 들을 자신 있다. 그리고 난 교과서 읽기는 좋아한다. 하지만 책읽기는 귀찮고 싫다.

수학 : 덧셈과 뺄셈과 분수, 약수, 배수 등 많은 것이 자신 있다. 하지만 통분, 무늬 만들기 등은 너무 어려워서 잘할 자신이 별로 없다.

사회 : 문화재와 역사 등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옛날에 조상들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도 잘 알고 싶다.

과학 : 거울과 렌즈는 헛갈리기 쉬워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식물, 동물, 용액, 용해를 알아보는 건 자신이 있다.

체육 : 체육은 좋아하지만 뛰기, 달리기 이런 것은 정말 자신이 없다. 하지만 공으로 배우는 체육은 정말 재미있다. 그래서 공으로 배우는 것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다.

음악 : 노래하기와 음악동영상을 정말정말 좋아한다. 그 중에서도 노래를 좋아한다.(단체로)

미술 : 아직 명도와 채도가 구별이 잘 안된다. 그리고 붓으로 색칠하는 것을 좋아한다.

도덕 : 도덕은 지키기가 어렵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하지 다짐을 해도 잘 안된다.

영어 : 난 영어를 좋아한다. 영어를 읽는 것도 좋아하고, 쓰는 것도 좋아한다. 듣는 것도 좋아한다. 그리고 아직 동사, 비동사 등이 어려워 구별을 잘 못하고 있다.

친구관계 : 친구는 여러 명이 있다. 그 중에서도 5반, 6반 우리 4반에도 친구가 많다.

건강 : 건강하고 좋은 음식들을 골고루 먹는다.

나를 진단한다2

나의 생활 : 난 지금 고학년이기 때문에 생활이 점점 어른스러워져야 한다. 하지만 아직 저학년처럼 어린 행동을 한다.

나의 건강 : 요즘 모든 걸 골고루 먹는다. 하지만 콩은 아직도 싫어한다. 하지만 건강하다.

나의 친구관계 : 예전보다 친구들이 더 많아졌다.

나의 성격 : 활발하다.

그러나 일제고사 이후로 수행평가에 대한 노력보다는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각 반 마다의 다양한 수업에 균열이 가고 있다.

3) 일제고사로 하는 지필평가

수업은 학생과 교사가 만들어 간다. 그런데 학년에서 통일된 문제로 여러 반이 한꺼번에 보는 일제고사 형태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다. 가끔씩 학급별 평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학년에서 통일된 시험지로 같은 날 보는 시험이 있다. 그 시험지로 수행평가를 대신할 수는 없다. 학기말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고 하지만 평상시 토론, 토의, 실험, 실습, 수행, 실기, 상호평가...등과 같은 수업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학업성취도 평가지로 학생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며 수행평가에 반영하기도 애매한 상태다. 그래서 일제식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생, 교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학생에게 결과로서 점수는 서열화를 시켜 학습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다. 특히 6학년은 46학년까지 배운 내용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방대해서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크다. 그리고 그 시험 결과로 부진아가 판명되고 부진아가 되면 방과후에 보충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교사 모두 부진아가 없기를 바란다. 그래서 수업을 과행적으로 가더라도 문제풀이식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거기다가 각 지역 교육청은 교육청별 등수와 학교장은 지역에서의 등수로 학교 평가에 반영된다는 소문이 있어 위로부터 조이고 조여서 학생들만 힘들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2. 현체제에서 가능한 교사-학부모-학생 소통으로 일제고사 극복하기

일제고사의 병폐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기에 그래도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다. 시험 점수로 학생들을 달달 묶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교사에게도 가르치면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 학생 전체와 소통하는 방법

가. 알림장을 통해 소통

초등 저학년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초등 1학년 1학기에 글씨도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글씨를 쓰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다. 초등 1학년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바라보는 시작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많은 교사들이 알림장을 프린트 해서 공책에 붙여 준다. 알림장은 단순히 숙제만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에서 진행된 수업에 대한 안내와 학습을 복습하는 것, 학생을 바라보는 교사, 학부모 관점, 학교 소식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 학급 전체 소통에 좋다.

나. 소식지나 편지로 소통

소식지 형태는 다양한데 학급 학생의 글쓰기 모음을 보내기도 하고 학급 소식지를 보내기도 하고 학부모-교사 소통 양식으로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아래는 학부모 총회 때 학부모에게 '한해살이'에 대한 안내를 한 자료이다. 총회 때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를 위해 학생편에 소식지를 챙겨 보내는 것도 꼼꼼하게 이루어진다.

소식지는 교사에 따라 다르다. 주간 학습 형태나 학급 신문, 학급 문집, 학부모 편지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가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학생을 잘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 학급 누리집으로 소통

학급 활동에 전반적인 모습과 학부모 소통을 하는 모습을 학급 누리집으로 운영하는 반이 많이 있다. 학습활동 장면을 담은 사진과 교단일기,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연수, 책, 자료를 안내하여 교사와 학부모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학급 홈페이지는 직접 학교에 방문하지 않아도 학급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학급에서 어떤 수업을 하였는지 학부모가 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 좋다.

<알림장>

6/20 토

- 1. 몸 씻기()
- 2. 책 읽기(제목:)
- 3. 일본 뇌염 예방 접종 확인서 가져오기-주사 맞은 사람

@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한지 4달이 가까이 됩니다. 이제 학교 오는 것을 어느 정도 습관이 된 듯합니다. 이제 우리아이가 스스로 학교에 등교하고 학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늘려가서 자립적인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가정과 학교에서 협조해서 함께 할 일>

- 1. 학교 혼자 오기(복도까지 부모님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 2. 알림장 보고 숙제 스스로 챙기기
- 3. 집안 일 중 할 일 하나 하기(신발장 정리와 같은 것)

<소식지 1>

<급훈> 몸으로 즐겁게 배우는 어린이	1학년 3반 학부모 소식지	발행일:2009. 12. 11. 금 담 임: 홍순희 선생님
--------------------------------------	----------------	-------------------------------------

⊙ 12월 학부모 모임 안내

11월 신종플루 때문에 정신없이 시간이 갔습니다. 11월에 ‘비폭력대화 방법’을 강의해 줄 강사를 요청하려고 강사에게 여러번 연락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강사가 내년 2월까지 강의를 꼭 차 있어 강사섭외에 실패하였습니다. 꼭 학부모님과 함께 듣고 싶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대안으로 학부모님과 12월에 편안하게 학부모 역할과 북유럽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 참석 바랍니다. 학교 일정 조정하다보니 시간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양해 바라며 시간 되시는 분만 오세요.

-때: 2009. 12. 17. 목요일 오후 1시 30분-3시 30분 -곳: 1-3 교실

⊙ 학습 마무리 잔치

12월에 ‘황소 아저씨’ 연극 공부하는 것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 참석 바랍니다.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참석을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 : 2009. 12. 19. 토요일 10시 -곳 : 1-3 교실

-준비물 : 사진 찍기 바라는 분 사진기

-미리 준비해서 낼 것 : 쌀 1봉지(12.17-12. 18까지)

<소식지2>

<p><급훈> 몸으로 즐겁게 배우는 어린이</p>	<p>1학년 3반 학부모 총회 소식지</p>	<p>발행일: 2009. 3. 18. 수 담 임: 홍순희 선생님</p>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 담임 선생님은.....</p> <p>- 학생에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는 교사 2. 공평한 교사 3. 사랑으로 지도하는 교사 4. 항상 연구하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교사 5. 체험활동을 중시하는 교사 <p>-학부모에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생활을 안내하는 교사 2. 항상 대화 할 수 있는 교사 3. 부담스럽지 않은 친근한 교사 <p>-교사 자신에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옳은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사 2. 항상 연구하고 누구에게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교사 <p>▶ 학습 안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들은 1학년에서 문자 공부를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배운 달소리가 들 어가는 낱말을 찾는 활동을 집에서도 해 주시 면 보다 효과적으로 한글 익히기가 될 것입니 다. 2. 2007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공부가 진행됩니 다. <p>- 국어 :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p> <p>- 수학, 수학의힘책 : 1-100까지 수와 간단한 덧셈 과 뺄셈 / 입체도형/ 한 가지 기준으로 사물을 분류하기/ ‘ㄹ’ 를 사용하는 식</p> <p>- 즐거운 생활 / 바른 생활-생활의 길잡이 : 통합 교육과정으로 운영</p> <p>@ 개정 교육과정이 다소 어려워지고 산만한 부분이 있어 재구성하여 지도할 예정이고 아이들이 어 렷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알림장에 써서 보내주세요.</p>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 부모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임 선생님도움을 훌륭하다고 보아 주고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이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2. 체험학습 신청은 2일 전에 신청하고 다녀와서 결과서 쓰면 결석이 되지 않습니다. 3. 학생에게 문제가 있으면 항상 학교 담임과 의 논해 주세요.(문자, 전화, 메일로 가능함) 4. 급식은 4월부터 시작됩니다. (급식통은 어깨 에 둘러지고 물통과 수저통이 함께 들어 갈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 5. 아이들 학용품에서 필통은 소리나지 않고 게 임기가 없는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 6. 선생님, 친구들의 다양함을 특징으로 보시고 비교하지 마세요. 자녀 교육에 좋지 않습니다. 7. 학습 자료는 학교 학습 준비물실에 있습니다. 학습활동 한 것은 공책과 알림장을 참고하세요. 8. 매일 책읽기 숙제가 나갑니다. 습관이 되도록 지도해 주세요. <p>▶ 아이들 먹거리</p> <p>-인스턴트 식품, 음료수는 보내지 말아주세요.</p> <p>▶ 학부모 권장 도서 목록</p> <p>-엄마학교/서형숙/큰술 : 자녀 교육의 방향 제시</p> <p>-아이들은 놀기위해 세상에 온다/ 편해문/ 소나무 :놀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p> <p>-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효한 크리스토프 아놀 드/양철북: 이시대 흔들림 없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p> <p>-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모토 마사루/나무심는 사람</p> <p>@ 학교도서관, 담임선생님께 빌려 읽으셔도 됩니다.</p> </td> </tr> </table>			<p>▶ 담임 선생님은.....</p> <p>- 학생에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는 교사 2. 공평한 교사 3. 사랑으로 지도하는 교사 4. 항상 연구하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교사 5. 체험활동을 중시하는 교사 <p>-학부모에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생활을 안내하는 교사 2. 항상 대화 할 수 있는 교사 3. 부담스럽지 않은 친근한 교사 <p>-교사 자신에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옳은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사 2. 항상 연구하고 누구에게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교사 <p>▶ 학습 안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들은 1학년에서 문자 공부를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배운 달소리가 들 어가는 낱말을 찾는 활동을 집에서도 해 주시 면 보다 효과적으로 한글 익히기가 될 것입니 다. 2. 2007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공부가 진행됩니 다. <p>- 국어 :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p> <p>- 수학, 수학의힘책 : 1-100까지 수와 간단한 덧셈 과 뺄셈 / 입체도형/ 한 가지 기준으로 사물을 분류하기/ ‘ㄹ’ 를 사용하는 식</p> <p>- 즐거운 생활 / 바른 생활-생활의 길잡이 : 통합 교육과정으로 운영</p> <p>@ 개정 교육과정이 다소 어려워지고 산만한 부분이 있어 재구성하여 지도할 예정이고 아이들이 어 렷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알림장에 써서 보내주세요.</p>	<p>▶ 부모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임 선생님도움을 훌륭하다고 보아 주고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이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2. 체험학습 신청은 2일 전에 신청하고 다녀와서 결과서 쓰면 결석이 되지 않습니다. 3. 학생에게 문제가 있으면 항상 학교 담임과 의 논해 주세요.(문자, 전화, 메일로 가능함) 4. 급식은 4월부터 시작됩니다. (급식통은 어깨 에 둘러지고 물통과 수저통이 함께 들어 갈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 5. 아이들 학용품에서 필통은 소리나지 않고 게 임기가 없는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 6. 선생님, 친구들의 다양함을 특징으로 보시고 비교하지 마세요. 자녀 교육에 좋지 않습니다. 7. 학습 자료는 학교 학습 준비물실에 있습니다. 학습활동 한 것은 공책과 알림장을 참고하세요. 8. 매일 책읽기 숙제가 나갑니다. 습관이 되도록 지도해 주세요. <p>▶ 아이들 먹거리</p> <p>-인스턴트 식품, 음료수는 보내지 말아주세요.</p> <p>▶ 학부모 권장 도서 목록</p> <p>-엄마학교/서형숙/큰술 : 자녀 교육의 방향 제시</p> <p>-아이들은 놀기위해 세상에 온다/ 편해문/ 소나무 :놀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p> <p>-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효한 크리스토프 아놀 드/양철북: 이시대 흔들림 없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p> <p>-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모토 마사루/나무심는 사람</p> <p>@ 학교도서관, 담임선생님께 빌려 읽으셔도 됩니다.</p>
<p>▶ 담임 선생님은.....</p> <p>- 학생에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는 교사 2. 공평한 교사 3. 사랑으로 지도하는 교사 4. 항상 연구하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교사 5. 체험활동을 중시하는 교사 <p>-학부모에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생활을 안내하는 교사 2. 항상 대화 할 수 있는 교사 3. 부담스럽지 않은 친근한 교사 <p>-교사 자신에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옳은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사 2. 항상 연구하고 누구에게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교사 <p>▶ 학습 안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들은 1학년에서 문자 공부를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배운 달소리가 들 어가는 낱말을 찾는 활동을 집에서도 해 주시 면 보다 효과적으로 한글 익히기가 될 것입니 다. 2. 2007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공부가 진행됩니 다. <p>- 국어 :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p> <p>- 수학, 수학의힘책 : 1-100까지 수와 간단한 덧셈 과 뺄셈 / 입체도형/ 한 가지 기준으로 사물을 분류하기/ ‘ㄹ’ 를 사용하는 식</p> <p>- 즐거운 생활 / 바른 생활-생활의 길잡이 : 통합 교육과정으로 운영</p> <p>@ 개정 교육과정이 다소 어려워지고 산만한 부분이 있어 재구성하여 지도할 예정이고 아이들이 어 렷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알림장에 써서 보내주세요.</p>	<p>▶ 부모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임 선생님도움을 훌륭하다고 보아 주고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이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2. 체험학습 신청은 2일 전에 신청하고 다녀와서 결과서 쓰면 결석이 되지 않습니다. 3. 학생에게 문제가 있으면 항상 학교 담임과 의 논해 주세요.(문자, 전화, 메일로 가능함) 4. 급식은 4월부터 시작됩니다. (급식통은 어깨 에 둘러지고 물통과 수저통이 함께 들어 갈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 5. 아이들 학용품에서 필통은 소리나지 않고 게 임기가 없는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 6. 선생님, 친구들의 다양함을 특징으로 보시고 비교하지 마세요. 자녀 교육에 좋지 않습니다. 7. 학습 자료는 학교 학습 준비물실에 있습니다. 학습활동 한 것은 공책과 알림장을 참고하세요. 8. 매일 책읽기 숙제가 나갑니다. 습관이 되도록 지도해 주세요. <p>▶ 아이들 먹거리</p> <p>-인스턴트 식품, 음료수는 보내지 말아주세요.</p> <p>▶ 학부모 권장 도서 목록</p> <p>-엄마학교/서형숙/큰술 : 자녀 교육의 방향 제시</p> <p>-아이들은 놀기위해 세상에 온다/ 편해문/ 소나무 :놀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p> <p>-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효한 크리스토프 아놀 드/양철북: 이시대 흔들림 없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p> <p>-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모토 마사루/나무심는 사람</p> <p>@ 학교도서관, 담임선생님께 빌려 읽으셔도 됩니다.</p>			

<학급 누리집>

서울중곡초등학교

홈페이지 | 커뮤니티 | 학급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내 커뮤니티

더불어 아름다운 우리 (운영자 : 최혜영)
http://www.cg.es.kr/class/106/

최혜영님 (담당교사)
새특지 : 0 통

개인정보 공개여부수정

공지사항 | 주간계획서 | 수다방 | 사진방

운영자 메뉴

- 오늘 방문수 : 6 명
- 전체 방문수 : 1921 명
- 나의 방문수 : 52
- 사용용량 78MB / 100MB

더불어 아름다운 우리 > 공지사항

공지사항 |

제목 [] 검색

새글 [0]/전체 [20]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input type="checkbox"/>	20 6월 생일잔치 안내 [1]	최혜영	2010-06-19	32
<input type="checkbox"/>	19 공격적인 우리 아이, 어떻게 바꿀까(신문기사) [1]	최혜영	2010-06-15	12
<input type="checkbox"/>	18 학교육학부모회 강좌 안내 - 우리교육틀여다보기	최혜영	2010-06-11	10
<input type="checkbox"/>	17 아토피 숲체험 [4]	최혜영	2010-06-07	20
<input type="checkbox"/>	16 받아쓰기 경시대회 안내 [4]	최혜영	2010-05-18	54
<input type="checkbox"/>	15 1학기 수행평가 기준안 안내	최혜영	2010-05-12	46
<input type="checkbox"/>	14 초등 학년별 독서 지도법 [3]	최혜영	2010-05-12	35
<input type="checkbox"/>	13 좋은 책 권하는 단체 - 북스타드 코리아 [2]	최혜영	2010-05-11	33
<input type="checkbox"/>	12 경희대 자연사 박물관-블화기 어린이 교실 [2]	최혜영	2010-05-11	31
<input type="checkbox"/>	11 10란 쓰기 자료 [3]	최혜영	2010-05-09	33

더불어 아름다운 우리 > 사진방

사용권한 : 읽기/쓰기/삭제

사진방 | 우리 반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제목 [] 검색

글단위로 보기 | 새글 [0]/전체 [21]

2줄

 <p>최혜영</p> <p>받아쓰기 놀이[7] Date:2010,06,01</p>	 <p>최혜영</p> <p>5월 생일잔치[8] Date:2010,06,01</p>	 <p>최혜영</p> <p>중생-모래놀이...[4] Date:2010,05,26</p>	 <p>최혜영</p> <p>중생-모래놀이[7] Date:2010,05,26</p>
 <p>최혜영</p> <p>중생-쌀교놀이[5] Date:2010,05,25</p>	 <p>최혜영</p> <p>중생-가족놀이[11] Date:2010,05,19</p>	 <p>최혜영</p> <p>어린이날 기념...[8] Date:2010,05,19</p>	 <p>최혜영</p> <p>학부모 체육대...[7] Date:2010,05,12</p>

2) 개별 학생에 관련된 소통

가. 학생 상담

학생 개인에 관한 것은 수시로 생활지도와 학습지도를 학교에서 하고 있다.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학부모와 상담하지 않고 학교에서 해결하는 것이 많다. 이 방법이 학교에서 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다. 또 수업시간에 해결되지 못하는 과제는 가정학습이나 쉬는 시간에 보충 지도를 해서 학습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학생 스스로 자기 학습 방법이나 생활태도를 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자주 주고 문제가 되는 행동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이야기 하는 방법이 가장 흔하고 효과가 크다. 우선 학생과 교사가 신뢰가 회복되면 학생들이 솔직한 마음을 알 수 있어 가장 좋다.

나. 학부모 상담

학생 상담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나, 가정에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학부모 상담을 하게 된다. 상담하는 내용은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바른 지도를 위해 필수적이다. 요즘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시간을 정해 두고 하는 방식 보다는 비주기적으로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기 초 학생의 학습 준비와 학습 목표 정하는 것을 학부모와 함께 하고 학기말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통지표와 더불어 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3. 새로운 평가로 나아가기 위한 지원

1) 교육청

가. 학급당 학생수 축소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줄여 학생과 교사 모두 수업의 질이 높아지도록 한다.

나. 교사에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문처리와 같은 행정업무를 축소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감 시대에 여러 공약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도 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학생의 발달 단계를 연구하여 각 학교에 제공

교육과정은 학생의 발달 단계를 기초로 해서 편성되어 있지 않다. 시, 도 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연구된 학생 발달 단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학교 현장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 되도록 자료를 제공해 준다. 학교에서 학생 발달 단계를 연구한 자료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청은 네트워크를 통해 모아진 자료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학교에 제공해 준다.

라. 학생 평가에 대한 교사 연수

수행평가의 중요성을 교사에게 알려내고 일제식 시험으로 인한 서열화 보다 학생들의 장점을 살리는 평가가 되도록 교사들에게 알려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학교

가. 해당 학교 학생들의 발달 단계 연구

교육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로 지역 여건과 학교 여건에 맞는 발달 단계를 연구하여 학교에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안에서의 연구한 학생 발달 단계를 다시 교육청에 보내서 교육과정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나. 교사가 학습활동과 학생 관찰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 확보

교사가 학습 하나 하나 관찰하고 수업을 연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교사가 업무에 집중하느라 시간 있을 때 학생을 가르친다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교사 업무를 대폭 줄여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해 주어야 한다.

다. 다양한 교사-학부모 소통 방법 마련을 위한 분위기 조성

학급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소통 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강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획일적으로 몰아가서는 안되며 교사 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급에서 소통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3) 교사의 노력

가. 충분한 교재 연구

충분한 교재 연구를 통해 수업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을 한다.

나.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한 학습 안내 (다양한 방법)

교육의 주체가 교사-학생-학부모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의 학습 지도를 위해 노력하며 학습 한 것을 학부모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한다. 학부모, 여러 방법으로 소통된 것으로 교사는 수업시간에 반영하여 수업의 질은 높이도록 한다. 이것이 교사를 전문가로 바로 설 수 있는 길이다.

다. 학생 관찰을 통해 지속적 학부모 상담과 학부모와 교사와의 주기적인 소통의 장 만들기

교육은 교사-학생-학부모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진 학습 내용을 학부모와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공유해야 한다.

4. 대안 평가 양식

1) 대안학교 양식 예시안

가. 학습 목표와 학습내용

학습 목표와 학습내용은 수업을 진행한 교사마다 서술 방식이 다르나 대체로 학기별 학습 목표와 학생들과 함께한 학습 활동이나 내용을 일괄적으로 기술한다.

나. 평가

학생이 한 학기에 수업한 것 중에서 그 교과에서 변화된 주요 기능이나 특이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거나 관찰된 것을 서술한다. 또 종합란에 전체적인 평가를 서술하여 제공한다.

6학년 1반 이름: ***	
<p><학습목표 및 학습내용></p> <p>우리 겨레의 삶의 터전에서 선사시대부터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본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살아온 역사 속 인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내 삶의 변화를 두려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역사 공부를 통해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한다.</p>	
<p><평가> **는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이 우수하며 역사적 사건으로 토론과 토의 활동을 할 때 자기 입장과 근거를 들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사회 책을 읽고 선생님이 제시한 문제의 답을 스스로 찾아 정리할 수 있습니다.</p> <p>또 역사 관련 책을 가끔씩 읽고 있는데 방학에 좀 더 역사책을 읽으면 역사를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p>	

6학년 1반 이름: ***		
<p><학습목표 및 학습내용></p> <p>우리 겨레의 삶의 터전에서 선사시대부터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본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살아온 역사 속 인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내 삶의 변화를 두려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역사 공부를 통해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한다.</p>		
평가영역	평가내용	성취수준
인간과 시간1	선사 시대부터 대한민국까지의 역사를 통해 우리 겨레의 삶의 터전을 알 수 있다.	매우잘함
인간과 시간2	고려와 거란, 여진, 몽고와의 관계를 조사하고 각 나라의 입장을 생각하여 토론에 참여 할 수 있다.	잘함
인간과 공간	8.15 해방과 한국전쟁의 역사를 통해 우리 나라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	잘함

2) 일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평가 예시안

대안 평가 예시안은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교과는 단계형으로 표시하고 개인발달 사항에 종합의견을 기술할 때 교과를 통합하여 학생의 특징을 기술하고 한 학기 동안 관찰된 것을 종합하여 자세히 안내한다.

자세한 안내를 할 때 결과적인 서술, 단정적인 서술 보다 앞으로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과 아이수준에 맞는 성장을 고려한 다양한 실천 방법을 안내한다.

교과 학업 성취수준도 4단계, 3단계, P/F 형식 등 어떤 것이 그 학교 특성에 맞는 지 교사들의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가. 평가 예시안

<예시1>

	관찰의 척도를 보고 학생 생활 기술 (현재 2학년 학생)
준비성	**는 수업시간 전에 학습 준비를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 어린이로
상호 협력성	주변의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상냥하게 도와주는 어린이입
참여도	니다. 동·식물을 키우고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여 관찰일기를 쓸 수 있
자발성	으며 ‘나는 나는 ○○박사’ 활동에서 친구들에게 질문 만들 때 스
과제 해결력	스로 기쁨을 갖고 활동하는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이해력	친구에게 할 때와는 달리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가끔 고개를 숙
표현력	이며 부끄러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둠활동에서 의견이 다를 때
종합력	자신의 욕심을 줄이고 의견을 맞출려는 상호작용능력이 뛰어납니다. **가 자연을 벗 삼아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도록 산책, 등산등을 함 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시2>

	관찰의 척도를 보고 학생 생활 기술 (현재 2학년 학생)
준비성	**는 학교에 오면서부터 자신의 호기심을 맘껏 발휘하여 오감이 열
상호 협력성	려있는 친구입니다. 친구관계, 수업준비, 학습활동, 재량활동 등에 자
참여도	신의 재미있고 기발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자발성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활동결과가 미흡하게 나오기
과제 해결력	도 합니다. 프로젝트나 과제를 수행할 때 정해진 시간과 생각해야 하
이해력	는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주어 어린이가 자신의 다양한 생각을
표현력	적절히 나타낼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주어진 과제를 정해진 시간
종합력	안에 해결하는 것이 연습하면서 되는 일이거든요. 비가 오는 운동장을 맨발로 걷고 나서 그 느낌을 시로 나타내보기로 하였지만 **이는 발 가락의 자극이 너무나 재미있어 내내 웃느라 몇 줄 못쓰고 말았습니 다. 알림장을 스스로 확인하고 챙기는 습관이 필요하여 표시하면서 챙 기는 확인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일을 자신의 느낌을 살려 씩씩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학교에서 매우 자존감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름 방학 때는 계절에 따른 다양한 놀이를 하겠다고 기대하고 있습 니다. 부모님들 오감이 충만한 **이와 즐거운 여름을 보내세요.

나. 학년별 학생 발달 관찰 영역 예시

<1학년>

관찰영역	발달 관찰 기준
<p>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 수 	<p>-자기 몸의 감각을 살려 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정도</p> <p>-가위 종이를 오리는 정도</p> <p>-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정도</p> <p>-손 근육 조절 능력</p> <p>-몸의 균형을 잡고 좌우 조절 능력</p> <p>-때와 장소와 인원수에 맞게 목소리 조절하는 능력</p> <p>-친구들과 어울려 활동 할 수 있는 능력</p> <p>-모둠 활동에 함께 어울려 참여할 수 있는 능력</p> <p>-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잡는 방법</p> <p>-글씨 쓰는 자세</p> <p>-그림에서 사람의 형체 분화 정도</p> <p>-흥겹게 노래하고 율동에 참여하는 정도</p> <p>-역할극 놀이에서 필요한 말을 넣어 놀이에 참여하는 정도</p> <p>-놀이의 절차와 차례를 지켜 참여하는 정도</p> <p>-수업 준비를 하는 정도</p> <p>-생활 규칙을 알고 실천하는 정도</p> <p>-줄넘기를 하는 정도</p> <p>-곡선거리를 중심을 잡고 뛰는 정도</p> <p>-이동 중에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정도</p> <p>-색종이를 따라 접는 능력</p> <p>-음식을 먹는 모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 수 <p>-책을 소리내어 읽는 능력</p> <p>-겹받침이 있는 글자 읽는 정도</p> <p>-선생님의 질문을 듣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정도</p> <p>-제시된 글 속에서 선생님이 불러주는 낱말을 찾아 쓸 수 있는가?</p> <p>-필요한 것을 글로 표현하는 정도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1학기에는 완성되지 않음)</p> <p>-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읽어줄 때 집중하는 정도</p> <p>-책을 읽을 때, 시선이 같이 따라가며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는가?</p> <p>-입 안에서 웅얼대지 않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정도</p> <p>-기본적인 문장부호를 사용하는 능력 (온점, 반점, 느낌표, 물음표)</p> <p>-10진수 개념을 알고 100까지의 수를 셀 수 있는 능력</p> <p>-10진수 개념을 알고 100까지의 수를 쓰는 정도</p> <p>-10까지의 수를 구체물을 사용하여 가르고 모으는 정도</p> <p>-구체물과 손가락을 사용하는 능력</p> <p>-간단한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는 정도 (구체물, 수식으로 계산, 계산의 능숙도)</p> <p>-간단한 규칙을 이해하는 정도</p> <p>-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능력</p> <p>-시각을 읽는 정도(발달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p> <p>-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정도</p>

<2학년>

관찰영역	발달 관찰 기준
몸 • 언어 • 수	-몸에 대한 관찰 영역은 1학년과 크게 변동 없이 동일 -주변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 -동물과 식물에 관심을 갖는 정도 -낮과 밤의 차이를 인식하는 정도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참여하는 정도 -혼자서 그림 동화를 읽을 수 있는 능력 -소리나는 글자와 쓰는 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생각을 이유를 들어 말할 수 있는 능력 -경험한 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흥내내는 말의 느낌을 몸으로 표현하는 능력 -6하 원칙에 맞게 자신의 경험을 쓸 수 있나? -자연의 소리, 친구의 말에 관심이 많고 듣는(?) 감각이 살아있나?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상상하여 말하는 정도 -책을 읽거나 듣고 이야기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도 -자신의 생각을 일기글로 쓰는 정도
	-세 자리 덧셈과 뺄셈을 구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세 자리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는 능력 -간단한 규칙을 알고 규칙에 따라 뒤에 올 물건을 찾을 수 있는가? -수의 특징을 알고 뛰어세기를 할 수 있는 능력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능력 -쌓아진 나무를 보고 쌓기 나무로 똑같이 할 수 있는 능력 -곱셈의 원리를 알고 곱셈을 할 수 있는 능력 -사각형, 삼각형, 원의 모양의 특징을 알고 있는 능력 -길이를 어림하는 능력 -자를 사용하고 cm로 길이를 읽는 능력 -시각을 1분과 5분 단위로 읽을 수 있는 능력

계열 과목 평균	6897	6467	7447	6657	6860	7468	76
계열 과목석차	247	309	216	146	354	345	24
합산 평균 점수	652	582	713	815	524	507	75
합산 계열 과목 평균	7706	6599	7073	7095	6790	7122	80
계열 과목석차	324	271	178	98	309	346	26
합산 계열 과목석차 백분율	3	2	3	2	1	2	4
성취도	양	양	미	중	가	가	미
환산 점	2	4	6	4	4	1	6
수업 일수	출석 일수		결		병		석
			질		사		
성실하고 과묵하게 학업생활을 합니다. 많은 노력은 기쁜인수 윤희를 지루 배양시킨다.							

<3-4학년>

관찰영역	발달 관찰 기준
자기 이해 • 몸 • 언어 • 수 • 과학 • 예술성	-생활 계획을 자신의 생활 모습에 맞게 짜기 -자신이 세운 생활 계획과 약속을 실천하기 -사물과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는 정도 -학습에 대한 관심, 준비, 향상 정도 -자신에 대한 자존감 정도 -화제가 되고 있는 것에 관심 정도(사회, 학급) -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는 정도 - 협력적이고 공동체적인 활동과 사고 정도 -친구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기(짝 찾기, 서로 협응하기 등) -놀이의 활동을 이끄는 정도(규칙, 지속력, 분쟁해결 등)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빠뜨리지 않고 정리하기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정도 -달리기, 줄넘기, 공놀이에 대한 반응(관심, 재빠르기, 균형감 등) -발달하는 자신의 몸에 대한 민감성(성, 옷차림 등) -학급 일이나 친구들에 대한 관심 정도 -독서하는 정도(읽는 양, 관심 분야, 수준, 독후활동 등) -정확한 발음으로 글을 읽기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기 -어떤 상황(문제)이나 제안에 자신의 입장 정하기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유머나 재치 있는 말을 사용하는 정도 -글을 구성하는 정도(짜임, 내용, 어휘 등) -글의 여러 가지 형식 (시, 편지글, 설명글, 제안하는 글 , 이야기 등) -맥락을 찾는 정도(자연스러운 대화, 글 내용 파악 등) -낱말의 이해와 관심 정도(사전 이용, 새로운 낱말에 대한 반응, 대화 등) -시간의 흐름에 대한 생활개념(공부시간, 쉬는 시간, 날짜, 오전, 오후 등) -큰 수의 이해와 흥미 정도(생활 속에 쓰임, 대화에 사용하는 정도) -큰 수 읽는 능력 -도형과 사물과의 관계 (생활 물건에서 각과 형태 연결, 특징 등) -자, 각도기, 컴퍼스의 사용 기능 -혼합 계산의 순서를 알고 정확성하게 푸는가? -여러 가지 수의 형태 알기 (자연수(큰수), 분수, 소수) -수학 개념을 잘 이해하는 정도 -동물과 식물에 대한 감수성 정도 -생명을 기르고 관찰 탐구하는 모습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알고 생활 속에서 찾기 -생활 속에서 무게를 이용할 줄 알며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 사용하기 -환경 보전을 위한 작은 실천의 모습

일제고사에 대한 문화정치학적 논의의 필요성

성열관(경희대학교)

1. 들어가며

내가 읽고 토론해야 하는 두 원고는 한국의 학생평가 문제와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평가패러다임 대한 이론(손지희 선생님)과 구체적 실행 전략의 예시(홍순희 선생님)에 관한 것이다. 우선 손지희 선생님의 발표는 (1) 측정관과 평가관의 대비를 통해 기형적으로 발전되어온 일제식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 석차를 매개로한 계량주의적 학력관을 비판하고 있으며, (3) 성적에 의한 차별을 넘어 발달중심의 질적 평가 등 대안적 평가 방식을 5지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예외적인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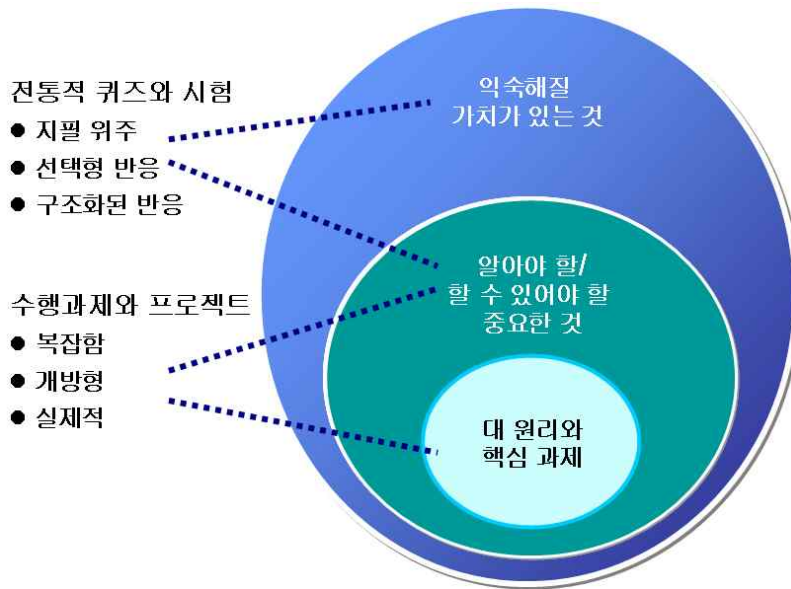
홍순희 선생님은 일제고사가 교육과정과 수업에 미치는 파행적 결과를 우려하면서, 수행평가와 수업을 연계하고, 이를 반영하는 통지표 작성 전략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현행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 검사를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동시에 선다형과 단답형 평가를 위주로 할 수 밖에 없는 일제고사에 대한 근거조항이 교묘히 공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2)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는 서열화를 가중시켜 학생들이 학습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3) 본래의 의도에 충실한 수행평가에 비해 단답형, 선다형 문제가 측정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얼마나 제한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4) 소통과 질적 관찰에 기초한

대안 통지 양식의 실례를 보여주었다.

대학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과목을 가르치는 토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두 발표자의 원고는 예비교사들에게 중요한 텍스트로서 활용하고 싶은 정도로 이론적 포괄성과 실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본다. 발표자들의 원고 맥락에서 토론자가 약간 더 추가하고 싶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2. 구성주의식으로 가르치고 행동주의식으로 평가하라?

시험의 한계는 평가도구의 한계에 기인한다. 그렇기에 평가도구를 양호하게 만드는 것은 시험의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고 의도된 중요한 것', 즉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객관식 도덕 시험으로 도덕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된 것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림 1> 지식의 위계에 따른 시험 유형(Wiggins & McTighe,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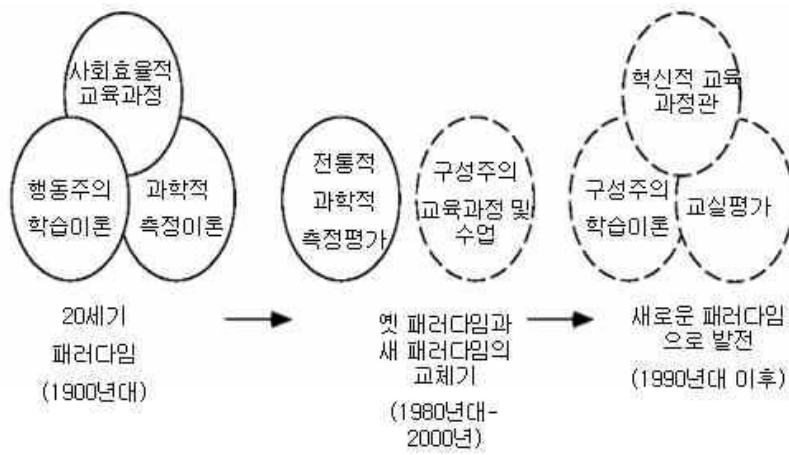
비록 손지희 선생님이 참평가(authentic assessment)의 의미가 다소 퇴색한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면이 있음을 지적하긴 하였지만 참평가는 그 원래의 의도가 잘 반영된다면 여전히 주목해야할 평가 관점이다. 이 관점을 지향하는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알아야할 중요한 것과 핵심 원리는 선다형 평가에 의해 측정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나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평가할 때 객관식 위주로 하고, 중요한 것일수록 참평가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증명은 홍순희 선생님이 이미 해주셨다). 그러나 일제식 학력평가는 그 특성상 지필위주의 객관식 시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OMR 카드에 응답해야 하는 시험은 복잡한 수행과제와 실제적('authentic'의 의미에서) 프로젝트와 호응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3. 일제고사가 있는데 참평가를 실시하라?

평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가도구를 잘 만들어야한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좋은 시험의 출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측정해야할 바람직한 성과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측정해야할 바람직한 교육성과를 선정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사항에 비해 용이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가치판단 활동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교육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가치판단하는 일은 평가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교수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선행 조건이 된다.

협동심, 민주적 마인드, 자기주도적 능력, 고등사고능력, 비판적 사고력, 추론능력 등 최근에 보다 더 바람직하고 여겨지는 구성주의적 교육성과, 배려와 같은 윤리적 교육성과, 심미성과 같은 예술적 교육성과, 감정이입과 공감 같은 정서적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좋은' 평가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행동주의적 일제식 평가는 이러한 교육목표를 재기에 한계가 크다. 발표자(손지희)가 언급한 '평가의 교육조형' 기능이 이와 관련된다. 시험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교육활동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제고사는 그 반대의 기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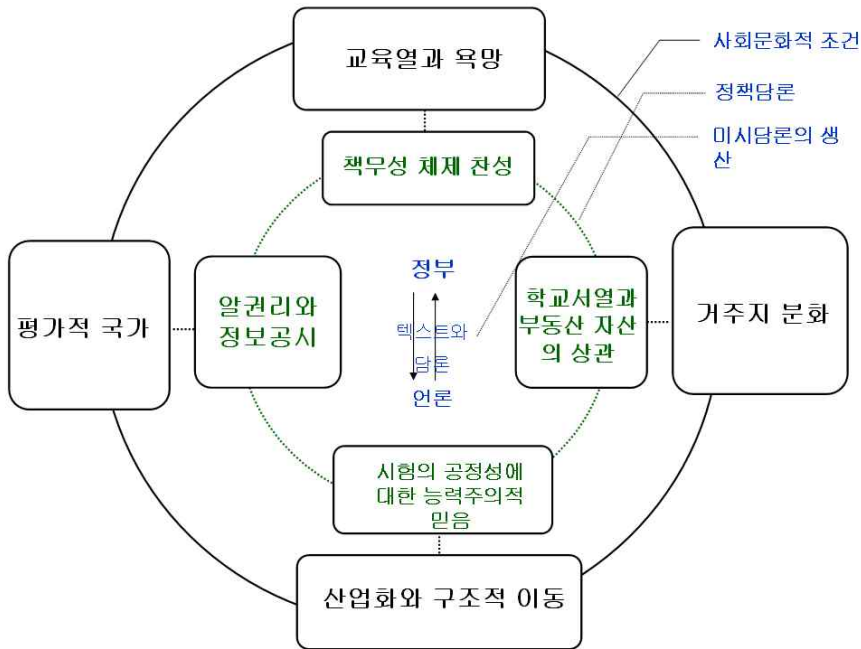
이 부분에 대한 실례는 이미 홍순희 선생님도 잘 설명해 주셨다. 학생중심의 진보주의나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따르면, 평가는 시험(test)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다음 그림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세 분야, 즉 교육과정, 학습이론, 평가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변천하여 왔는지, 그리고 최근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벤다이어그램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평가는 교육과정, 교수학습과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이 최근 교육학계의 동향이라 볼 수 있다.



<그림2>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패러다임 변천(Shepard, 2004)

우리나라에서도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이 소개되면서 제7차 교육과정과 수행평가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을 통해 현 교육과정 하에서 교사들(주로 초등)은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학습 주제와 관련한 실제적/진정한 과제(authentic task)를 제공하거나 실제적/진정한 행동(authentic activities)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의 흐름이 일부 있었다. 문제는 현재의 일제고사 시스템(학교내 + 학교외 부에서 오는)을 그대로 둔 채로는 어떤 바람직한 이론도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데 있다.

4. 일제고사 이슈가 교육평가(학)적인 문제인가?



[그림3] 일제고사의 담론 생산의 구조

일제고사 문제를 교육(평가)학적인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교육학적인 문제인 동시에 문화정치학적 연구대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일제고사는 정부가 그 기초를 외국(주로, 미국과 영국)에서 차용하고, 담론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배언론이 이를 재생산하는 구조 속에 놓여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책무성체제, 알권리와 정보공시,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 지역간 성적격차의 확인(외면적으로는 해소하겠다는 명분하에) 등 정책담론이 형성되어 왔다. 또한 그 기저에는 교육열과 학부모 욕망, 자본주의 체제의 심화에 따른 거주지분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구조적 이동,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흐름(평가적 국가관의 도입)이 있다. 그러므로 일제고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일제고사가 왜 나쁜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역시 일제고사 위주의 '일제식' 수업이 미래 시민인 학생들이 스스로 민주사회를 조

형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5. 정리하며

토론자는 이상에서 일제고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적어도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일제고사는 중간, 기말고사를 포함해서 석차(백분율, 등급)를 산출하는 정기고사를 포함해서 논의해야 한다. 정기고사형 일제고사와 국가형(일부는 교육청형) 일제고사를 구분하되, 이 모두를 일제고사 문제로 보아야만 한국에서의 평가문제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다.

(2) 정기고사형 일제고사와 관련한 논의를 수행함에 있어 그 대안을 도출하려면, (중등에서) 석차제도의 폐지가 그 답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별 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 발표자들이 어느 정도 지적하긴 하였으나 한국에서 석차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토론자의 입장에서는 폐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행 과정에서 전략적 선택으로 일본식으로(손지희 선생님의 발표에 따르면) 학교내 평가와 상급학교 입시와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장단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일제고사의 문화정치학적 논의가 보다 더 필요하다. 즉 일제고사 폐지와 석차제도 폐지의 문제는 교육평가 논의에 한정할 수 없으며 허위의식으로서의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학벌주의, 인권, 동아시아적 교육패러다임의 극복, 식민주의적 교육 잔재의 극복, 복지동맹의 강화 등 보다 거시적 안목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전인적 발달을 돕는 평가 사례

- 슬기로운 생활과 과학에서 “관찰”을 중심으로 -

정현주(초등교육과정 모임)

평가는 수업을 포함한 교육활동의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핵심적이며, 개별적인 과정이다. 학습자 활동의 어느 한 지점과 표현 이해 방식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일제고사(학업성취도)는 학습자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발달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수업에 친구들과 협력하는 모습,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수업활동 뿐 만 아니라 어제의 일이나 학교 오면서 보고 들은 것, 현재의 자신의 마음을 친구들과 아침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 친구들과의 놀이하는 모습, 하루를 준비해가는 모습들 모두가 관찰되어지는 장면들이다. 일상적이며 지속적인 교육활동의 평가는 크게 수업활동 평가와 수업 이외의 생활 평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평가가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 학습자의 수준을 측정하는데 수업활동에 의한 평가가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고 이 또한 단순한 지식중심으로 편중되며, 개별적인 지필평가(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포함)의 방식이 지나치게 우위에 서게 되어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전인적 발달을 왜곡시키는 평가의 방식-일제고사(학업성취도)-이 아닌 수업활동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까? 발달 중심의 질적이고 발달 가능성을 중시하는 평가, 집단적 관계와 과정, 관찰과 대면 중심의 지속적인 평가 그리고 소통을 위한 협력적인 평가여야 하고, 수업 활동과 이 외의 생활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교육활동의 틀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제약적이거나 실천되고 있는 사례들이 새로운 평가의 패러다임에 놓여져서 함께 시작되고 있다.

1. 수업활동-평가 사례

가. 분절이 아닌 주제 학습으로 : “소리”

1) 교과 내용과 재구성

2학년 1학기에 슬기로운 생활-대주제(살기 좋은 집)-(활동주제)집 주위 환경의 활동으로, 즐거운 생활-대주제(봄)-(활동주제)여러 가지 소리 표현에서 다루는 활동으로 각각 나누어 있는 것을 주제로 묶어 진행하였다.

2) 평가 기준

- 집, 학급, 동네에서 여러 가지 소리의 크기를 느끼고 그 특징을 발견하는가?
-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모습이 발견되는가?

3) 방법

- 활동 장소: 길 가, 교실, 집, 오고 가는 길, 숲 등
- 직접 듣기(예시1,3), 경험 떠올리기, 소리 내어보기, 영상자료로 보기(예시2,3)

4) 활동

가) 예시 자료 1 - 주위의 소리를 직접 관찰하기

■ 관찰하기 위한 준비는 이렇게 해요.

→집과 가까운 길로 나갑니다.

→차가 다니는 길가에서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합니다.

→왼쪽 방향에서부터 달려오는 차가 내 앞을 지나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여러 번)

→되도록 한 종류의 자동차, 버스, 트럭, 오토바이를 보며 소리 크기를 들어봅니다.

→관찰한 것을 활동지에 기록합니다.

■ 관찰 장소 _____

■ 관찰한 물체 (☞ 관찰한 곳에 ○표 하기, 2가지를 관찰하기)

일반 자동차, 버스, 구급차, 경찰차, 트럭, 오토바이, 자전거, 기타 ()

■ 관찰 횟수 (☞ 예-일반 자동차 5회, 오토바이 3회, 버스 3회)

① _____ ② _____

■ 관찰한 결과(소리를 선과 글로 나타내기)



()가(이) 가까이 오면 소리는 (커지고, 작아지고)
 멀어지면 소리는 (커집니다, 작아집니다.)

♣ 더 궁금한 것이나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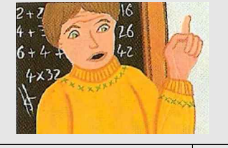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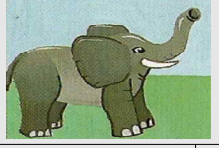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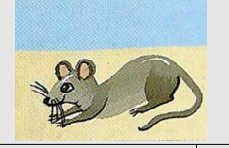
나) 예시 자료 2 - 자연의 소리

소리	소	참새	닭	비	천둥		
선(도형)으로 나타내기							
색으로 나타내기							

다) 예시 자료 3 - 소리의 크기 비교

주변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의 크기를 생각해 봅니다.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 여러분 표정은 어떤지 실감나게 표현해 보세요.

수업시간에 떨어뜨린 휴지	옆친구와 속삭이는 소리	친구와 수다떠는 소리	우리 반 전체가 떠드는 소리	선생님의 고향소리	폭풍우	비행기

소리의 종류			
소리 크기	(아주) 작다. 중간이다. (아주)크다.	(아주) 작다. 중간이다. (아주)크다.	(아주) 작다. 중간이다. (아주)크다.
소리의 종류			
소리 크기	(아주) 작다. 중간이다. (아주)크다.	(아주) 작다. 중간이다. (아주)크다.	(아주) 작다. 중간이다. (아주)크다.
소리의 종류			
소리 크기	(아주) 작다. 중간이다. (아주)크다.	(아주) 작다. 중간이다. (아주)크다.	(아주) 작다. 중간이다. (아주)크다.

나. 경쟁이 아닌 협력 학습으로 : “함께 사는 우리”

1) 교과 내용과 재구성

2학년 1학기에 슬기로운 생활과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에 통합된 한 단원으로 써 ‘함께 사는 우리’가 제시되어 있다. 통합의 주제를 살려 개별적이고 경쟁적인 학습이 아니라 모둠 또는 학급 전체가, 교사와 학생이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가고 공동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학습과정으로 진행하였다.

2) 평가 기준의 예

- 내가 살고 있는 마을, 특징적인 건물, 도로, 버스의 이름을 아는가?
-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마을을 둘러보며 조사 활동에 협력하는가?

- 심부름, 학교길, 놀이 등 생활 속에서 마을을 잘 이용하는가?
- 여러 사람들이 마을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느끼는가?

3) 방법

- 활동 장소 : 마을 전체(집, 도로, 공원, 산과 들, 상가, 공공기관 등)
 - 조사하기(부모님, 마을 사람, 책, 컴퓨터), 현장답사하기, 심부름하기
- *모둠 활동(대단위 학급 명예교사 계획하기)

4) 활동

가) 마을 조사 계획 세우기 (사전 활동)

모둠 정하기(역할 나누기) → 장소 정하기 → 준비물 및 사전 조사하기 → (명예교사 정하기)

나) 마을 조사 현장 답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관찰하고 조사하기

- 인터뷰하기, 안내와 설명 듣기, 사진 찍기, 시설물 이용해보기 등

(1) 마을길을 따라 동네 한바퀴

마을지도를 보면서 표시된 곳을 찾아갑니다. 찾은 장소의 이름을 순서대로 써보세요.

(2) 인터뷰를 해요

모둠에서 맡은 장소나 필요한 곳에서 활동합니다.

시작 할 땐 " 저는 서울초당초등학교 2학년 ○반 ○○○입니다. 우리 마을에 대해 궁금한 것을 여쭙어보아도 될까요?"

끝났을 땐 " 인터뷰에 대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 어떤 곳일까?

우리 모둠이 꼭 알아보아야 할 장소입니다. 어떤 곳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기록해봅시다. 친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소개할 곳입니다.

(4) 우리 마을 보물찾기

우리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마을에 많이 보이는 색과 모양, 가장 아름다운 곳,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봅시다.

(5) 행복하게 사는 마을

우리가 다니는 우리 마을의 이곳저곳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모습을 생각해봅니다.

-쉬거나 놀 수 있는 곳

-위험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곳

-내가 찾은 비밀의 장소 등

다) 마을 조사 발표하기(정리 활동)

발표 준비하기→ 모둠별로 돌아가며 조사한 것, 느낀 것 발표하기

다. 지식암기가 아닌 관찰탐구 학습으로 : “강낭콩 기르기”

1) 교과 내용과 재구성

4학년 1학기의 과학에서 생명 영역으로 ‘식물의 한살이’가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 자료나 영상 자료를 위주로 이해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획을 세워 강낭콩을 직접 기르며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는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2) 평가 기준의 예

- 생명체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가?
- 오감을 사용하여 식물(씨앗)의 특징을 찾는가?
- 강낭콩을 심어 가꾸는데 정성을 다하는가?
- 변화의 모습을 꾸준히 기록하는가?
- 자라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느끼는가?
- 식물이 자라는 조건을 협력적으로 실험하며 발견하는가?
- 식물의 한살이가 식물마다 다름을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가?

3) 방법

- 활동 장소: 교실, 집
- 직접 기르기, 책, 영상 자료에서 찾기, 기록물 서로 나누기 -보고서, 프로젝트

4) 활동

씨앗 관찰하기 → 관찰기록장 만들기 → 씨앗 심기(개인별) → 강낭콩 자람 관찰하기 → 보고서로 만들기

가) 강낭콩 씨앗 심기

시기	심은 날	학생 수	비고
1차	4월 9일	32명	1인당 3개의 씨앗을 화분에 심음 키우는 장소 교실 선택
2차	4월 16일	7명	싹이 트지 않아 다시 3개의 씨앗을 다시 나누어줌
3차	4월 21일	5명	줄기를 부러뜨리거나 관리 소홀, 더 심어보기를 희망함 3개의 씨앗 나누어줌
4차	5월 10일	7명	줄기가 꺾이거나 시들음 등의 관리소홀, 전입생 3개의 씨앗 나누어줌

나) 관찰기록장

◎강낭콩이 자라는 과정에 관찰제목 붙이기

1. 씨를 뿌렸어요
2. 싹이 났어요
3. 본잎이 탄생했어요
4. 본잎을 자세히 관찰해요
5. 강낭콩의 줄기를 자세히 관찰해요
6. 꽃이 탄생했어요
7. 키가 쑥쑥 컸어요
8. 꽃이 졌어요
9. 꼬투리가 보여요
10. 꼬투리 속에 뭐가 있을까요?

◎강낭콩의 자람, 무엇을 관찰할까요? -싹, 잎, 잎자루, 줄기, 꽃, 꼬투리 -

눈-자세히 보기, 손-만져
보기, 코-냄새 맡기, 자, 줄
자, 돋보기

관찰도구

1. 싹튼 모양
2. 강낭콩의 키 (줄기의 길이)
3. 잎의 개수와 크기
4. 줄기의 굵기
5. 가지의 수와 크기
6. 줄기와 잎의 색깔, 모양, 촉감
7. 꽃이 피는 위치
8. 꼬투리의 수와 크기
9. 이 밖에 더 관찰하고 싶은 것

다) 한 줄 명언(자란다는 것은~ 강낭콩은~)

- = 자란다는 것은 큰 행복이다.
- = 강낭콩은 신기하다.
- = 자란다는 것은 곧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다.
- = 강낭콩은 우리와 같은 생명이 있다.
- = 자란다는 것은 장한 일이다.
- =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과 같다.
- = 자란다는 것은 언젠가 죽는다.
- = 자란다는 것은 기르는 자의 정성이다.
- = 강낭콩은 나에게 자신의 자손을 베풀었다.
- = 자란다는 것은 인생의 출발점이다.
- = 자란다는 것은 까다롭지만 신비로울 수 밖에 없다.
- = 자란다는 것은 책을 읽어서 얻는 지식과 같다.
- = 자란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행복한 것이다.
- = 자란다는 것은 성장이자 큰 기쁨이다.
- = 자란다는 것은 행복이 자란다는 것과 같다.

※ 2010년 3월 9일(화) 교과학습 진단평가 문항(5학년)

*다음은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어떤 조건을 알아 보기 위한 것입니까?

< 실험 방법 >

- ㉠ 두 개의 강낭콩 화분을 창가에 둔다.
- ㉡ 한 화분만 검은 천으로 가린다.
- ㉢ 매일 같은 시각에 같은 양의 물을 준다.
- ㉣ 강낭콩의 변화를 관찰한다.

- ① 물 ② 공기 ③ 양분 ④ 햇빛

*다음은 강낭콩의 한살이입니다. 순서가 바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꽃이 핀다.
- ㉡ 싹이 튼다.
- ㉢ 새 잎이 난다.
- ㉣ 떡잎이 나온다.
- ㉤ 꼬투리가 생긴다.

- ① ㉡-㉢-㉣-㉤-㉠ ② ㉡-㉢-㉣-㉠-㉤
 ③ ㉡-㉣-㉢-㉤-㉠ ④ ㉡-㉣-㉢-㉠-㉤

라. 일회적이 아닌 프로젝트 학습으로 : “태양의 가족”

1) 교과 내용 및 재구성

5학년 2학기의 과학에서 우주영역인 “태양의 가족”을 과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학습이 아니라 실제 교실 안에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학습자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자기 주도적으로 태양계를 인지하고 탐구하려는 자세를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일정한 시간동안 꾸준히 집중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였다.

2) 평가 기준

- 호기심을 가지고 태양의 모양과 특징을 관찰하는가?
- 태양계의 행성의 특징과 크기들을 조사하여 알아내는가?
-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며 어렵하는가?
- 행성(또는 우주) 탐사의 발달 과정에 하는가?
- 자료를 이용하여 궁금한 것들을 잘 찾는가?
- 서로 협력하며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는가?

3) 방법

장소- 교실, 컴퓨터실, 도서실

사진이나 그림 등의 영상자료, 인터넷, 책(학교 도서실과 집에서 관련도서를 모음)

4) 활동

조사활동을 진행할 때 대부분 처음 부분만 안내해 주고 나중에 결과만 점검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로젝트 학습이 제대로 되려면 계획서 단계부터 중간 자료 수집 과정과 정리활동까지 학습자와 교사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세심하게 체크해야 한다.

가) 도입

아이들은 이미 책이나 박물관 체험, 영화 등을 통해 태양계와 행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첫 시간에 아이들과 태양계를 주제로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 나눈다. 그리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도 함께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간이 되면 우주와 관련된 영화를 짚막하게 보는 것도 좋겠다.

나) 주제 정하기

교사는 수업 주제를, 아이들은 조사탐구 주제를 정한다.

아이들이 개인별로 또는 모둠별로 주제를 정해 조사할 동안 교사는 교육과정에 나온 내용을 시수에 맞추어 어떻게 재구성해서 가르칠 것인가를 계획한다.

* 재구성 내용(예시)

- 태양계의 구성(태양과 행성, 위성..)
- 태양의 모양과 특징
- 태양과 행성의 크기/태양에서 행성까지의 거리 비교
- 행성(또는 우주) 탐사 발달 과정

아이들은 개인별 또는 모둠별로(좌석 모둠 또는 주제별로 희망하는 사람끼리 구성)2~3

주 정도 조사할 주제를 정한다. 이때 범위는 태양계로만 정해주고 세세한 것은 열어두는 게 좋다.

다) 수업 방법 안내

교사가 진행 할 수업 주제를 알려주고 수업과 조사활동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안내한다.(각 주제별로 20분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20분을 아동 활동으로 준다. 자료 검색이나 정리가 서툰 아이는 교사가 다니며 도와준다.)

조사활동 방법, 자료 찾는 방법, 교실에 준비할 것 등을 의논한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틈틈이 필요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 가정에 있는 관련 책을 수합하면 좋다.

라) 정리 방법 의논

개인별 보고서에 들어 갈 내용이나 모듈별로 역할을 나누어 조사할 내용 등을 의논한다. 텍스트에는 자료의 출처를 밝히도록 안내하고 사진이나 그림 등은 오려서 투명 폴더에 모아 두게 한다. 책이나 인터넷으로 찾은 자료는 포스트잇에 메모해 폴더에 함께 붙여둔다.

보고서 또는 차트 정리는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함께하는 게 좋다.

마)정리/발표 활동

정리에 필요한 물건은 가능한 학급에서 준비하고 개인이나 모듈별 준비물을 미리 챙기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보고서로 정리할 경우에는 컴퓨터 시간을 이용해도 좋고 다양한 형태의 워크북을 만들어도 좋다. 차트는 모듈별 학습에 이용하는데 모듈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제시해 주는 게 좋다.

개인별로 발표할 때는 미리 보고서를 확인하고 주제별로 몇 개씩 선정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 모듈별로 할 때는 코너학습(전람회식 구조)을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교실 곳곳에 차트를 붙이고 맨 처음 자리를 지정해준다. 모듈원이 한사람씩 돌아가며 내용을 설명하고 나머지는 다른 모듈의 설명을 듣는 방식이다.

바) 마무리

단원의 마무리는 간단한 빙고 게임이나 발표 과정에서 나온 문제로 즉흥 O×퀴즈를 진행하면 즐겁게 참여한다.

※ 참고 자료 예)

- 책 : 앓, 이렇게 재미있는 과학이! 시리즈 5번 <우주가 우왕 좌왕>(주니어김영사)
- 동영상 : 지식채널e 동·식물/자연 <천년만의 여행>(태양관련), <우주 탐험의 역사>(동물의 비행)

2. 학부모의 의견 “우리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는 방법들.”

<좌담회>

대상 : 서울○○초 3학년 학부모님 5명

일시 : 2010년 6월 30일 오후 1시 30분~ 2시 30분

가. 자녀의 발달 수준(학교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는가?

- 대부분 학업 평가는 평소에 교사가 수시로 진행하여 가정으로 보내어지는 수행 평가로 파악한다. 단, 학교생활 모습, 학급 전체 속에서의 행동이 어떤지가 더 궁금하다.
- 학업성취도 등 일제고사도 참고는 되지만 여러 가지 활동 결과물이 가정으로 전달되고 확인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도 아이를 진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 친구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한다. 친구들과의 관계, 예를 들어 인기투표나 우리 아이가 놀고 싶어 하는 아이인가 하는 점도 중요하게 여긴다.
- 무엇보다도 교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얻어지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신뢰가 된다.

나. 현재 학기말에 받고 있는 통지표의 양식이나 평가내용은 만족할 만한가?

- 통지표에 크게 중점을 두지 않는다. 판에 박힌 말과 몇 개의 범주(수준)로 나누어서 선택하여 입력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좋은 말만 써주려고 노력하신다는 말을 들었다.
- 아이의 개별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 아이에게 관찰되어지는 핵심적인 결과가 아니라 예시 글 자료가 있어서 “클릭!” 하는 통지표라고 알고 있다. 몇 명의 통지표만 모아보면 공통적인 서술의 평가를 찾게 된다.
- 교과평가 단계형은 최하의 성취기준인 ‘노력요함’이 있는지 정도만 파악하는 정도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4단계 평가에서 “매우 잘함”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고 등수를 매기기도 한다.
- 행동발달 종합의견은 꼼꼼히 읽는다. 통지표 양식에서 그래도 우리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서 가장 먼저 확인한다. 아쉬운 점은 2~3줄 밖에 기록되지 않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다.
- 부모가 측정하는 아이의 발달 지점과 통지 결과의 발달 수준이 다를 때가 있었다. 그래서 참고로만 여긴다.

다. 아이의 학교 생활- 발달의 모습을 학부모에게 어떻게 통지하거나 소통하면 좋다고 생각하는가?

- 가장 좋은 것은 교사와의 상담을 통한 것이라고 본다. 전화 상담을 포함하여 아이의 상태에 따라 수시로-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 글이나 단계로 이해할 수 없는 아이의 행동과 학업 수준을 상담할 때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 통지표에 서술로 자세히 써주셨으면 한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관찰되어서 전달되었으면 한다.
- 평소에 쓰는 알림장이나 학급 주간계획도 많은 참고가 된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나 시간적 제약을 있는 경우에는 이것들을 참고하여 학교 생활을 지원하고 아이의 발달을 도와 줄 수 있다.
- “너무 무리인가요?” 라는 물음이 있었다. 교사 입장에서 솔직하게 상담과 서술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어떤 점들이 문제인지를 궁금해 했다.
- 현재의 통지 방법이 최선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달라져야 한다고는 생각한다. 다만, 학급 인원수나 교육과정 내용, 수업 등이 교육활동 외 업무 부담 등에 대한 배려 없이 가중되는 상황이란 것 - 교사의 입장으로 답했다.

3. 나오며

현대의 새로운 평가관을 고민하며 교사로서 실천해야할 지점은 무엇일까?

첫째 현재의 평가 방식에 호응하지 않고 나름 둔감해지는 것이다. 학습자의 발달 정도를 교육활동 속에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면서도 수업 활동마다 ‘평가’를 강조하고, 평가를 위한 준비를 반복함으로써 학습자를 평가에 대해 더 예민하게 하고 긴장하게 만든다.

둘째 수업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으로 학습자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큰 틀을 보고 학습자의 상황이나 발달 단계에 맞게 재구성하여 교육활동을 이끄는 역할이 최우선인 것이다.

셋째 학습자를 중심에 두고 있는 학부모와 소통하는 것이다. 알림장, 학급홈페이지, 상담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교육 활동을 개방화시키고 학부모와 더불어 학습자를 성장시킨다는 관점에서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한다. 학습자의 학교 생활- 성적이나 행동-등이 일 년에 한 두 번의 통지 양식으로는 학부모의 기대만큼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교사 및 학교평가의 문제점과 대안

김태정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1. 교사평가의 현황과 문제점¹⁾

1) 경과

2010년 현재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동안 보수언론은 “한국의 교사들은 평가도 안 받으려 한다”고 참주선동을 해왔으나, 실상 이미 오래전부터 교사들은 평가를 받아왔다.

우선 근무평가라는 이름으로 관리자에 의한 교사 평가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2007년에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하여, 다면평가(동료교사)를 도입함과 동시에 승진시 반영 연수도 승진전의 10년간의 근무평가를 반영하도록 변경하였다.

다음 성과급평가가 진행 중이다. 성과급제는 2001년 김대중정부 때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교사들의 반발로 그 차등폭이 적었으나 이후 확대되어 2006년부터는 성과급 비중 및 차등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성과급은 업무(실적)에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그 항목은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개발 등으로 근무평가의 평가요소와 대동소이하다. 최근에는 단위학교별 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주제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이미 일정하게 진행중이었던 것이 전면화되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즉, 2005년 48개교가 시범학교로 지정된 후 꾸

1) 이하의 내용은 [교원평가비판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9.11.30) - 김태정 ‘교원평가 이대로 수용할 것인가?’와 [2010년 교육운동포럼 자료집] (2010.05.08) - 천보선 ‘2010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제와 현황’, 손지희 ‘교육학적 측면에서 본 교원능력개발평가’ 를 압축적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준히 확대되어 2008년에는 669개로, 2009년에는 1570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2010년 올해 법제화에 상관없이 교과부에 의해 전면 강행되고 있는 형국이다.

<표1>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및 진행경과

- 2000년, 교원노동유연화 정책인 '교직발전종합방안' 수립 시 '교원평가제' 도입 검토, 교직원단체 반발로 일단 보류. 중기 과제로 남겨 둠.
- "교원평가제도 개선" 정책연구('04. 8~'05. 2) :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 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시안) 발표(2005년 4월)
-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운영('05. 6. 24~11월)
-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
- ※ '05.11.17 :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48교 선정 → '06.1월 19교 추가 지정 (총 67교)
-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06.12.29)
- '07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506교 선정 및 운영('07.2~'08.2)
- '08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669교 선정 및 운영('08.2~'09.2)
- 교원평가관련조항 개정 초중등교육법 교육위 법안소위 계류 중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08. 5)
-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중점과제)로 선정·추진
- '09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1570교 선정 및 운영('09.2~'10.2)
-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관련 3개 법률안 의원발의('08.11)
- 안병만 교육부 장관, 법제화 여부와 관계없이 2010년 3월 전면 시행 선언('09. 7. 20)
- 전교조 교원평가제 도입 논의 6자협의체 참여 발표('09.8.29)
- '09 하반기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1,594개교 추가지정('09. 9. 22)
- 장관 정책 자문회의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10. 1. 14)
- ※ 시 도 자율의 교육규칙 제정을 통한 '10년 3월 전면 시행 방향 설정
- 2010년 2월 각 시도교육청별 규칙 제정, 교과부 시행 매뉴얼 배포
- 현재 각 시도별로 동일한 매뉴얼과 내용으로 전면 시행 중.

2) 교원평가의 실태와 문제점

그런데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이전의 근무평가는 물론 심지어는 이 제도의 도입의 근거로 소개 혹은 인용되어 온 외국의 그것과도 다른 특징을 갖는다. 즉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가시스템은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집단적으로 평가에 동원되어 교사를 점수화, 서열화하는 제도로 신자유주의가 전면화 된 영·미 등의 국가에서도 찾

아 볼 수 없는 매우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표2> 2005년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교과부 발제 내용중)

국가	평가대상	평가자	평가내용
일본	전교원	관리자(교장, 교감, 감독청)	교육활동전영역
미국	교사, 교장	관리자(교장, 위촉위원, 감독청)	교육활동전영역
캐나다	전교원	관리자(감독청)	교과전문성
독일	전교원	관리자(교장)	교과전문성
영국	교사, 교감	관리자(교장, 교감, 감독청 등)	교육활동전영역

현재 각 단위학교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런데 단위학교에서의 평가위원회는 대체로 교장 등 관료들에게 협조적인 학교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학교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학교가 거의 동일한 일정과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매뉴얼에 의하면 교원평가위원회구성에서부터 인프라구성, 홍보, 수업공개, 설문조사, 결과 통보 및 처리와 자기계획서 작성에까지 이르는 상당히 복잡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른바 평가자로 호명되어지는 해당자들에 특히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1-2회의 수업공개와 평가라는 매우 단순한 과정으로 현상된다. 아래에서는 이를 각 평가자별로 나누어 그 실태 및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1) 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가정통신문을 약 2-3회 발송하고, 약간의 학생대상으로 홍보(동영상 등)정도를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기 위한 준거로 제시받는 것은 공개수업이다. 학부모 공개수업의 횟수는 대체로 2-4회 정도이나, 대체로 연 2회의 경우가 많으며 보통 학기별 1회 정도 진행된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 및 일부언론들이 '교원평가를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해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실제 공개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참관 숫자도 있어 초등과 중등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① 초등

초등의 경우 오래전부터 공개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참여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교원평가가 전면 실시된 올해는 참관 학부모수가 약간 더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공개수업의 경우 전통적으로 저학년(1, 2학년)은 많은 학부모가 오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참여수가 적어지는데, 이는 취학초기에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가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심리상태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초등의 경우 수업참관은 주로 수업내용 자체 보다는 자녀의 학습활동과 급우와의 관계를 주로 관찰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교사를 평가한다는 의식은 상대적으로 희박한 것으로 보이며, “눈에 들어오는 건 아이의 모습”이라는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다. 한편 수업에 대한 참관록은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며 만족도 조사는 추후의 온라인 또는 설문 조사로 진행하고 있다.

② 중등

중등의 경우 수업참관에 대한 학부모 참여가 초등에 비해 확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대체로 학급당 겨우 수명의 학부모가 참관하며 고교의 경우는 수업참관 학부모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서울 동부지역 13개 중등학교 학부모 수업참여도를 조사한 결과의 경우 중학교는 대상 학부모의 5-25% 고교는 0.5-5.6%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같은 급별 내에서도 학교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는 지역특성도 일부 반영되겠지만 주로 학부모총회와 견할 때와 아닐 때의 차이가 더 주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학부모총회가 아닌 경우의 학부모 참여 수가 일반적인 수업참관 참여도라 할 수 있다.

③ 조사방식

초등 학부모의 경우 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 보건교사 등 5-6명, 중등의 경우 담임, 교과, 보건, 특수교사 등 15명 전후의 교사에 대해 8개-17개의 항목에 대해 척도 평가와 서술형평가를 하게 된다. 방식은 온라인 평가 또는 설문지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문항은 교과부 메뉴얼 예시안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전국의 모든 학교가 결국 동일한 평가 문항을 가지고 획일적인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문항의 세부 내용은 학교단위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가 구성할 수 있으나

세부 문항의 근거가 되는 평가지표(학습지도 12개 지표, 생활지도 6개 지표 등)가 고정되어 있다. 각 문항은 담임교사는 12개 지표, 교과담당교사는 8개 지표로 구성(초등은 담임 16개 문항, 교과 9개 문항, 중등은 담임 12개 문항, 교과 8개 문항)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초등의 경우 5-6명의 대상 교사에 대해 총 60-70여개, 중등의 경우 십 수 명의 교사에 대해 120-140여개의 문항에 대해 답해야 한다. 또 평가 문항 거의 대부분은 한 두 번의 수업참가의 관찰결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④ 문제점

교사를 학부모가 평가한다는 것 자체의 비교육적인 문제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평가를 위한 사전과정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최소한 평가기준에 대한 사전 공유와 파악이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관찰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에도 연동된다. 학부모의 참관 기회가 대개는 1회이며 많아야 2회이다. 이를 늘리는 것은 구조적 한계로 어려우며, 설사 그 횟수를 늘린다고 해도 평가 대상 교사의 수업 중 극히 일부만 가능하다. 또 그 수업이 일상적인 수업인지 특별한 것인지, 아니면 가공된 것 인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생활지도 영역의 경우엔 별도의 기회 설정 자체가 없다.

다음 학부모의 실제적인 참여 자체가 제한적이다. 중등이상의 경우 학부모의 수업 참관 참여도가 매우 낮다. 특히 고교의 경우에는 참관 학부모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학부모 참여의 부재 현상은 구조적인 것으로 학부모들이 대부분 생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조건에서 다수의 학부모가 수업참관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대부분의 학부모는 평가를 위한 유일한 판단 준거로 제시받는 수업참관 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용지를 받고는 점수를 매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수업참관도 하지 못한 채 담임, 교과, 보건, 특수교사 등 5-6명(초등)에서 15명(중등)전후의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교사들에 대해 60-140여개에 이르는 평가항목에 걸쳐 점수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설문작성을 포기하려 할 것이나 학교마다 학부모 참여 조직 50% 이상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평가를 강요받고 있다.

(2) 학생만족도 조사

학생만족도 조사의 경우 초등은 4-6학년을 대상으로 약 20여개의 평가문항이 들어 있는 만족도 조사지에 각 문항을 다시 5개 등급으로 체크하는 방식이며, 중등의 경우

<표3> 학부모 참관 수업 실제 사례

사례1> 서울 강동 H초 B교사

- 수업공개 횟수 : 연 4회(학부모공개 1,2학기 각 1회 / 동료공개 1,2학기 각 1회)
- 1학기 수업공개 때 학급 수업에 31명 중 20명 학부모 참가(4학년) : 예년보다 조금 늘었으며 학교 전체도 전에 비해 늘어남.
- 학부모에 '자녀수업참관록'을 작성하게 하고 담임교사가 받음

사례2> 서울 강서 K초 G교사

- 수업공개 횟수 - 연 4회(학부모공개 1,2학기 각 1회 / 동료공개 1,2학기 각 1회)
- 수업공개시 학급 수업에 32명 중 27명의 학부모가 참관(2학년). 전에 비해 조금 많아짐
- 학부모에 '자녀수업참관록'을 작성하게 하고 담임교사가 받음

사례3> 서울 동부 O중 G교사

- 수업공개 횟수 연 2회(한학기 1회)
- 1학기 수업 공개 : 학부모총회 겸함, 해당 수업 참관 학급 학부모 수 7명
- 참관록 없음

사례4> 서울 강서 Y중 G교사

- 수업공개 횟수 연 4회(3,6,9,12월)
- 3월 수업공개 : 학부모총회 겸함, 해당 수업 참관 학부모 수 9명, 학교 전체는 200명 정도
- 참관록 없음

사례5> 서울 북부 C고교 O교사

- 수업공개 연4회
- 1학기 수업공개 : 학부모총회 겸함, 해당 수업 참관 학부모 없음. 학교 전체도 거의 없다고 함
- 참관록 없음

사례6> 서울 동부 K고교 G교사

- 학부모 대상 수업공개 연2회
- 1학기 수업 공개 : 해당 학급 수업 참관 학부모 없음. 학교 전체 2명
- 참관록 없음

평가문항이 12개-15개정도이며 체크리스트 방식은 동일하다. 평가 문항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그동안 시범학교의 사례를 통해 나타는 것은 학생에 의한 교사평가가 교사에 대한 이미지, 인기 선호도 조사로 귀결될 가능성 높다는 위험성이다. 그동안의 조사결과 고연령교사, 학생부교사, 입시에서의 비주요과목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다. 심지어 일부의 경우 평가와 다른 요구들을 협상하려는 비교육적인 상황들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동료교원평가

교원상호간의 동료교원평가는 일반적으로 평가단구성 -> 수업공개 및 참관 -> 동료평가 진행의 순서로 진행된다. 평가단 구성에는 교장, 교감과 동료교원 3인 이상이 참여하며, 1, 2회의 수업공개를 거친 후 온라인 평가 진행된다.

동료평가를 위한 수업공개는 많은 경우 동료장학, 연구수업의 형태로 진행, 연2회 정도이다. 대부분의 경우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나 일부 학교에서는 통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업동영상 탑재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하기도 한다

동료평가 및 교원평가 자체에 대해 교사들 대부분은 비교육적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평가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대부분 소극적으로 임한다. 즉,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실천이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 특정한 기준들로 일률적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더욱이 점수화될 수 없다는 교육적 판단과 정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각자의 견해에 따라 서로를 평가하게 될 경우 최소한의 협력이 깨지고, 경쟁과 압박 속에서 동료 교원들끼리 점수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에는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때문에 수업공개 및 참관 과정과 평가를 별개로 바라보게 된다. 그 결과 대부분 수업공개 및 참관은 형식적으로 치루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서로 좋은 점수를 같이 주는 식의 담합의 형태가 나타난다.

현재 전교조와 일부 교사들은 평가대상이 되는 것, 학부모 대상 수업공개를 거부하지는 못하더라도 동료평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불참운동을 전개 중이다. 그러나 만일 동료평가가 전면화 된다면 그것은 교사상호간의 심각한 불신과 경쟁으로 교육문화 자체가 파괴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학교의 사례를 보면 동료평가는 일부 학교에서는 심각한 불신과 갈등을 표출되고 결국은 학업성취도나 진학을 같은 지표로 평가 기준이 형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관료의 선호도가 교사평가의 핵심이 되면서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교육청에서는 교장, 교감들에게 교사평가 점수의 변별력을 확보할 것을 내부적으로 지시하

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수교사와 하위교사의 분류는 대부분 교장 등 관료와의 인적 관계, 교육 외적 상황과 선호도에 의해 좌우된다. 많은 경우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학생인권에 대해 바른 말을 하는 교사가 관료의 선호도에서는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관료에 의한 평교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실제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일제교사 점수나 교장, 교감이 바라는 업무로 평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도 하다.

<표4>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목적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회복		
평가 대상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보건, 영양, 사서, 상담 등 비교과교사 포함, 기간제교사 포함) ※시·도 교육청 시행계획에 따라 일정 기준의 (전일제)강사 포함		
평가 종류/ 평가참여자	동료교원 평가	교장 또는 교감 중 1인 이상 + 교사 3인 이상		
	학생만족도조사	직접 지도를 받은 학생 → 개별교원 대상		
	학부모만족도조사	지도받는 학생의 학부모 → 개별교원 대상		
평가지기		매년 1회 이상 (학생·학부모 만족도 1학기말 권장, 동료교원평가 10월 말까지)		
평가시행 주체(주관)		단위학교장이 소속 교사에 대하여 실시 시·도교육감(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교장·교감에 대하여 실시		
평가 영역 · 요소 · 지표	교사	학습지도	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 등 평가 요소	교수·학습전략수 립 등 12개 지표
		생활지도	개인 생활지도, 사회 생활지도 ※비교과교사의 경우, 담당직무를 영역으로 '학생지원'을 평가요소로 함	가정연계지도 등 6개 지표
	교장·교감	학교경영	학교교육계획, 교내장학, 교원인사, 시설관리 및 예산운용 ※교감은 시설관리 및 예산운용 지표 제외	학교경영목표관 리 등 8개 지표
평가문항		평가지표당 각2~5문항으로 구성(※단위학교 선택 및 개발)		
평가방법		5점 척도 절대평가 방식과 서술형 응답식 병행		
결과 통보		교육감·학교장은 개별교원에게 평가지표별·평가종류별 환산 점 및 합산 점수를 통보 (※단위학교 전체 평가결과값은 학교 정보공시제를 통하여 공개)		
결과 활용		-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 자료 활용 - 우수 교원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 제공 - 미흡 교원에 대한 단계별 연수 부과		
평가관리기구		교육청 및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설치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		

3) 교원평가의 문제점

① 교육실천의 획일화와 교육주체들의 관계 왜곡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부모, 학생만족도와 동료평가 문항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이러한 ‘문항의 획일성’과 ‘점수화’는 결국 교육실천의 다양성이 폐기되고 획일화를 강요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학교현장은 입시위주 교육으로 엉망이 되어 버렸고, 심지어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은 학생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정도이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획일적 평가의 강요는 결국 교육의 질을 더욱 심각하게 후퇴시킬 것이다. 동시에 정부당국이 입만 열면 떠들어댄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나 ‘다양성의 추구’ 등을 그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평가는 우선 교사 사이에서 경쟁과 갈등을 구조화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며, 이는 다시 학생들 사이의 경쟁의 심화로 다시 전이될 것이다. 다음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이 바뀌지 않는 현실에서 교사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입시경쟁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간의 대립과 반목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학습권을 ‘소비자의 권리’로 협소하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일부 학부모들의 교사평가는 그 의도가 어떻던 결국에서는 국가권력의 ‘마름’이 되어 교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교육주체들은 평가의 뒷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② 교육공공성의 파괴

교원평가는 ‘교원의 질 제고’, ‘문제교사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 등등 각종의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국가차원의 공공부분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과거 공무원 퇴출의 핵심이 비용절감 논리이었듯, 교원평가 역시 인건비 축소를 통한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지출의 축소와 연동되어 있다. 즉, 총자본으로 기능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교원 인건비는 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2008년 교육재정 대비 65.5%)하는 투입 요소이며, 이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바로 교원평가제도이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과 부자감세정책으로 인한 예산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교육, 복지, 중소기업, 지역현안사업 등을 삭감하는 것과 연동된다. 결국 건설자본과 소수 부유층의 이익을 위해 교육이라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파괴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 중요하게 미래세대의 구성원들에게 교사들이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교원평가가 지배권력의 노동통제 수단일 것임은 이미 수없이 확인되고 있다. 이명박씨가 직접 “정부방침에 대항하고.. 길거리에 나오고 벽보 부치는 그런 공직자는 자격 없다”고 발언 한 것이나,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의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노동조합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를 수 없으며,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 표명도 못하게 하려는 것 등이 그것이다.

결국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통해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해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교사들을 퇴출시키고, 살아 남은자들은 일상적인 통제 틀로 묶어 체제순응적 인간을 양성하는 말단 하수인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사간의 경쟁은 다시 학생 상호간 경쟁의 심화로 확대되면서 종국에는 악무한적 경쟁심으로 무장된 인간들로 넘쳐나는 야만의 세상이 될 것이다.

2. 학교평가의 현황²⁾과 문제점

1) 경과

한국의 학교 평가는 해방 이후 중앙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학 중심 평가, 1980년대 후반에 전개된 한국교육개발원 주도의 학교 자체 평가, 그리고 1995년도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교의 교육 책무성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6년부터 도입된 학교 평가는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관할 초·중·등학교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국가 수준의 공통적인 학교 평가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0년 이후부터 2003년까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여 국가수준의 학교 평가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평가와 시·도 수준의 평가간의 중복성문제가 제기되면서, 2004년도부터는 국가 수준의 학교 평가와 시·도 교육청 수준의 학교 평가의 실시의 중복성을 피하고 기능의 이원화를 통해 학교 평가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기획, 연수,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하고 실제 학교 평가 실시하는 시·도 교육

2) 이하 내용은 [교육책무성 제고를 위한 학교 평가 및 지원 전략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9) 에 근거하였다.

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였다.

2006년부터는 국가 수준에서는 기본 계획 수립과 지원을 담당하고, 학교 평가의 실제 수행은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천을 거쳐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학교 평가는 국가 수준과 시.도교육 청에서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p><국가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학교 평가 방향과 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학교 평가 핵심인력 양성.학교교육의 수준을 진단하고 점검하기 위한 공통지표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수행.시.도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고유지표 개발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시.도교육청 주관 학교 평가 과정에 대한 국가수준의 모니터링 <p><시.도 교육청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도 교육청 자체 학교 평가 계획 수립.학교평가위원 연수 및 학교 평가 전문가 양성.국가 수준의 공통지표와 시.도 수준의 자체지표를 활용하여 학교 평가 실시.공통지표 평가결과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보고.평가 결과에 따른 행.재정 조치
--

2) 학교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1) 학교평가의 현황

① 평가의 목적

시도교육청별 학교 평가의 목적을 살펴보면, 단위학교의 교육적 책무성과 전문성 증진을 모든 시.도교육청이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우수 사례 발굴과 홍보, 보급을 통한 일반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 교원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는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고 있다.

② 평가의 내용

현행 학교 평가의 내용은 공통 지표와 시.별 자체지표에 반영되어 있다. 2009년 현

재 공통지표는, 학교교육계획, 교육과정 및 방법, 교육성과 관리, 학교경영 등 4개 영역의 14개 평가 지표이다

<표5> 14개 평가지표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교육목표가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2. 학교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3. 학생들의 특성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분석·활용하고 있는가? 4.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이 학교교육목표와 연계되어 있는가? 5. 학생의 학습능력과 특성에 맞게 교과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있는가? 6. 학교교육과정이 학생의 다양한 특기·적성개발 및 진로 성숙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되고 있는가? 7. 학생이 학교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8. 학생 및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만족하고 있는가? 9.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가 타당하고 신뢰롭게 이루어지고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10. 학교가 학교교육 활동(투입·과정결과) 및 자녀학교 생활(학습수준,적응도 등)을 학부모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11. 학교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 12. 학교가 변화와 개선을 위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13. 학교 구성원들이 전문적 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14. 학교가 지역사회와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
|---|

③ 평가척도 및 평정방식

평가자들은 다음의 평정 척도에 따라서 지표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지역 자체적으로 정한 등급 판단 기준에 따라 영역별 등급 혹은 전체 등급의 형태로 평정한다. 척도는 공통적으로 0점에서 4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7> 척도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0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다 1 관련 증거가 있기는 하나 매우 빈약하다 2 관련 증거가 다수 발견되나 매우 평이하다 3 학교내에서 서로 일반화하여 적용할 만큼 우수한 관련 증거가 많다 4 타 학교에 보급하여 일반화 할 만큼 모범적인 관련 증거가 많다. |
|---|

평정방식 즉 평가지표별로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공통지표 개발의 논리에 따르면,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시. 도

교육청에서는 평가 요소별로 점수를 평정한 후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지표별 총합평정 방식보다는 분석적 평정을 함으로써 평가자간 평가 결과의 일치 정도를 보다 높일 수 있으며 상이한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논의 과정에서 조정을 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학교 평가를 통하여 각 지표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지표별 점수 산정과 영역별 등급 평정, 전체 등급 평정은 평가단에 의해 지표별로 일정 수준을 합의하여 점수를 주는 형태로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결과가 평소에 이해하고 있는 학교의 수준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

평가 등급을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3등급으로 나누는 경우와 4등급으로 나누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3등급으로 나눌 경우에는 우수학교, 보통학교, 미흡학교 등으로 구분되며, 4등급으로 나눌 경우에는 최우수학교, 우수학교, 보통학교, 미흡학교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명칭에 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별로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한편 학교 평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설문조사와 면담이 있다. 대부분 교육청에서 만족도 조사 도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 보급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④ 결과활용과 보고

모든 시·도교육청은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행.재정상의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수학교로 평가된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로 홍보를 강화하며,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와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안은 자구노력비 지원, 포상.표창자료, 결과보고서 발간, 우수사례집 발간 등이다. 반면, 인사상의 자료로 활용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를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육기본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평가와 종합장학,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 중이다. 학교는 정해진 항목에 대하여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지역 사정에 따라 학교

평가 결과를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있다.

(2) 학교평가의 문제점

① '책무성'의 함정: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의 산물

그동안 정부 당국자 혹은 관변 연구자들이 학교평가의 준거로 들고 나온 개념은 이른바 '책무성'이다. 이에 따르면 책무성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고.설명.해명하는 행위, 즉 이행요구자가 이행당사자에게 수행기준과 권한을 부여하고 그것의 이행 여부와 결과를 평가하고, 이행당사자는 자신의 수행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설명. 해명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책무성을 강조하는 학교평가에 있어서 이행당사자인 학교는 이행요구자에 의해 역할 기대와 책무 내용을 전달받고, 이들에게 자신이 수행한 책무 내용의 결과 즉, 학교 교육활동의 결과와 학교에 대한 기대와 요구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설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책무성 개념은 교육을 하나의 상품(서비스)으로 설정하고 공급자인 학교와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간의 계약행위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요자이자 이행요구자(학생, 학부모)와 공급자이자 이행당사자(학교 및 교사)간의 경제적 행위로 학교교육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의 논리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공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적극적 정보 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를 가리켜 '평가적 국가'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는 초중등 영역만이 아니라 고등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하는데 여기서는 '수월성'의 논리가 보다 강조되기도 한다.³⁾

이 과정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를 개별

3) 자본과 국가는 대학을 수월성의 범주에 따라 비교 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차별화한다. 수월성은 주로 학생의 입학성적과 성적평점, 지방학생의 수, 졸업률, 교수와 학생의 비율, 도서관의 장서와 같은 양적 기준에 의해 측정된다. 또 대학은 표준화된 교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교수와 연구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한편, 연봉제나 계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한다. 이제 대학은 수월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평가대학으로 변형된다. 평가에 의한 대학구조조정은 제한된 자원을 차등적으로 배분하여 대학간의 위계를 강화한다. 국가의 재정지원이 일부 대학에 집중되어 엘리트 대학과 대중대학으로 계열화된다. 또 자본축적의 필요와 거리가 있는 학과들을 통폐합하면서 학과간의 계열화가 심화된다.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의 확대라는 미명하에 학부제를 도입하여 인기 없는 학과는 소멸시킨다. [대중교육 역사 이론 쟁점] 윤종희, 박상현 외 공감 (2005)

학교가 그리고 다시 개별학교의 교사에게로 책임이 이전되며, 교육행위는 이른바 계약 당사자간의 거래행위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② 학교평가는 곧 일제고사, 교원평가와 연결되어 있다

학교평가의 주된 목적이 '단위학교의 교육적 책무성과 전문성 증진'으로 설정되고 있으나, 실제 학교평가는 많은 한계에 직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판단의 준거가 주체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교육여건'을, 교육청 학교평가 업무 담당자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학업성취도를 포함한 '학교교육의 결과'를, 학교평가위원들은 '학교교육의 결과'를, 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육계획'을 가장 많이 선택하여 집단별로 학교의 책무이행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해 매우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방안은 통계적으로 산출가능한 통일적인 지표의 도입이다. 이에 대해 오래전부터 정부당국자나 관련 연구자들은 "학교 책무성 강화 학교평가 체제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해서 학교평가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2008년 일제고사가 부활되었다. 향후에는 성취도평가 결과가 학교평가에 전면 반영되며, 공개 대상, 범위, 수위를 확대, 높여가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발상과 논리는 교사에게도 적용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원평가제이다. 즉, 책무성과 전문성이라는 목적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기에 그것이 단위학교 수준에서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필요하고, 이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좌우하는 것은 가르치는 교사의 책무이므로 교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학생-교사평가의 3각 구도의 평가 시스템은 각각이 독립적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각 요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업성취도가 주요한 성과의 지표로서 평가기준이 되는 순간, 교사와 학교의 교육활동의 주안점은 '성적 올리기'가 된다. 이 지점에서 비교육적인 행태들이 발생하는 조건이 마련된다. 평가는 그 결과가 개개인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한 '통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학교-학생-교사평가의 3각 평가 시스템은 상호 평가하는 체제이므로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는 권력관계로 교육적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게 된다.

또한 교육기관과 교사, 학부모, 학생의 관심은 '성과산출'에 한정되어 단위학교에서

의 교육활동의 주안점이 획일화되고 평가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보일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는 활동은 최대한 배제되므로 다양한 교육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4)

③ 일방적인 국가행정의 산물

학교평가의 또 다른 문제점은 결국 국가권력이 주도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국가행정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일례로 현행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평가는 자체에서 자생적 필요에 의해 생긴 제도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의 부과된 정책이다.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문서들을 보면 학교평가의 목적으로 '학교교육의 책무성 및 전문성 증진, 학교 교육의 수준 및 질 관리, 단위학교 교육의 질 개선, 정책이 행사항 확인 및 점검,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다양한 목적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평가가 형식적인 행정행위로 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도입된 방안 또한 국가주의적 방식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기존의 시도차원의 학교평가가 시·도 시책중심으로 이루어져 국가수준의 공통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공통지표가 2005년 시범적용 과정을 거쳐 2006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시도에 적용되고 있다.5)

이러한 한계는 평가방법의 문제와도 연동된다. 권장하고 있는 평가방법은 자체평가와 방문평가를 병행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자체평가를 학교교육 계획서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으며 학교자체평가가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또한 방문평가의 경우에도 2시간에서부터 2일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크다.

평가방법의 문제점은 평가의 피상성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수 부여와 총점을 통한 서열 매기기 방식은 학교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고, 학교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평가의 근거는 대체로 관련된 기록이나 실적 서류와 같은 문서들이라는 것이다. 또 현장을 방문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 현장의 실천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에는 턱

4) [신자유주의 교육평가시스템의 반인간적, 반교육적 본질] 손지희 (2006)

5) 공통지표에서는 학교의 여건, 교육의 과정, 교육성과 관리라고 하는 학교교육의 전체 시스템을 평가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계획, 교육과정 및 방법, 교육성과 관리, 학교경영 등 4개 영역이 설정되어 있다. 4개 영역의 세부 내용은 학교교육목표 및 실천전략, 학생의 이해 노력,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수학습활동, 교육의 성과, 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 학교구성원의 리더십, 교직원들의 전문적 공동체 구축,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로 구성 되었다

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한다.6)

또 학교평가가 이루어진 결과는 재정적인 차등보상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외에 뚜렷하게 활용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교육개발원등의 각종 보고서에 의하면 평가를 받은 당사자 학교들에 대해 왜 그러한 평가 결과를 얻게 되었고 어떤 발전적 노력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더욱 살려 나가야 할지 후속적인 이해를 강구하고 조언을 주는 바는 거의 없다고 한다.

3. 교육과 평가

1) 평가는 너무도 당연한가?!

학생은 일제고사로, 교사는 교원평가로, 학교는 학교평가로 한국의 교육현실은 그야말로 평가 일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평가하면 떠오르는 것은 시험과 그 결과로서 점수이다. 그런데 교육과 평가는 어떤 관계일까? 특히 계량적인 측정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선 교육평가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보자.

우선 측정으로 보는 경우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교육평가는 “학생의 학습과 행동 및 여러 교육조건을 교육목적에 비추어 측정하고, 이에 대하여 내리는 가치적 판정”7)이다.

다음 인간이해를 위한 도구로 보는 정의이다. 여기서 교육평가는 “학습자의 행동

-
- 6) 현재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①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전달→ ② 자체 평가→ ③ 방문평가→ ④ 평가결과 공개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자체평가를 학교교육계획서로 대치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자체평가가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도 독립적인 자체평가팀을 구성하지 않고 전체 교직원이나 시·도교육청에서 제시한 평가 편람에 따라 학교방어 자료를 준비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학교자체 평가팀이 없기 때문에 외부평가팀과 자체평가팀 간의 대화와 토론이 일어나지 못하여 학교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평가과정에서 학교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많은 자료를 새로 만들어 비치하는 “평가 준비 작업”이 야기되고, 이는 학교에 큰 부담을 주며, 본래의 학교 모습 보다는 분식된(꾸며진) 학교를 평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평가시기가 대부분 후반부로 치우쳐져 있어서 평가결과 활용 및 평가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다.
- 7) “교육측정으로 얻어지는 수량적 결과를 교육목적에 비추어 해석하고, 이를 교육문제의 해결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평가는 객관적 측정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자료의 해석과 의미부여에 더 큰 중점을 두는 것으로, 교육측정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변화 및 학습과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 이용하여 교육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⁸⁾이 된다.

교육평가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다른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일 ‘교육’을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전달의 정도(혹은 습득의 정도)를 항상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동시에 이 관점에서 교육은 지식과 정보를 거래하는 일종의 상거래행위가 된다.

그 결과 구래의 교육주체들의 사회적 위치 또한 시장의 논리로 재편시킨다.

즉, 교육은 학부모들과 국가와의 일종의 계약관계로 설정된다. 국가는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교육을 위탁받고 그것을 개별학교에게 위임한다. 그리하여 학교와 교사는 공급자가 되고,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소비자)가 된다. 이제 국가의 역할은 학교와 교사가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는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학교와 교사는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습득되었는가를 일상적으로 측정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그 통제와 측정의 수단을 ‘평가’라고 부르며 대중들에게 ‘평가=시험’이라는 프레임을 주입시킨다. 그런데 시험은 곧 점수로 표현된다. 그 결과 우리들의 머릿속에서는 ‘평가= 시험 = 점수’로 이어지는 프레임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곧 자신과 동료들 시험 점수로 판단하게 한다. 실제로 ‘평가’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값을 헤아려 매김. 또는 그 값’ 또는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함. 또는 그 가치나 수준’을 의미한다. 이제 학교와 교사는 그 값을 매겨지는 존재가 되며, 학생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이렇듯 측정을 중심으로 보는 견해는 교육을 지식과 정보의 전달행위로 이해하는 관점과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교육이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인가? 또 계량적인 측정이 항상 가능하며, 그것은 필수적이며 불가항력적인 것인가?

8) “교육평가는 첫째, 인간의 현실성보다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둔다. 가능성을 부인하고 현실성에 집착할 때 인간을 심판·판단·범주화시키는 인간규정의 의식이 대두되며, 가능성에 더 의미를 부여할 때 인간이해의 평가개념이 성립된다. 교육평가의 목적은 행동증거를 수집하여 얻은 결과에 의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다음 단계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둘째, 평가자료와 대상과 시간은 무한하다. 학생이 남겨놓은 낙서 한 줄, 그림 한 장, 일기장 한 토막, 대화 한 마디가 모두 인간이해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흩어진 자료를 교육평가의 자료로 쓸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해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교사는 교과전문가이기 이전에 인간이해자여야 한다. 셋째, 계속적이고 종합적인 과정이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온라인

신자유주의적 견해가 지배적인 제도교육학조차도 교육평가에 있어서 계량화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듯이 우리는 교육과 계량적 평가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나아가 평가 자체에 대해서도 발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교육에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교육이 본질적으로 인간 발달을 돕기 위한 사회적 행위라는 점에서 지식과 정보의 전달은 부분적인 영역이 아닐 수 없다. 제도교육학에서 ‘교육평가’라는 개념을 쓸 때 그것을 ‘인간이 해를 위해를 위한 과정과 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즉 ‘교육을 도와주는 기능이지 구속하는 기능이 아님’을 강조해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는 ‘교육’의 사전적인 의미로 확인된다. 영어의 ‘education’, 독일어의 ‘Erziehung’, 프랑스어의 ‘education’은 다 같이 라틴어의 ‘educatio’에서 유래한 것으로 빼낸다는 의미와 끌어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인간의 내부적 능력을 개발시키고 미숙한 상태를 성숙한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물의 값을 매기는 것’으로 정의되는 평가라는 개념을 교육과 결합시키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교육이 인간의 발달을 돕는 총체적인 행위라고 할 때, 그것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주시하다시피 인간 개개인의 발달의 속도는 저마다 다르다. 또 인간의 본질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는 점에서 한 인간의 능력을 결정짓는 것은 그가 속한 집단 즉 사회 문화적 특질과 분리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중세봉건시대의 사람과 현대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이 같을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지적능력 또한 마찬가지로 다르다.

물론 교육이 사회적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구성원의 일정한 합의에 근거하여 일정한 도달 목표를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능력개발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판단 그리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편 등이 동원될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 교육이 교육자에 의한 일방적인 지식과 정보의 전달과정이 아니라 인간상호 간의 관계이며, 그 관계를 통한 인격의 형성과정이라는 점에서 교육자의 자기성찰은 물론 피교육자와 상호소통과 상호성찰 또한 필수적이다.¹⁰⁾

9) “교육평가는 교육에 대한 해석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교육평가가 해석의 지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교육평가의 계량화 경향은 한 개인의 단편적인 측면을 제공하게 된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평가는 인간에 대한 해석적 활동이다. 인간은 드러난 부분 활동에 대한 평가를 과학화한다는 것은 위험스러운 요소가 담겨져 있다” [교육평가에 대한 니체의 함의] 강창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

나아가 한 인격체의 성장과 발달이 학교라는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그(그녀)가 생활하는 지역 등 사회공동체의 특징을 반영하는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교육은 그 자체로 사회적인 성찰의 대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값을 매기는 평가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진단(診斷, diagnosis) 혹은 성찰(省察, introspection)이라는 개념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사의 교육행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더더욱 교육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평가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왜 교육을 측정하고 특히 계량화하여 비교하며 경쟁을 획책하려 하는가?

2) 경쟁과 평가 그리고 서열체제

학교교육에 경쟁과 평가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은 후기자본주의 특히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함께 쉼을 같이하였다. 이는 한국의 지배권력이 교육제도의 모델로 삼아온 미국의 사례를 들어도 충분히 확인된다.¹¹⁾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실업이 증가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경제위기속에서 노동자계급 내부에서 학력, 성, 인종 등에 따른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고,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자, 국가와 사회운동은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혁하는 대신에 교육제도 내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960년대까지 미국의 중등교육은 인문계열과 실업계열(공업, 상업, 농업)로 이원화되었는데, 이 계열은 실상 개인의 특성보다는 가족의 계급적 인종적 문화적 배경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즉 자본가계급의 자녀는 인문계열에 노동자계급의 자녀는 실업계열에 각각 과잉대표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중반부터는 기존의 형식적 계열을 폐지하고 학생들은 계열이 아닌 교과목을 선택하게

10) 교육을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전달과정이라고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평가만능주의 특히 반복적인 측정(시험)을 강요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의 전달 그 자체에도 효과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영어점수가 낮을 경우를 설정해보자. 그 원인이 문법적 기초가 부족한 것인지, 단어 암기량이 부족한 것인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학생 자신과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또 해당교과에 대한 이해 도달정도에서 취약지점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학습적인 지원(교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한국은 워낙 학급당 인원수가 많고 더욱이 획일적인 입시교육으로 상위권 학생 이상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인 측정은 그 학생에게 패배감만을 심어 줄 뿐이다.

11) 이하의 내용은 [현대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역사와 지식권의 제도화] 윤종희 (2010)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논문 에 근거하였다.

된다.

그러나 계열의 폐지와 교과 선택권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급 성 인종에 따른 분화는 심화되었다. 왜냐하면 직업주의의 원리가 교육제도를 규정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의 양(학점 수)이지 학습 지식의 질이 아니었다. 그 결과 학생의 교과 선택은 학술적 교과가 아니라 실용적 기술이나 생활교육에 집중되어, 반지성주의적 편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이 와중에 상위권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에 필요한 교과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결과 가족의 경제적, 인종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시 실질적 계열화가 내부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과거와 같이 실업계교육을 통해 숙련 반숙련 노동자를 육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중등교육은 사실상 상급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상위 10%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이 되고, 다수의 학생들은 학업능력이 저하하는 과소교육(undereducation)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컴퓨터, 우주 항공 산업, 영상산업 등 이른바 연구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중등교육에서의 과소교육은 국가와 자본에게 방관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특히 지식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지식기반경제이데올로기에 근거할 때 새로운 기술력에 걸 맞는 노동력의 공급은 관건적인 문제였다. 그런데 그 해소 방식은 바로 학교선택권을 도입하는 것이다.

즉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학업성취도와 대학진학율이 높다는 결과에 근거하여 공립학교를 사유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조세부담을 우려한 백인층의 저항으로 좌초되자, 다시 소유형태가 아닌 공립학교를 사립학교처럼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즉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학교의 소유형태가 아닌 경쟁시스템의 도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 경쟁시스템의 핵심에는 특성화학교, 학생선택권확대 등의 실험과 함께 영리법인의 학교운영, 교사를 전문직업인으로 재규정하는 동시에 교사평가제를 도입, 표준화된 졸업시험과 학교성적공개 그리고 학생성적에 근거한 학교재정지원이나 교사급여의 차별화 등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들은 결국 2001년 아동낙오금지법(NCLB:No Child Left Behind Act)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실행된다.

그런데 경쟁과 평가의 도입과 확장은 단지 중등교육과정에서 그치지 않으며 고등교육과정과도 연동되며 최종적으로는 지식과 정보의 상품화에 따른 학력서열체제와 맞물리게 된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 생산력발전에 따른 자본의 요구였다.

즉, 중등교육에서 계열화가 폐지된다는 것은 기술교육을 이제 고등교육 영역에서 담당하게 됨을 의미하는데 이는 산업구조의 변동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생산에서 점

점 기계화 전산화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과거 고등학교에서 담당한 직업훈련은 한계를 갖는다. 생산기술의 발달은 점점 특정한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는 직종들을 요구하고, 변화가 일어난다. 다양한 하위전문직들이 발전하고 그것은 과거의 종합교육으로 해소될 수 없으며 점차 중등 후 교육과정으로 이관된다. 그 결과 하위 전문직을 위한 교육과정이 대학내부로 제도화된다.

이처럼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고등교육 영역에서 이루어지면서 1980년대에 이르면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점차 확대된다. 고등교육이 상대적 고임금과 안전한 고용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면서 1980년대부터 대학은 양적으로 팽창¹²⁾하며, 동시에 그 교육비용의 부담이 공적부담에서 사적부담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는 다시 교육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그 결과 과거의 중등교육에서 나타났던 계급적 차별은 이제 대학에서 다시 이루어진다. 즉, '아비리리그'와 같은 명문사립대학과 명문주립대학과 같은 엘리트대학이 최상위에 있고, 그 밑으로 기타 주립대학, 초급대학, 통신대학으로 위계화 된다. 그리고 이 위계화는 소득수준과 연동된다. 즉 저소득층은 소득은 감소하고 교육비는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고등교육에 접근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¹³⁾

이상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육에서 경쟁과 평가의 도입 그리고 교육제도의 변천과정은 철저히 자본주의의 변화과정에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산의 기계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생산의 기술적 토대가 노동자의 숙련에서 기계로 이전되면서 숙련노동자 대신 규율된 반(半)숙련노동자가 중요해 짐을 의미한다. 즉, 생산의 핵심적인 기술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와 거대한 기업조직을 경영하는 관리자 등과 같은 노동자계층이 등장한 것이다. 바로 이들 새로운 노동력을 길러내기 위한 자본의 필요가 교육에 경쟁과 평가를 전면화하고, 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지던 직업교육을 고등교육으로 이전시키고 이는 대학을 대중화하고 고등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동인이 되었다.

12) 즉 1970년대 초반 대불황이 시작되고 1980년대 들어와 신보수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긴축정책으로 일시적으로 대학팽창이 정체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 다시 확대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미국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OECD 국가에서 25-34세의 연령층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구의 비율은 1990년 20%에서 2001년 30%로 증가하였다. 주요 각국을 살펴보면 미국은 1991년 30%에서 2001년 39%로, 영국은 19%에서 29%로, 프랑스는 20%에서 34%로, 캐나다는 32%에서 51%로 그리고 한국은 1995년 29%에서 2001년 40%로 증가하였다.

13) 미국의 최상위 146개 대학학생(전체 대학생 약 10%) 중 74%가 소득 4분위 중 최상위 계층 가족에 속한다. 반면 최하위 계층 출신은 단 3%에 불과하다. 반면 지방전문대학은 최하위층비율이 학생비율의 21%로 최상위층비율 22%와 유사하다.

이렇게 대학교육과정을 이수한 노동자집단의 탄생은 바로 자본의 필요의 결과였으며, 이들에게 일은 일종의 재산권과 같은 것이다. 이들은 과학 기술 혁명 즉 자동화의 결과로 창출된 지식노동자들이자 전문기능공들로, 자동화의 결과로 생산 활동 즉 제조의 중심은 과거의 육체노동자로부터 이들 지식노동자들로 넘어갔다. 이들 전문기능공들은 높은 수준의 숙련과 동시에 똑같이 높은 수준의 지식과 더불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고도의 능력을 요구받게 되었다.¹⁴⁾

그런데 고등교육의 양적팽창 그 자체는 오히려 지식에 대학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자녀들은 계층상승을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그 결과 교육연한은 더욱 늘어난다. 이를 통해 자본과 국가는 대중의 계층상승의 열망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동시에 이 과정은 학력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체계가 구조화되면서 노동자계급이 분화됨을 의미한다. 즉 이들 새로운 노동자계층은 대학이라는 고등교육을 통해 육성되고 이들은 육체노동자들보다 고임금을 받기 때문에, 중등이상의 학교교육은 개인적인 계층상승의 통로로 인식된다. 그리고 노동자의 지위와 임금은 더 이상 '숙련'이 아닌 '학력'에 의해 규정되게 되면서 노동자 내부에 새로운 위계가 형성된다.

그런데 지식과 정보의 접근에 대한 권한은 모두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즉 접근 권한을 차등적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이는 대학과 학문의 위계서열화로 나타난다. 즉, 지배계급은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배와 피지배의 사회적 관계를 공고화 하려하며 이를 위해 대학서열체제 등 각종의 진입장벽을 설치한다.¹⁵⁾

한편 대학서열체제는 학력에 따른 임금과 사회적 지위의 격차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차등적 보상체제는 모든 노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임에도 학력에 따라 각각의 노동에 위계를 설정하고, 정신노동이 육체노동보다 우위의 것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피지배계급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그리고 그 서열체제를 이제 중등과정으로까지 확대하려는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귀족학교인 자율형사립고와 학교선택제 등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일제고사,

14) [‘지식기반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노동 그리고 정치] 최형익 『진보평론 5호』 (2000)

15) 예를 들어 노동자 직종으로 분류되는 1차산업 종사자와 기능종사자 및 운전원, 단순노무직의 경우 자녀들의 대학수준이 중위권과 중하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화이트칼라 노동자로 표현되는 사무직도 다르지 않다. 반면 고급직종인 관리직과 전문직 등은 최상위권과 중상위권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자녀들간에 대학수준에서 차이가 확연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진입장벽은 법 제도적 제한뿐만 아니라 개인수준에서 가치관의 내면화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종래 [대학서열체제와 대학교육] 이종래 『대학서열체제연구: 진단과 대안』 (2004)

교원평가, 학교평가 등은 필수적인 장치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교육에서 경쟁과 평가를 전면화하고자 하는 주체는 자본과 국가권력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상품화하고 지식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차단하여 자신의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자본의 이해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지식과 정보는 사유화가 가능한 것인가?

3) 평가와 서열체제! 지식과 정보를 사유화하기 위한 장치

주지하다시피 모든 지식과 정보는 인류공동의 것으로 그것의 생산, 가공, 유통의 전 과정이 사회 역사적인 산물이다. 지식의 발전이라는 것은 그것이 늘 획득되고, 분배되며, 접근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하여 지식이 사적인 아닌 사회적으로 축적되고 저장된 지식들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 또 이러한 지식들을 영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전승(교육)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가? 일찍이 맑스가 말했듯이 모든 지식은 “(인류의) 연합된 지성”이 아닌가?¹⁶⁾

그럼에도 자본과 그 이데올로그들은 지식 특히 인류가 함께 만든 지식을 사유화하고자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신자유주의자들은 ‘인적자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교육은 인적자본에 대한 일종의 투자행위’가 된다. 그러나 개인의 교육 즉 ‘나의 인적자본’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허구적이다. 교육은 분업화된 사회에서 다른 모든 사람의 교육 없이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누군가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운 지식이다. 모든 사람이 교사이자 동시에 학생이다. 이 때문에 교육과 지식은 본질적으로 아주 탁월한 공적재산이다.¹⁷⁾

이렇게 지식이 공적인 것임에도 이를 사적으로 독점하여 이윤을 만드는 생산수단으로 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일정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교육은 완전한 상품으로 기능하는데 근원적인 어려움을 가지 때문에 다른 보완장치가 요구된다. 즉, 교육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그 사용가치가 구매와 함께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교육을 지식과 정보의 거래행위로 설정할 경우 구매비용은 선지불 되는 구조이지만 그 구매효과 즉 사용가치는 사후적으로만 확인된다.¹⁸⁾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에게 그 지불비용에 걸

16) [일반지성과 대중의 지식] 볼프강 프리츠 하우 『진보평론 28호』 (2006)

17) 『자본주의의 종말』 엘마 알트파터 (2005)

맞는 일종의 보증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학교간 학문간 서열체제이다. 그리고 학력서열체제에 근거한 차등적 보상시스템은 고등교육을 정점으로 최근에는 중등교육을 서열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서열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측정 가능한 수량적인 지표, 혹은 통계산출이 가능한 자료들인데, 일제고사와 같은 장치들이야 말로 최상의 것이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인간의 발달을 돕는 교육의 본질은 사라지고, 오로지 학력을 획득하기 위한 구매행위만 남게 된다.

결국 현재 진행되는 학생평가, 교사평가, 학교평가는 이렇게 학력에 따른 서열체제를 통해 대중의 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차단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식과 정보를 상품화하여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본과 지배권력의 욕망이 빚어낸 산물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진행되는 일제고사,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등등 각종의 평가시스템은 인간의 발달을 돕는 사회적 행위인 교육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4. 신자유주의 평가를 넘어 민주적 소통과 진단활동으로!

1) 학부모와 학생이 진정 원하는 것은 평가가 아닌 참여와 소통이다.

한국사회에서는 평가와 관련하여서 하나의 통념이 있는데 그것은 평가를 당사자들도 원하고 국민들 다수도 원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교원평가와 관련한 각종의 설문조사 결과 이다.¹⁹⁾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를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가? 심지어는 이런 조사결과를 두고 국민들 다수가 전교조나 교육운동단체가 요구해온 ‘교육공공성 강화’ 보다는 ‘교육경쟁력 강화’를 더 원하는 결과라는 식의

18) [교육운동의 전략을 재구성하자!] 김태정 (2009)

19) 2009년 교과부는 3월12~17일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초중고 교원 500명과 19세 이상 성인 남녀 513명 등 1013명을 대상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평가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일반국민은 76.3%에 이르렀다고 한다. 반면 교원의 찬성비율은 63%에 그쳐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의견 또한 일반국민이 15.2%인데 비해 교원은 35.5%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일주일간 16개 시도 학부모, 교원 2600명씩 총 5200명을 대상으로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86.4%, 교원의 69.2%(교장 교감 87.2%, 일반교사 64.4%)가 도입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2009년 3월 여론조사 때보다 학부모는 10.1%p, 교원은 6.2%p 찬성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해석을 내 놓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조사통계에 대한 신뢰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평가 특히 교사평가의 경우 일부 학부모단체들이 교사평가를 요구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 학생의 경우도 대부분은 암묵적으로 교사평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진정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를 평가하길 원하는 것인가?

① 학생

만일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평가에 동조 한다면 그것은 왜인가?

그것은 교사와 학생과의 억압적이고 위계적인 권력관계에서 비롯된다. 필자와 같은 세대에게 학교에 대한 기억은 반복되는 무의미한 시험과 교사의 폭력(실로 야만적인 폭력 그 자체)이었던 것처럼, 한국사회에서 교사의 역할은 '스승'이라는 미사여구를 아무리 그 앞에 갖다 붙여도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교사는 그저 국가권력의 말단 하수인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즉, 학생집단에게 교사집단은 관리자이자 억압자로 그 자체로 원한의 대상이다.

비록 전교조와 같은 집단이 있지만 아직도 교사들 대부분은 국가 권력의 명령(국가시책)에 맞춰 충실하게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위에 군림하려 하며, 그 스스로 입시경쟁의 조련자로 학생을 통제하고 있다.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고 아직도 학생에 대한 폭언과 체벌이 존재하는 이 야만적인 상황은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억압하는 인격체인 교사에 대한 분노로 귀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지 모른다.

그런데 한국의 교사들이 특히 학생들에게 억압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그 개인의 '인성적 결함' 보다는 입시경쟁구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입시경쟁 구조 하에서 교사는 성적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학생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으며 학년이 올라갈 수록 그 양상은 더욱 심각해진다. 그러나 이 구조를 핑계로 학생에게 억압적인 교사의 태도를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때문에 교사집단이 교사평가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것으로 자신의 실천을 제한하거나, 심지어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수용하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조금이라도 상식을 가진 교사라면 입시경쟁교육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중국에서는 대학서열체제에 근거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집단은 더 이상 교사평가 반대만을 외롭게 외칠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구조를 개혁하는 실천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교사

의 실천이지, 아직도 교사집단이 구태의연하게 “감히 학생(놈)이 날 평가해” 라는 식의 발상을 한다면 그것은 고립을 더욱 자초할 것이다.

나아가 더욱 중요하게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실천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전교조서울지부 등 교사집단이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며, 여전히 학생들에게 억압적인 교사집단의 잘못된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불쌍한 학생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돕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이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인격적 상호관계라고 할 때, 피교육자의 인권은 곧 교육자의 인권이다. 즉 학생들은 억압당하는 데 교사의 인권이 보장될 수 없는 일이다. 역으로 교사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학생들의 인권도 근본적으로 제한적이다. 실제로 교사는 학생에 대해 일정한 권력을 가지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교사들의 권리는 매우 열악하기 그지없다. 현재 한국의 교사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도 억압당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학생인권의 개선은 곧 교사인권의 개선으로, 교육현장의 진정한 민주화로 연결될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교육실천의 다양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교사들을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인격체로 존중받고자 하는 것이고, 교사와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교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의 주체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사집단은 학생인권보장과 함께 학생회를 법제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려는 학생들의 실천에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② 학부모

학부모들이 교사평가 혹은 학교평가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다양한 동기 때문이다.

우선 초등의 경우 부모들은 교사가 자신의 자녀에게 보이는 태도가 주된 관심사이다. 만일 해당 교사가 자신의 자녀에게 억압적이라면 이 경우는 학생들이 교원평가를 묵인하는 것과 같은 심리가 작동된다. 즉 “괘씸한 교사를 혼내주려는” 도구로 교원평가가 눈에 들어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결과적으로 교사와 학부모, 나아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으며, 그 효과도 실상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대부분의 상식적인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소통 대신 학부모들에게 교사를 상품 품평하듯 점수를 매기는 야만적 행동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 중등 이상으로 자녀의 학년이 올라가면 다른 동기가 부여된다. 매우 불행히도 이 단계에서는 입시경쟁교육의 효과가 발휘된다. 즉 즉 학교와 교사가 입시경쟁을 잘 시키고 있는가가 주된 관심으로 변질된다. 여기서는 “입시교육에 유능한가 무능한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학부모들 대부분은 알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자녀가 상위권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학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의해 행동양식이 달라진다. 상위층은 학교와 교사에 기대하거나 불필요한 마찰을 만드는 대신 적절하게 내신을 유지하면서 별도로 사교육비를 들여서 해결하려 든다. 학교 또한 입시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중상위권 이상 성적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그 결과 다수의 학생들은 학교생활은 자신에게 의미 없고 무료하며 심지어 억압적인 공간으로 비춰진다. 이렇게 학교교육은 공동화된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결국 문제는 경제적으로 중하위층이다. 이들의 경우는 상위층처럼 사교육비 지불능력이 없기에 상대적으로 학교교육에 기대게 되며, 심지어는 “아이를 때려도 좋으니 성적을 올려달라”는 요구도 발생한다. 역대 정권은 바로 이것을 활용한 것이다. 즉,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구조로 발생하는 공교육의 공동화 현상과 대학서열체제에 진입할 수 없는 대중의 불만을 바로 교사에게 이전시킬 수 있게 된다. 이제 학부모들은 교사들을 원망하고 심지어 저주한다. 정규직 이기주의, 평가도 안 받는 교사, 철밥통 지키기 등등 보수언론의 과상공세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은 존재할 수 없으며, 오직 마녀사냥식의 광기어린 분노만 남는다. 결국 여기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평가가 아니다. 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대학서열체제로 인해 자신들의 자녀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평가와 관련하여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른바 ‘문제교사’ 혹은 ‘부적격교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교사평가를 찬성한 일부 학부모단체는 바로 ‘문제교사’ 해결을 위해서는 평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평가를 통해 교사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당국의 주장에 동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사평가와 문제교사의 해결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문제교사는 대부분 임용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한국은 매우 불행히도 교사의 양성과정 자체가 그 전문성과 교사로서의 품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주입식 교육과정과 교원임용고사라는 획일적인 시험결과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또 고등학교의 약 46% 정도가 사립인 상황에서 사립교원의 임용과정에서는 사립재단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교사가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사립고를 나온 필자의 학창시절 경험에 근거하면 폭력을 일삼는 교사들은 대부분 그러한 친분관계로 교단에 들어온 자들이었고, 그 자들은 문제를 일으

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대안은 교원양성과 임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임용이후에도 교사가 지식전달자가 아닌 인간이해자로 그 전문성을 담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 교사가 일방적인 권력자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와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육문화와 학교운영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교사를 점수로 매기는 평가제도로 문제교사는 결코 해결이 안된다. 금품수수하고, 성폭력하는 교사에게 “안 됐지만 이제 당신은 몇점이야” 라고 학부모가 채점하는 것이 대체 어떤 실질적인 규정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인가?

학부모들이 교사와 학교에게 원하는 것은 평가가 아니다. 그것은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길 원하는 것이다.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바로 눈앞에 있는 인격체인 교사에 대한 분노로 왜곡되어 현상화되고 있을 뿐이다.

2) 민주적 교육공동체로 학교자치운동을 전개하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교사평가 혹은 학교평가에 수동적이던 적극적이던 동의하는 것의 이면에는 보다 중요한 동기가 근저에 존재한다. 그것은 교육행위의 주체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 욕구는 매우 정당함에도 한국사회에서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무시되어져 왔고, 종종 마치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이는 교육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복원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평가=시험=점수가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에는 학력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정당화해온 사회구조적인 요인이 크다. 그러나 학력자체가 문화자본으로 기능하면서, 자본을 가진 자가 자본을 늘려가듯, 이미 기득권을 가진 고학력군들이 다시 그것을 대물림하는 교육 불평등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그 결과 이른바 이 사회가 과연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회의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오랜 세월 국가권력의 권위적인 교육행정과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은 문제풀이식 수업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하면서 교육제도의 혁신을 요구하거나 혹은 대안학교와 같이 일방적인 국가행정으로부터 일탈하는 경향들로 확대되고 있다.

더욱 중요하게 교육이 인간의 발달은 돕는 행위이자 사회구성원을 형성하는 집단적인 실천이라는 점에서 교육은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전달 행동이 될 수 없음은 너

무나 자명하다. 한 인격체의 형성은 그가 태어난 가정은 물론 학교를 포함한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일찍이 유럽의 진보적인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듯이 학교는 철저히 민주적으로 운영되었고,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의 주요한 주체들이 학교운영에 함께 하기도 하였다.²⁰⁾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학생은 그저 훈육되고 통제되는 수동적인 대상으로 취급되었고, 때문에 학생의 인권 따위는 간단히 무시되어도 상관없는 그런 야만적인 사회였다는 것이다. 학부모도 예외는 아닌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생업으로 바쁘기 때문에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학습활동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때문에 만일 진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지금과 같이 교육비용이 개개인에게 전가되는 방식이 아니라 무상교육으로 나아가야 하며 동시에 교육주체들이 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구조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전교조에서 제안했던 학교자치방안을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 제출된 학교자치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¹⁾

우선 학생-학부모-교사가 각각의 자치기구를 구성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총학생회(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하며, 총학생회의 심의·의결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운위는 존중해야 한다.

학부모들도 학부모로 구성되는 총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산하에 학년별 학급별 학부모회를 구성한다.

교직원회는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전체 교직원의 참여하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에 대한 제반 사항 등을 심의하여 의결해야 한다. 산하에는 교과별·학년별·부문별 교직원회를 둔다.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의 명실상부한 자치기구화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교사, 학생, 학부모로 하고 공립/사립 구분없이 실질적인

20) 러시아의 역사적 경험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1917년 혁명 이후 1920년대 이르러 교육과정에서의 학생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교사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학생들은 고도로 조직화되었으며 여러 가지 학교행정기구에 참여했다. 심지어 학생들은 학교의 제반사항에 대해 최종적인 행정권위를 행사하는 하는 교무회의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들은 교사를 채용하고 해고라는 일과 교과과정상의 문제를 논의하는 일에도 발언권을 가졌고, 이는 학생만이 아니라 학부모, 지역 소비에트, 노동조합 대표들에게도 열려져 있었다. 학생들은 교사들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었으며, 심지어 선생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교육개혁' 마틴 화이트 [자본주의사회의 교육] 이규환 강순원 평 창작과 비평사 (1984)

21) [법제화 이전 단계의 학교자치 활성화 방안] 최정민(2006)

최고의결기구로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법제화된 3주체의 대표들이 모여 학교의 주요한 일을 결정한다.

학생회 — 학생회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 학칙 제정 참여, 학교복지에 대한 권한부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교무회의 참관
학부모회 — 학교운영,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참여 보장
교직원회 — 교육과정의 계획, 실행, 평가. 인, 예·결산, 학교장 선출

그런데 이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이 반드시 보완 혹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학생회활동이 힘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입시경쟁교육이 중단 혹은 완화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입시경쟁에 시달리는 학생자치활동은 존재할 수 없다. 때문에 입시 폐지 대학평준화를 사회적 요구와 쟁점으로 만드는 실천이 요구된다. 동시에 비록 입시경쟁교육을 당장 중단시키지 못하더라도 학생자치활동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두울 학생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법제화는 물론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법률적인 보완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특히 학생에게 억압적인 학교문화의 개선은 학생회의 요구만으로 안 되며, 동시에 학생회활동과 학생인권은 단위 학교학교안에서의 학생활동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단위학교안에서 운영의 민주적 주체로 결합할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세엿, 학부모들이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학부모회가 법제화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소수의 돈 있고 시간 있는 집단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다수의 평범한 학부모들 즉 노동자 서민들이 학부모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 및 학부모회 참가 등을 유급휴가로 할 것 등이 그것이다.

네엿,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의 교장은 제왕과 같은 특권을 누린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학교를 민주적 교육공동체로 만드는 것을 가로막는다. 교장의 특권을 없애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장이란 직위는 그야말로 보직일 뿐이어야 하며, 학교구성원들의 참여 속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과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와 자율적 운영이 요구된다. 자치의 원리는 교육과정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한국은 교육과정을 국가권력이 독점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창의적인 인간양성은 불가능하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과정 자체가 교사를 포함한 제 주체들의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져야 한다. 동시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단지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교사의 자율성을 기초로 얼마든지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입시위주 교육구조가 당장 혁파되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우선 초등영역에서부터 이러한 실험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부-교육청 등 관료기구의 역할을 축소하고 권한을 교사 등 교육주체들에게 이양해야 한다. 만일 관료기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단위학교 및 교육주체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야지 지금처럼 지배권력을 위한 감시 통제기구로 작동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는 시도 교육청을 대신하고 지역 교육지원센터로 바꾸는 등 창의적인 실험이 요구된다.

일곱 번째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입시몰입학교로 그 존재 자체로 중등교육을 서열화하는 장치이다. 또 중등교육과정에서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별도의 학교를 설치한 것 자체가 국가의 도구적인 발상의 산물이다. 만일 이런 교과를 좀더 심화학습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위한 학습지원체계가 요구되는 것이다.

여덟 번째 교사의 수를 늘이고, 학교 및 학급을 적정규모화 해야 한다. 학급당 인원수가 줄지 않은 한 학생들은 학습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 또 학생상호간의 폭력 등도 사전에 예방될 수 없다. 이미 혁신학교들의 실험에서 확인된 것처럼 학교와 학급이 대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창의적인 수업은 불가능하다. 또한 민주적인 의사결정도 원활할 수 없다.

아홉 번째 무상교육을 전면화해야 한다. 교육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사회와 국가이다. 때문에 교육비용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이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그 비용도 무상이어야 한다.

대안교육에 있어서의 교사, 학생, 학부모의 소통과 진단

이치열 (대안교육연대)

1. 교육운동에서 참고할만한 대안교육의 몇 가지 시사점들

○ 교육 국가독점주의

무엇보다도 소중한 성과는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가 만든 학교에서, 국가가 부여한 교사자격을 가진 교사가, 국가에서 만들어준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어도 '민(民)'주도로 얼마든지 보편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승인받고 있다. 이는 국가주도의 교육이 갖는 허구성을 대중적으로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교육당국은 이러한 대안교육을 인정하고 이를 제도내로 포섭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하다.

○ 교육과정의 가치 지향

그동안 국가가 교육과정을 통해 독점해 왔던 지배이데올로기의 재생산 구조에 대항하여 대안적인 교육이념과 교육과정을 생산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자본은 끊임없이 지배이데올로기를 유포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지배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그들 몇몇이 모여 골방에서 만들어낸 교육과정이 아닌, 민중들의 삶과 대안적인 사회의 전망을 열어나가는 내용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 대안적인 가치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교과에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긴 하다.

○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사가 교육과정 편성의 주체이다. 가르치는 사람이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아울러 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참여한다. 일부 대안교육현장의 경우 교사·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학교공동체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전문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견해와 전문성을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하고 있다. 학기 혹은 학년을 마치고 나면 교사·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교육과정을 좀 더 보완하면서 진화해 나간다.

○ 소통을 통한 진단평가

대안교육에서는 평가를 개량화하여 점수를 매기거나 이를 근거로 석차를 부여하는 식의 평가는 하지 않는다. 계량화된 정량적 평가는 하지 않고 서술형 정성적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라는 표현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고, '진단'이나 '성장기록'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아이 하나하나의 특성에 맞게 성장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얼마나 도달하는지는 진단하는 방식이다. 물론 상대평가 개념은 없고, 개인별 절대평가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평가의 결과를 학부모·학생과 공유하고 토론(상담)과정을 거친다는 것과 학기말 혹은 학년말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소통을 통해서 긴밀하게 진단과정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 민주적인 자치교육공동체

교육의 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가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가능성을 입증해 왔다는 점이다. 학교의 주인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학교를 만들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과정을 밟는다. 학교를 구성하는 삼주체가 일상적인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진다. 자치란 말은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해 간다는 뜻이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추상적 화두가 당위가 아닌 실제 삶속에 녹아들어가는 경험을 통하여 학교가 민주주의 훈련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 교사의 자격

대안교육은 교사의 자격을 배타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통과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배타

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교육은 곧 삶이다. 자기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과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모두가 교사일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모두가 스승이요 모두가 제자인 관계 속에서 교육을 이루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에는 대안교육 교사의 재생산을 위한 양성과정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통합교육 및 협력학습

통합교육은 주로 학년 통합(무학년제)과 장애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통합교육의 교육적 효과는 차이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을 키워주고 경쟁이 아닌 협력적인 학습과 공존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배우게 된다. 또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과 성장의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협력학습은 대안교육에서 주된 학습방법이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처음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반복을 통해 의미와 효과를 체험하게 되며 익숙해진다. 한편 분과별 교과가 아닌 통합교과를 추진하는 것을 통합교육이라 부르기도 한다.

○ 자유로운 학제

대안교육현장은 다양한 형태의 학제로 운영한다. 한 학생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다. 발도르프 학교의 경우는 유치과정부터 15년제를 운영하며, 초중등 12년 통합학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초등의 경우 5년제를, 중등의 경우 3년제·5년제·6년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수 학년이나 학기제, 무학년제도 운영되기도 한다. 이수 학점제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이 아닌 수료로 처리되기도 한다. 주 5일제 수업이며,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초등이 27시간, 중등의 경우 33시간이다.

○ 자기 주도적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의 핵심은 스스로 동기부여를 통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이다. 내적으로 자기 주체성을 전제로 한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내적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을 수반한다. 따라서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의 주체적 태도와 학습에 있어서의 자기 주도성은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려면 보통 실컷 발산하며 노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외

적 강제가 아닌 스스로의 욕구에 의해 동기를 찾기 시작하며 놀라운 흥미와 집중력을 보인다.

○ 교육의 공공성

공교육의 교육공공성 개념은 '기회의 균등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매우 타당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기회의 균등성과 아울러 추구하는 '가치의 공공성'이 균형 있게 통합되었을 때 비로써 온전한 공공성 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추가하는 가치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교육은 지극히 '사적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공교육과는 달리 대안교육은 '공공적 가치'를 가르치는 데에는 성과가 있으나, '기회의 균등'측면의 보완이 필요한데, 이는 공적 지원체계와 연관성이 깊다.

2. 대안교육에 있어서의 교사, 학생, 학부모의 소통과 진단

대안교육이 공교육과 대비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평가(진단)이다. '평가'라는 말이 근래에 '시험을 봐서 점수를 매기고 서열화하는 경쟁서열화 교육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평가보다는 '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대안교육에서 초기에는 공교육 제도가 형식논리에 치우쳐 평가 만능주의로 치우쳤음을 비판하면서 한때 그 반작용으로 전면적인 평가 거부 의 모습이 일부 나타나기도 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간의 시행착오와 경험축적을 통해 적절한 진단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대안교육 현장에서의 진단은 선발이나 순위를 매기기 위한 평가를 거부하고 학습자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자신의 삶속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진단하려 한다. 따라서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분석을 통한 진단활동을 하고 있다.

대안교육의 진단활동에는 학습자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교육활동 등에 대해서도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소통의 방식을 통하여 진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교사들의 모임이나 학생 및 학부모들의 설문조사, 회의 등을 통해 교육 내용과 운영방식을 진단하기도 한다. 이러한 진단활동의 목적은 실천경험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돌아보기와 향후 전망을 만들어 가는 용도로 활용하는데 있다.

1) 학습자에 대한 진단

○ 대다수의 대안교육현장에서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에 대한 진단활동은 점수로 환산되는 방식이 아닌, 교사들이 학습자들에 대해 진단기록(성장기록부)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일상적인 소통을 통하여 진단활동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기말이나 연말에 학습자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기록(성장기록부)을 작성하는데, 서술형으로 작성을 하되 학습자의 인성, 특기사항, 출결, 전반적인 학교 생활 참여도, 수업의 참여, 학습진행 사항, 대인관계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작성하게 된다.

○ 대안교육현장에서는 학습자간 서열을 중심으로 평가하지 않고, 한 사람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진단한다. 따라서 단편적인 평가보다는 긴 시간동안을 살펴 보면서 아이의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평가하는 질적 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개별 학생의 각기 다른 방식의 학습과 성취 수준을 인정하는 방식의 평가이고 과정과 결과 전반의 것을 진단한다.

○ 개개인의 학습의 과정의 과정에서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잠재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발표회나 전시, 공연을 통해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며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성장의 과정을 포트폴리오화 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2) 교육과정에 대한 진단

○ 대안교육현장의 교육과정의 특징은 교육과정의 생산주체가 교사라는 점이다. 교사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지역전문가 등이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된다. 대부분 교육과정 개발 시 중점을 두는 것은 교육 철학이다.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과정 내용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삶의 필수적 요소를 감안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또한 진단활동을 통해 교사 연구회나 학생과 학부모와의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교과가 편성되거나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해 나간다.

○ 대안교육현장의 진단활동은 지난 과정을 돌이켜 보고 성찰하는 과정이며 다음에 이루어질 학습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한 학기나 학년의 마무리는 다음 학기나 학년의 출발과 관련된다. 이러한 학습의 순환은 매 학기나 학년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대안교육 현장에서는 교과가 프로젝트가 고정되게 개설되지 않고 같은 교과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는다. 피드백의 내용을 다음에 반영하여 교과 내용이 변화되거나 학습자의 요구가 수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학기나 학년 말이 되면 발표회 형식으로 공개적인 진단활동의 기회를 갖는다. 학습의 내용과 방식, 과정과 결과를 공연이나 전시를 중심으로 학부모와 교사, 그 밖의 모든 사람들과 서로 공유하고 피드백을 나누며 오픈한다. 이는 그동안의 학습의 과정에 대해 표현하고 성장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며, 발표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또한 또 하나의 학습의 과정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진단활동의 자리 또한 학습의 연장이다.

○ 학기나 학년이 끝나고 지면으로 진단활동의 1차 결과물이 나오면 개별 학생과 교사들, 학부모들이 모여 평가와 피드백을 위한 면담 시간을 갖는다. 교사는 교과에 대한 평가와 개별 학생에 대한 질적 진단기록(성장기록부) 작성하고, 학생은 교과와 학생 자신에 대한 진단을 하면서 한 학기나 학년 동안 자신의 참여와 진척, 결과에 대하여 쓰고 다음 학기나 학년에 할 일에 대한 제언을 스스로에게 한다. 이러한 교사와 학생이 서술한 평가를 항목별로 재구성하여 개별 학습자, 교과, 교사에 대한 의견, 제언 등에 대해 피드백을 나누고 해당 과정을 성찰하면서 다음 학기나 학년을 준비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진단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평가 과정에 참여하며 평가 과정 자체가 소통의 장이며 학습의 장이 된다는 점이다. 또한 진단 결과는 오픈되며 다음 학기나 학년에 반영된다. 이러한 진단활동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자료가 된다.

3) 교육 활동 및 운영 진단

○ 교육활동에 대한 진단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수업주체에 적절성, 준비정도, 아이들의 반응, 교육 교재 및 도구의 적절성, 교수방법, 교사의 소화능력 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다.

○ 교육활동으로 펼쳐진 내용이나 교사자체에 대한 진단은 상당히 깊이 있고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대안교육현장의 모든 교사회는 자체 진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먼저 모여 교육내용에 대한 진단과 교사준비와 능력에 관하여 자체 진단하고 그 결과를 부모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를 갖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 교육활동의 진단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업을 담당한 교사가 교육활동마다의 진단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전체교사가 모여서 그 서면 진단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함께 피드백을 주며 진단한다. 그렇게 함께 평가하여 작성된 진단평가서를 기준으로 학부모들과 토론 자리를 마련하여 함께 공유하는 형식이다. 진단활동뿐만 아니라 새

학년이 시작될 때는 학년교육활동계획에 대해 학부모들과 워크숍 형태로 공유하는 현장들이 대부분이다.

○ 대안교육현장에서는 학생, 교육과정, 교육활동 등에 대한 진단활동뿐만 아니라 현장의 운영에 대한 진단활동도 함께 수행한다. 대안교육의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의 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가 민주적인 자치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진단을 한다. 학기 말 혹은 학년 말 같이 계기를 통한 진단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소통을 통하여 수시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전망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 때로는 총체적으로 객관적인 현장 진단을 위해 대안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단컨설팅팀'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활동을 통해서 진단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별 현장이 내부 주체간의 충분한 자가진단활동이 먼저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현장 현황을 객관화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집단의 도움을 받아 문제의 진단과 향후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안적 평가를 위한 시도 : 사례를 중심으로

중고등통합대안학교 OOOOOOOOOO 교사회

“일 년에 두 번 평가회는 스스로 발가벗겨지는 시간이다. 일명 자발적인 청문회랄까. 스스로 자기 수업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교육의 성과보다는 나의 실수, 부족함, 아쉬움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며칠 동안 이루어지는 평가회의 속에서 동료 교사들이 서로 위안을 주기도 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이야기해 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평가회를 준비하는 시간은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간,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이 시간’이 대안학교 교사로서 행복한 시간이다. 성찰하는 이 시간은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희망이고 힘이기 때문이다.”

1. 평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일반적인 의미에서 ‘평가’는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에서부터 교육프로그램, 수업 등에 대한 관련 요인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OOOO에서 ‘평가’는 평가의 일반적인 의미와 함께 ‘대안학교’로서 학교의 정체성과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다. 먼저 OOOO의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면,

하나, 과정 속에 교육과정

OOOO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라는 특성상 이미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이 아닌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교육과정이다. 즉 완성과 안정의 의미보다는 교육활동의 경험과 과정이 쌓이면서 새롭게 변화하고 운동하는 것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 그래서 자기만족에 머물기 보다는 변화하는 현실과 함께 하는, 변화에 열려 있는 교육과정을 꿈꾼다.

둘, 학교의 가치와 철학이 담긴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은,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무엇

을 배움의 목표로 삼을지, 배움의 내용과 방법은 어떤 것일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마련된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변화와 개선의 방향 또한 바탕이 되는 학교의 가치와 철학을 좀 더 잘 구현하는 것에 그 방향을 두고 있다

셋, 학교를 둘러싼 주체들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OOOO의 교육과정은 특정한 한 주체에 의해서 그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교육 활동을 이끄는 교사를 중심으로, 교육 활동의 대상이자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를 설립한 주체인 길지기(교육위원회를 통해) 간의 논의와 소통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의 큰 틀이 마련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배움터 길에서 평가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하나, 배움의 목표, 내용, 방법이 학교철학을 올바르게 실현하는데 적절했는지 점검하고, 둘, 학교공동체의 주체들이 서로의 변화와 성장을 확인하고 소통하며, 셋, 현실 속에서 변화하고 운동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2.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평가 주체	내용
<p>교사 (길잡이교사/길동무교사)</p>	<p>교육활동: 교과영역별 수업과 그 외 여행, 개인프로젝트, 나눔 활동 등의 교육 활동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여름과 가을·겨울학기 년 2회 평가 수행. - 수업내용과 수업방법, 학생들의 학습 성장과정, 다음 학기 개선점 등 - 학생에 대한 개별평가는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동기의 향상과 주체적인 노력의 과정을 점검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현하는 것에 그 평가 목표를 둔다. - 년 2회 작성하여 학생의 학부모와 공유하는 ‘성장기록부’를 비롯하여 지필평가, 집단평가 등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p>학생 생활: 생활, 관계, 자치활동 등의 태도 및 문화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여름과 가을·겨울학기 년 2회 평가 수행 - 학생회, 단위평가회의, 개인 면담 등을 통한 다양한 평가활동을 수행하며 이는 개별 성장기록부를 통해 년 2회 학부모와 공유한다.

	<p>학교운영: 학사운영, 학교 전체생활과 학교문화 평가, 각 교육활동의 전체적 평가와 생활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여름과 가을·겨울학기 년 2회 평가/교육위원회(교사회 포함) - 학교 철학과 교육목표가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학기 초의 교육목표와 교육적 성과에 대한 점검 교육활동의 구체적 적용의 적절성 학교생활에서 쟁점
학생	<p>자기 평가, 교육과정 평가 : 학습과정, 생활태도,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봄·여름과 가을·겨울학기 년 2회 평가 수행 -학습과정(준비, 성실성, 참여, 자기주도성, 발전 정도) 생활태도(또래 관계, 자치 활동 등)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목표공유, 이해, 만족도, 개선점) 다음 학기 계획 - 집단평가회 또는 설문방식, 개인면접 등의 방법을 통한 평가
학부모	<p>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p> <p>년 2회 교육계획 설명회, 교육과정 평가회를 통한 평가 및 공유</p>
교육위원회 (교사회는 교육위원 으로 참여)	<p>교육과정 연구, 평가, 개정</p> <p>년 2회 교육계획 설명회, 교육과정 평가회 주최</p>

3. 평가의 사례들

※ 평가 사례에서는, 해당 영역의 핵심 목표를 간략하게 기술하였고, 뒤이어 구체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실제 평가 내용 및 그 실례를 인용하여 이해를 돕고자 했다.

1) 교육영역의 특성에 따른 평가의 다양함

① 사례1 : 영어

- 영어라는 언어를 직접 이해하는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기본 토대를 만드는 과정 경험하기.
- 눈과 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영어를 접하고 자연스럽게 흡수하기 언어라는 문

화적 체험을 경험하기

- 영어의 언어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체계를 세우기.

“ 영어학습의 경우 특히 결과적인 평가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현재의 결과보다는 꾸준한 자세로 지속적으로 하는 성실한 자세를 더 중요한 부분으로 본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일정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영어라는 언어 습득의 속성에 의한 것이다.

영어 수업의 주요한 평가는 결과보다는 배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가는데 의미를 둔다. 그때그때 복습의 개념으로 단어시험을 보고 있으며, 학기말에서는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보는 테스트를 한다. 시험결과 보다는 시험지에 제시된 내용을 다 알고 학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이며 첫 번째 시험을 보고 난 다음 문제 내용을 다함께 확인해 보고 재시험을 반드시 본다. 두 번 시험의 평균점수가 학생의 학기말 최종 점수가 된다. 학기말에 교사가 하는 평가에는 수업의 이해도와 발전도 앞으로 노력할 점 등을 평가해 준다.

학생 개별평가 중에서

.....'00이는 어휘력은 일반 중등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쁜 편은 아니나 아직 철자 인식은 부족합니다. 어휘력에 비해 문장 이해도가 낮은 편입니다. 단문 형태의 해석은 잘 되나 긴 문장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많이 접해보지 않은 듯합니다. 문법적 지식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적용할 줄 압니다. 단어를 변형해 가며 문장을 만들어 얘기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과제나 단어시험 준비를 잘 해 왔으며 단어시험에서 95점이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습시다. 현재와 같이 단어를 꾸준히 외우고 다양한 글을 많이 읽어 나갑시다.....

② 사례2 : 철학 (철학의 친구들)

- 철학적 질문들을 통해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과 '사유의 실험'이라는 '철학함'의 태도를 배운다.
- 철학과 다른 영역과 만남을 통해 '세상을 읽는 방법'과 '새로운 사고의 가능성'을 경험해본다.

2007년 봄여름학기 구술시험 중에서

공통주제 - 철학과 음악(1개 선택)

1.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내가 좋다, 아니다 의 기준이 아닙니다.)
2. 아름다운 음악이란 무엇일까요?

3. 작품의 순수성이란 무엇일까요?(예술의 전당을 싸이한테는 빌려주지 않았죠!!, 민중가요는 개사되어지기 마련이죠~~): 음악에서 순수음악과 대중음악(상업음악)의 구분에 대해서 4. 작품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별은 어떻게 할까요?
5. 악보를 읽을지도 그럴지도 모르는 사람은 음악을 만들 수 없을까요?
6. 음악은 사서 듣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받는 거다 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7. 청각이 아닌 시각의 음악은 가능할까요?
8. 히트곡은 어떻게 탄생되어질까요?
9. 앞으로도(평생?) 계속 듣고 싶을 것 같은 곡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10. 영혼을 판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현실의 기준입니다)? 이 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1. 음악(대중음악과 클래식 등)의 발전은 유럽과 미국이 이루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2. 선택주제(2개 선택)

1. 철학과 미술/상식과 논리에 도전하라 - 르네 마그리트
2. 철학과 영화/‘매트릭스’로 철학하기
3. 철학과 예술/무엇이 예술이 될 수 있는가?
4. 철학과 일상/사물들과 철학하기
5. 철학과 언어/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하고 답변하는지, 자신의 생각에 근거는 충분한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고 창의적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대답:

Q 청각이 아닌 시각의 음악은 가능할까요?

A: 스피지(책)에서 무음으로 연주를 했다고 했어요.

Q 무음? 무음으로 연주를 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A 미국의 클래식 작가가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악보만 넘겼어요. 4분30초 동안

Q 그러면 소리(음악)가 없이 악보만 넘겼다는 말인가요?

A 네

Q 아, 정말 소리 없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구나. 멋진 답입니다.

Q 앞으로도(평생?) 계속 듣고 싶을 것 같은 곡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A 힙합이요.

Q 아. 힙합을 좋아하는군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힙합을 좋아할 것 같은가요?

A 네

Q 그렇군요. 힙합의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신나기 때문에, 그리고 노래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Q 록은 어때요? 여러분 나이 때에는 록도 좋아하잖아요.

A 록은 시끄러워서. 힙합은 멜로디가 간단하고 단순하고 편하게 할 수 있고 때로 하지 않아도 되고.

Q 힙합도 여럿이 때로 나오던데.... ^^

철학과 일상/사물들과 철학하기

Q 사물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A 네, 어저께 별음자리표 아저씨가 그러는데 죽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살아있대요. 암세포 빼고 다 살아있대요.

Q 죽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A 사라지는 거요.

Q 당신과 닮았거나 닮고 싶은 사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음, 카메라를 닮고 싶어요.

Q 왜 카메라를 닮고 싶은 거죠? 어떤 점 때문에 그런가요?

A 카메라는 볼 수 없는 것까지 보고 시야가 넓어요. 조그만 렌즈라도. 그리고 장면 장면을 기억할 수 있게 사진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있어요.

.....

철학과 예술/무엇이 예술이 될 수 있는가?

Q 예술작품은 반드시 아름다운가요?

A 예술작품의 의미에 반드시 아름다움이 꼭 있는 것은 아니죠.

Q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술 하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 아름다운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00이는 예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모든 게 다 예술이죠.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것, 공유하기 힘든 것, 몸짓, 생각, 말...

Q 00이는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런데 예술은 누군가와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A 예술이 남들과 꼭 소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작품을 보는 입장은 보는 사람의 의미를, 의미를 각자 실으면서 보죠.

Q 그렇다면 예술 없이 아름다움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요?

A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라는)단어에서 나오는데, 관념이죠.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른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취향이지요. 예술이 아름다움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예술이 아니어도 아름다움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 다음의 질문카드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해 자신의 생각을 써보세요.

1. '인생은 게임이다' 당신은 이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2. 시간은 왜 앞으로만 가는 것일까요?

☛ 다음 문제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해 자신의 생각을 써보세요.

3. 텔레비전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크레파스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비디오 테이프나 비디오카메라, 전파를 이용해 표현하는 예술을 비디오아트라 합니다. 백남준은 비디오아트라는 예술 영역을 개척한 '비디오아트의 아버지'라 불리지요.

그는 텔레비전 모니터와 비디오카메라를 물감이나 붓을 다루듯이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비디오테이프, 비디오조각을 만들고, 비디오퍼포먼스 등 다양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로봇, 레이저, 인공위성 등 다양한 매체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미디어 아트의 아버지'라 불러야 한다고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보다 먼저 앤디 워홀이 비디오를 사용했고, 그에 앞서 볼프 포스텔이 TV 모니터를 설치했으며 퍼포먼스 위성중계 역시 백남준이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백남준처럼 미디어 자체를 주제로 삼아 철저하고 일관되게 미디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백남준은 텔레비전을 통해 새로운 예술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백남준이라면 당신은 어떤 매체나 사물, 방법으로 당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나요? (예를 들어 마르셀 뒤샹은 이미 있는 변기를 미술관에 전시하면서 예술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해석을 내렸고 앤디워홀은 통조림 수프와 콜라, 대중매체의 이미지를 복제하는 방법을 선택했지요.)

*매체 : 메시지를 담아서 수용자들에게 보내는 용기(容器), 예를 들어 신문·잡지·서적·라디오·TV 등

4.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은 남자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프로그래머들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오락실에 가도, 게임숍에 가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답니다. 물론 게임을 즐기는 여자들은 많아요. 하지만 그 수는 남자에 비하면 매우 적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혹시 여자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더 적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른들이 여자 아이들이 게임을 즐기는 걸 싫어해서? 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여자보다 남자들이 많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써보세요.
5. 똑같은 한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긴 시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짧은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와 나이가 들면서 시간은 달리 느껴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 것일까요?

학생들의 대답

(질문: 시간은 왜 앞으로만 가는 것일까요?)

2. 학생: 강물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는 유사답변을 할 수 있겠다.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되감기 버튼을 누르면 영상 속에서는 돌아가지만 현실적인 '시간'은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도 흐르고 있다. 왜 일까?... 내 심장은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구름은 흐르고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건 멈춰지지 않잖아. 시간을 멈추고 싶으면 내가 죽으면 멈춰질까? 내가 죽어도 강물은 흐르고 바람도 불지만 난 더 이상 흐름을 느낄 수 없으니까 멈춘 거 맞지?

☞교사: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것은 변화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BEFORE AND AFTER,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앞과 뒤 전과 후 이렇게 방향을 정하게 되죠. 하지만 이 또한 인간중심적인 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은 앞으로 가는 게 아닐 수도, 계속 반복되는 것일 수도,. 여러 시간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일지도 모르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그 시간을 느끼고 경험하는 내가 시간의 주인인가? 그저 흘러가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인가라는 거죠. 과연 시간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3. 학생: 내가 만약에 매체로 내 생각을 표현한다면 난 그냥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술로 표현하고 싶다.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다. 누구든 예술을 할 수 있다'를 표현하기 위하여.....

☞교사: 위대한 예술가들은 새로운 매체를 발견하거나 창조한 사람들이죠. 피카소가 평면 안에서 입체적인 시각을 표현하고, 뒤샹이 이미 있는 것으로, 예술은 창조이기도 하지만 발견과 해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워홀은 복제와 반복 그리고 일상 속에서 예술의 가능성을, 그리 백남준에게 와서는 TV라는 매체가 캔버스를 대신하게 되고 예술의 중요한 도구로 쓰이죠. 00의 말처럼 모든 것으로 예술을 표현하고 누구든 예술을 할 수 있다면, 그때의 예술은 '예술'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예술의 고전적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할까요?

5. 학생: 어찌 보면 질문이 다소 남녀차별적 요소가 조금 있지만... ㅋㅋㅋ

남자와 여자는 다른 몸과 정신을 가지고 있다. 어릴 적부터 남자아이들은 게임과 친하게 지내고 여자아이들은 인형과 옷, 연예인에 더 관심을 보인다.

더 아래로 내려가자면, 남자아이는 파란색, 여자아이는 분홍색을 좋아하는 거와 같다. 물론 아닌 아이들도 있지만(나 ㅋㅋ) 어찌면 환경에 편견일지도...

조금 크면 남자아이들은 총과 차와 친해지고 여자아이들은 멧부리는 것과 인형과 친해진다 (한번 더 강조하지만 다수의 이야기! 난 소수?ㅋㅋㅋ).

조금 더 크면 남아들은 총과 차게임과 친해지고 여자아이들은 옷입히기 게임(ㅋㅋㅋ) 등 다소 폭력적이지 않은 게임을 한다.

헌데, 문제에 문제가 있는 듯? 문제에서는 '폭력적 게임'을 상대로 쓴 것 같은데...?

여자애들도 게임을 한다. 하지만 여아들은 거의 깊지 않게 빠진다.

여자아이들은 뷰티 쪽으로 더 많이 빠져서 남자 애들만 게임한다고 비춰진다.

☞교사:남자와 여자가 다른 몸과 정신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게임을 즐겨하고 안하고 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남자다움, 여자다움은 타고난 것일까요? 아니면 자라면서 학습되고 사회화 되는 것일까요?

만약 여자들이 뷰티에 빠지고 남자들이 게임에 빠진다면 그렇게 되는 각각의 이유는 무엇 일까요? 게임의 어떤 면이 남자로 하여금 더 빠지게 하는 거라면 그건 게임의 어떤 속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6. 학생: 이 문제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다르게 느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자신이 병원에서 주사 맞는 차례를 기다릴 때(물론 주사 맞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을 빼고) 대부분 시간이 멈춰 버리길 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은 원해도 늦어지거나 멈추기 않는다(내가 아는 바로는 그렇다). 그러니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미래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다들 시간이 빨리 가길 원할 것이다. 그러나 역시 원한다고 시간이 빨리 가지는 않는다.

결국 시간이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결국 이건 생각하는 것에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 시간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시간의 절대성) 시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느끼고 보내는, 주체인 나의 주관적인 것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절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시간을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에 끌려다니고 규정되는 삶, 시간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속도와 흐름을 창조하는 삶,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③ 사례3 : 언어문화 / 글쓰기

글쓰기: 다독-읽기와 쓰기를 통해 글을 보는 눈 키우기.

다작- 글쓰기를 통한 자기표현과 창조하기.

다상량-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살피고 성찰하는 경험하기.

2007년 가을겨울학기 교육과정 평가 중에서

(중략)

▶ 불 지피기

- 수업의 내용 그 자체보다 글을 쓰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와 그럴 수 있는 수업의 형식은 무엇인가에 교사의 많은 고민이 닿아 있었다. 예)자신의 필명 만들기, 위대한 블로거(만남의 일기)

- 글쓰기는 어렵고 지루한 일이 아니라 충분히 즐겁고 신날 수 있다, 내 글을 누군가가 읽는 것에 대해 당당해지자, 글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두려워 말자, 어찌 됐든 자꾸 써보는 것만이 길이라는 메시지를 수업의 곳곳에 심어보려 했다.

▶ 또 다른 글쓰기, 만남의 일기

- 수업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만남의 일기'는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되었다. 무엇보다 교사에겐 큰나무들의 블로그에 글을 읽고 댓글을 쓰는 시간이 행

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 어떤 시간보다 사랑한 시간이었다. 수업에서 충분히 나누지 못하거나 표현 못한 이야기, 감정, 관심들을 나눌 수 있었고 그런 점에선 치유의 역할까지 해주지 않았나 싶다.

- 물론 시기적인 특성-자신에 대한 고민은 깊어지지만 그 과정을 다른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은 힘들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는-과, 글쓰기에 대한 각자의 성향-글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거나, 힘들거나, 귀찮거나, 거부하거나- 으로 만남의 일기에 접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어떤 친구들은 만남의 일기를 통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깊어지고 내밀한 글쓰기로 나아가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아예 안 쓰거나 장난스럽게 쓰거나 형식적으로 쓰기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글쓰기 패턴이 드러나기도 했다.

학생들의 만남의 일기 중에서

5월9일 - 인생의 지루함

난 오늘도 걷고 서있고 앉아서 생각하고 쓰고 읽고 또 생각하고...

하지만 이걸 반복하면 지루하진 않을까?

그래서 한번쯤은 여행도 가고 혼자서 울고 소리 지르고 크게 웃고 했음...

세상은 넓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한다...꼭!

시험 보고, 읽고, 쓰고 반복되는 삶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다.

OOO/지리산여행을 다녀온 후 호빵의 모습은 한 눈에 많이 컸다는 느낌이 전해지더군요. 그리고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크기가 확 커버린 것 같아요. 그래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짧지요. 의미 없이 반복되는 삶이 아닌 자신의 바람과 의지를 펼쳐 보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11월21일 - '이기주의'에서

지구는 매일 한번 자전하고

해류는 십여 년에 한번씩 순환한다.

마그마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맨틀은 조금씩 움직인다.

계절은 여지없이 바뀌고

낙엽은 떨어져 어디론가 날아가고

날씨는 가끔 비가 내리고 맑아지기도 한다.

꽃은 피었다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동물들은 끊임없이 짹짹하기를 한다.
철새는 따뜻한 곳을 찾아 멀리 날아가고
지하철 2호선은 늘 신도림을 지나며 순환하고
사람들은 늘 분주하다.
고3들은 일 년에 한번 씩 꼭 수능을 보고
졸업생들은 취업면접을 보느라 진땀을 빼고
어디선가 누군가는 태어나고 축복을 받느라 바쁘고
누군가는 장례식을 치르느라 바쁘다

그런데
왜 내 자신은
가만히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무 변화도 없이
에너지도 없이
열정도 없이
꿈도 없이

OOO/매순간 변화는 일어나고, 내 몸은 에너지 덩어리 그 자체이며, 열정은 터져 나올 곳
만을 찾고 있고, 꿈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

12월 11일

오늘도 새로운 만남이 느껴지지 않는다.
평상시와 같게 학교로 갔으며 일상에 도착하는 시각에 학교에 도착을 하였고
나는 그렇게 평상시와 다를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게 하루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나는 학교를 끝내고 예정된 시간에 나의 집으로 돌아왔다.
하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만남 따위는 존재 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
하나 정도 실정을 해보도록 하겠다.
글쎄... 그래 이것도 될 수가 있다.
오늘은 나는 비슷한 스케줄의 하루와 새로운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나는 인터넷상의 글들과 새로운 만남을 가졌고
지금 나의 글과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000/00의 글을 읽노라면 한 편의 1인칭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입니다. 연우로 추정되는 주인공은 자신만의 세계와 그 너머 세계 사이에 있고, 대체로 그 너머로는 나가지 않고 싶은데 살아가자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가끔씩 그 너머로 응답을 보내기도 하죠. 이글도 그 응답일 테구요. 누군가가 그러던데, 나는 대우주이고 바깥 세상은 소우주라고 보통은 그 반대로 생각하지만... 눈만 감으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 문집 15살-15살의 흔적(문집 참조)

- 글쓰기를 이번 학기 중심활동으로 삼은 것은 작년의 경험을 통해 드러난, 글쓰기로 개성과 자기표현을 드러내는 큰나무의 특성, 15살이라는 시기적인 특성을 글로 풀어보는 경향이 의미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 수업 안에서, 만남의 일기, 그리고 ‘문집 15살’에서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만나는 큰나무의 글은 15살의 느낌, 조금씩 변화하고 진화해가는 성장의 흔적들, 각자 자기표현을 찾아가는 모습들이었다.

④ 사례4 : 수학수업

- 수학으로 세상 읽기.
- 기준을 정하고 규칙을 찾기 구체적 상황에 적용해 보기.

2007년 봄여름학기 교육과정 평가 중에서

.....
 우리는 얼마나 잘 숙달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의 경우에는 얼마나 잘 숙련되어 있는가, 숙달되어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이 그러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 무척 혼란스럽게 됩니다. 평가하지 않는 (구체적으로 대학입시에서 시험보지 않는) 것들은 좀 자유로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음악에 대해, 음대를 지원하는 친구들 이외에는 연주를 숙달되게, 또는 노래를 숙련되게 잘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악을 잘 느끼고, 감상하며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미술도 그림을 숙달되고 숙련되게 잘 그리라고 하기보단 즐기고 감상하고, 자유롭게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른이 돼 세상을 살며, 학교에서 배운 음악, 미술, 수학을 활용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활용 측면에서, 세과목은 아마도 차이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수학에 대해 숙련도를 요구합니다.
 수학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거나, 잘 느끼거나 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기 십상입니다. 숙련도를 평가하는 이 엄청난 통과 의례만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런 게 있었냐는 듯, 더 이상 수학에 숙련되기 위해 반복적인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철저히 멀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참 아름다운 창 하나를 엄청나게 추한 모습을 만들고 맙니다. 전 교육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 모두가, 이렇게도 추한 통과의를 제발 없애버리자고 힘 모으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어려워하는 수학. 대안학교에서는 특히,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한다. 많은 교과목 중에서도 선행지식이 없으면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이라, 위계적인 것을 싫어하는 대안의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수학으로 세상읽기를 하고 싶지만, 도구사용에 힘들어 하고, 서툴고, 나아가 두려운 나머지 포기하는 상태의 아이들과 어떤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이 과제를 푸는 것이 큰나무의 교육목표이다.

1)교육내용

- 3월 : 무엇을 할까? 키재보기, 양팔길이에 숨어있는 규칙은?
(걸리버의 식사량,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 4월 : 비와 비율만 알면, 30cm 자로도 63빌딩의 높이를 간단히 알 수 있는데.
(A4용지의 비밀은 일하기 귀찮아서)
- 5월 : 닳은 도형, 도형이와 비슷한 것 찾아보기.
- 6월 : 맨홀뚜껑이 원인 이유가 옮기기 쉬워서라는데...
- 7월 : 존재하는데 아직도 모르는 수; 무리수, 피타고라스 그리고 파이(먹는 건가)
- 9월 : 일차방정식을 가르치는 이유는? 잘난 척 하려고..
(풍물에서 일채, 이채, 삼채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기준이 무언지 아니?)
- 10월 : 바코드의 비밀? 지구의 멸망을 몰래 적은 것이라는데....
- 11월 : 제발 분수 좀 알고, 분수 있게 살아보자.
- 12월 : 복권에 당첨될 수 있을까?

2)평가

- 출석 50%, 개인 보고서 20%, 적극성 30%
- 평가결과는 '통과'와 '재수강'으로 나누며, 재수강의 경우 여름 및 겨울 방학 중 일정기간 동안 진행하는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함.

⑤ 사례5 : 기타 수업

- 기타라는 악기와 친숙해지게 되어 자신의 느낌을 기타로 표현하는 법을 익힌다.
- 왼손과 오른손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기타라는 악기를 통해 양손의 손가락으로 조화를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
- 함께 연주하는 친구들의 악기소리를 들어보며 자신의 소리와 다른 면을 느끼고 자신의 소리를 찾는 과정을 만든다.

‘내가 만난 작은 뮤지션들,

이미 음악이란 것이 화려한 상품의 보조 장식으로 극심히 변해가고 있는 세상이지만 작은 움직임으로 세상이 변해가듯 작은 목소리들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기분 좋은 일들도 많아지리라 생각해 봅니다.

반년 정도의 만남으로 많은 것들을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만난 3명의 아이들은 모두 제각각 이면서도 또 하나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넘치는 개성과 동시에 함께 한다는 생각들....

완성적인 형태의 그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공동체속의 또 작은 소규모 공동체??

유난히 친해보였던 00과 00, 그들과 거리를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아보였던 00, 야외수업을 하자며 함께 조르다가도 스스로 최소한의 수업을 지켜가는 00과 00. 항상 재미있는 주제로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00. 돌발적인 행동으로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00.

이 아이들 속에서 괜히 조급함에 스스로의 평정심을 가끔 잃어가는 나와는 다르게 아이들은 느긋했습니다. 급하지 않아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며 화려하지 않아도 작은 표현들을 습득해 가는 모습은 세 아이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연습/어차피 모두들 많은 개인 연습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확인되어지지만 표현/세 아이들 모두 표현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악기를 가지고 자신만의 표현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기술적인 면보다는 감성적인 면이 중요합니다. 물론 잘된 표현은 악기에 대한 기술적인 면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느낌이 살아야 하지만 그건 오랜 시간 악기로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면 모두들 잘 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명의 작은 뮤지션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기타하나를 집어 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그려보니 미소가 절로 납니다. 꼭 기타가 아니어도 아이들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돌아보니 참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⑥ 사례6: 여행

-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방식의 삶, 새로운 문화와 만남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넓고 깊게 만들어 간다.
-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삶의 태도, 새롭고 낯선 상황 속에서 자립적인 삶의

태도, 문제해결 능력을 배운다.

2006년 가을겨울학기 여행프로젝트 평가 중에서

여행프로젝트

☐총평

☞ 준비과정에 대한 평가

좋았던 점 : 실제 여행보다 준비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여행이었다고 본다.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무언가를 기획하고 만들어 낸 경험을 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프로젝트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체험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경험을 다른 과정에도 연결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동기를 부여해 주고 적극성을 준 점에서 좋았다고 본다.

부족한 점 : 실제로 여행을 해 본 결과 본 여행보다 여행준비과정에 더 많은 노력과 공이 필요했다.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경험의 폭이 제한적이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여행 계획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여행 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다.

☞ 전체 여행평가

좋았던 점 : 전체적으로 대체로 편안한 여행이었다.

다른 자원교사 없이 길잡이 교사들과 아이들만의 여행이 주는 밀착감이 좋은 점도 있었다. 따라서 교사와 아이들, 아이들과 아이들간에 좀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어른들이 계획한, 고생스럽고, 힘든 여행이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여행의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었던 것 같다.

부족한 점 : 여행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도 좋으나 모둠에 따라서는 여행의 의미를 너무 가볍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는 듯해서 여행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또한 여행의 모듬을 짜는데 남녀로 이원화되거나 고정된 관계가 그대로 가는 점이 아쉬웠다.

도봉공뿔 모듬 여행평가

기획과정

00이와 지혜를 중심으로 기획되었습니다.

00이 당고모택에 있는 시골에 가서 일도 도와드리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온다는 취지였습니다.

준비과정

모듬원 모두 자기가 맡은 부분을 꼼꼼하게 준비하였고 여행 경비를 벌어야 하는 부분에서 펠트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어느 모듬보다 즐겁게 한 것 같습니다.

여행 속에서

:모든 여행 과정이 한 아이의 표현을 빌리면 ‘대안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보다 아이들이 보이는 태도는 바지런하고 자기들이 택한 것에 대해 즐겁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래식 화장실과 마을회관 숙소, 포도밭 농장일...

누군가에게 끌려 왔다면 불만거리였겠지만 자기들이 계획한 것이어서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태도는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방에서 뒹구는 몸의 편함보다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낭만을 좇고 몸으로 하는 놀이를 꺼려하는 여자아이들이 얼음땡, 돼지불알 등의 놀이를 하며 여행을 보냈습니다.

모듬구성원이 여자 아이들이라는 고정된 관계여서 여행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매력을 알아가기 보다는 인간관계의 한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좋기만 했던 친구들이 알밋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그래도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많은 놀이(도전 몇 곡, 첫사랑 이야기 등)를 통해서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 여행 때문에 여자아이들은 관계에서 조금 자유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사에게도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방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셈이니까요. 세상과 만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아직 어리고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부족함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채워지고 그 상황이 여행 속에서는 더 즐거움으로 남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실수하면서 배우는 과정을 교사도 함께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⑦ 사례7: 소박한 밥상

- 스스로 자신의 일상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 키우기.
- 음식문화에 대한 성찰, 노동의 의미에 대해 바라보기.

2007년 봄여름학기 교육과정 평가 중에서

● 큰나무

- 운영과정: 일주일에 두 번 소밥은 큰나무 2모듬과 작은나무 이렇게 번갈아 가며 진행하였다. 반지, 단비, 돌고래가 아이들과 함께 했고 담당 모듬이 식단 짜고 재료 준비, 뒷정리

까지 했다.

- 큰나무는 1년 반에 소박한 밥상 통해 기본적인 국, 나물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 손으로 재료를 만지고 조리하고 친구들과 함께 먹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먹게 되었고 ‘밥 먹으면서 정든다’는 표현처럼 학교 문화에서 일상적이지만 자연스럽게 모든 식구들이 모이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제철음식, 전통음식에 생소한 친구들도 이제는 그 맛을 느끼게 되었고 일상적인 요리가 되었다.

- 진정한 생활 속에서의 일하기로 거듭나기 위해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그냥 해야 하기 때문에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붙여름학기 소밥은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간이었다. 새로운 요리를 해보는 것에 대한 흥미와 재미보다 밥을 해서 먹고 정리하는 일상적인 활동이었다.

- 교사의 역할: 교사가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은 교사의 지시 내지는 도움으로 스스로 움직이려 들지 않는다. 큰나무는 요리를 배워야 하는 단계를 넘었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을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 소밥의 역할 즐기기 : 레시피 작성이 요리로 이어지지 않음. 요리가 손에 익어가기 때문에 요리를 아는 친구가 설명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요리주문, 레시피 작성하는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전환시키기.

- 소밥의 역할 늘리기 : 일하기 시간에서 분리해서 나와 요리를 하는 것 이상의 소밥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실 속에 필요한 예를 들면 쌀뜨물 발효액 만들어 텃밭에 이용하는 것, 한 달에 한번 정도 일상적인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영상을 보는 정도로 소밥의 목표를 넓히는 것이 필요. 콘텐츠를 도움 받아서

- 야외활동이 예상되는 수업 가령, 일하기 등의 수업과 겹쳐있지 않게 배치

- 도시락 안 싸오거나 인스턴트 음식 사먹는 문화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 작은나무

처음해보는 것이라 그러했을까 작은나무 친구들은 소박한 밥상 시간을 무척 흥미로워했다. 월요일에 큰나무들이 외부로 나가는 날이라 작은나무들끼리 소박한 밥상을 하는 때면 정해진 메뉴가 아니라 하고 싶은 메뉴로 선정해서 했다. 스파게티, 라볶이, 해물칼국수, 햄버거 등 많은 인원의 경우에는 시도할 수 없는 음식들을 해보기도 했다. 잘 돼서 맛있게 먹을 때 무척 만족스러워했다. 소박한 밥상 시간이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되는 이유이기도 했다. 소박한 밥상 시간을 기다리는 친구도 있고 대부분 좋아했다. 교사1인과 5명 정도의 인원구도는 적절한 구조인 것 같다. 아이들 모두에게 할 일이 고루 분배되면서 시간이 부족해지지 않는 것 같다.

소박한 밥상 본래의 교육목표에 잘 부합되었는지 잘 판단이 안 된다. 메뉴 선정이 즉흥적일 때도 있었고, 교사가 음식주문하기, 레시피 짜기 등을 다한 점 등.

2학기에는 소박한 밥상 전체의 방향에 대해서 다른 교사분들과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

㉔ 사례8 : 개인프로젝트

- 한 해의 배움을 심화하고 마무리하는 작업.
- 스스로 프로젝트의 주제와 내용을 선정하고 학습일정을 계획하여 결과물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멘토의 지원과 협력관계를 통해 새로운 학습의 경험을 쌓는다

2007년 개인프로젝트 교사, 학생 평가회 중에서(평가회 동영상 참조)

1) 학생들의 주제선정 및 과정:

얼마나 자기 주도적이었는가? 성실한 과정이 있었는가?

- 00: 주제는 수필쓰기였는데 주제선정을 잘 한 것 같다. 처음에는 노래하는 것을 하고 싶었는데 나는 글을 노력해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돌고래가 권해주어서 하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주제를 하게 되어서인 것 같다. 준비과정에서 앞으로 글 쓸까라는 것을 느꼈다.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쓰기는 했다.
- 00: 주제선정은 통의 제안으로 하게 되었고 기타 연주하는 것이 좋아서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기타 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2주 남기 전에는 열심히 하지 않게 되었다(나름 할 게 있고 수업시간에 시간도 없고 압박도 없고). 밤새가며 연습했으나 막상 할 때에는 영상으로 찍어서 했으면... 너무 떨려서...
- 00: 주제 선정은 잘 한 것 같은데, 돌고래가 준비과정을 도와주었다(살짝 아닌가...) 연습을 많이 안한 것 같고 자발적으로 한 부분은 많다. 동영상을 보고, 화요일에는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열심히 연습했다. 성실도는 조금 못한 것 같다.
- 00: 자료가 너무 많아서 준비하는데 힘들었다. 단비가 도와주긴 했는데 주제선정은 잘한 것 같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잘했다.
- 00: 좋아서 주제를 정하게 되었고 자발성은 멘토가 도와주지 않아서 (스스로)할 수 밖에 없었다. 기타쌤께 말해봤는데 '작곡은 기술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라고 해서. 성실성은 매우 떨어졌다. 작곡을 하는 게 창작을 하는 것인데 대중 하는 것은 싫어서 생각을 열흘 동안 하다가 몰아서 하게 되었다.
- 00: 콘티를 계속 잡다가 소설을 잡아서 만화를 그리게 되었고 하루 밖에 시간이 안남아서 몰아서 하게 되었다. 아쉬운 점이 많다. 자발성과 성실도 면에서는 잘한 것 같다.
- 00: 재밌었고 자발성은 멘토가 아프셔서... 성실성은 상당히 떨어졌다.
- 00: 주제선정은 잘한 것 같아 재밌어서 좋았던 것 같다. 처음 해 본 거여서 힘든 것도 있었고 멘토가 많은 것을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사는 것만 도와주었고 하는 방법을 몰라서 처음에 손으로 해서 머리가 떨어지고 PG는 하지도 못해서... 성실성은 떨어졌다. 자발성은 스스로 잘한 것 같음.
- 00: 처음에는 할 만 했는데 나중에 할 때에는 영작하는 것이 어려웠다. 집에서 혼자 한

것은 한번 정도 밖에 없고 반지가 많이 도와주셨다. 주제 정하고 몇 번 정도는 안하고 2주전부터 시작해서 더 많이 못한 것 같다.

-00: 준비과정에서 신발을 구하려고 했는데 구하기가 어려웠고 집에 준비물은 다 있었는데 막판에 물감이 부족했다. 주제선정은 별다른 후회가 없고 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다. 만드는 과정은 쉬운 과정은 아니다. 디자인, 채색, 재료 구하는 과정은 하기 힘들다.

-00: 생각했던 것보다, 후회는 아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 결과는 만족을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재촉해서 자발성은 떨어지고 별로 노력하지 않고 하룻밤이면 다 할 걸 하지 않았나 싶기도.

-00: 계획 잡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료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정리할지 힘들었지만 마무리는 잘 된 것 같다. 발표는 잘 되지 않은 것 같다. 자발성 있는 부분에서 통이 많이 도와준 것 같아서 혼자 한 것 같지는 않았다.

-00: 주제선정은 잘 한 것 같고 돌고래가 많이 도와준 것 같아 자발성은 떨어졌고 성실성은 많이 떨어졌다. 리허설 때에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00: 도움이 되기는 했고 자발성은 집에서도 많이 했고 통도 많이 도와준 것 같다. 자발성은 떨어진 것 같고 성실하게 잘 진행했던 것 같다. 주제가 어려워서 후회되는 점이 있다.

-00: 거의 다 사전에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쉬운 걸 한 것 같다.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 같다. 개인프로젝트 핑계로 스포츠 뉴스를 봤다. 자발성은 아이들과 같이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고 성실성도 떨어졌다.

2)발표 과정- 결과물이 목표했던 대로 완성되었나요,

발표할 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잘 전달하였나요?

발표준비가 충분했나요?

-00: 떨리지 않아서 잘 되었고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잘 되지 않은 것 같다. 학부모님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00: 연습할 때에는 잘 되었는데 발표할 때에는 잘 되지 않았고 발표 준비는 확실히 부족하게 되었다. 10쪽까지 연습을 다 하지 못했고.

-00: 제대로 완성된 것 같지 않다. 연습한 것보다 긴장해서 라인이 맞지 않았다.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부분은 전달된 것 같다. 발표준비는 잘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00: 목표했던 대로 준비는 되었는데 자료가 많았다. 전달하려고 했던 부분은 전달했고 발표준비도 충실히 했었다. 의도했던 대로 청중들에게 전달이 잘 된 것 같다.

-00: 곡은 완성을 했고 가사는 완성하지 못했고 멜로디가 전달되지 않았고 가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충분했지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듯...

-00: 발표할 때 결과물을 목표한 대로 나와서 좋았고 리허설을 못해봐서... '만화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만화를 그리는 노가다라는 인식이 심어지지 않았을까.

-00: 동작을 안해서 완성도는 떨어졌고 로봇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고 ppt를 그날 완성해서 충실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다.

-00: 결과물은 목표한 것과 다르게 자세를 잘못 잡아서 어정쩡했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많이 전달했다. 하기 전에 ppt를 만들었는데 대충 만든 것이 보였다.

-00: 목표한 것보다는 덜 성취된 것 같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오드리가 잘 지내다 간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잘 된 것 같다. 준비를 좀 더 했으면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00: 발표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그닥 잘한 것 같은데... 발표를 했다는 것에 만족한다.

-00: 결과물은 잘 된 것 같고 긴장을 해서 전달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것 같다.

-00: 잘 된 것 같고 전달하고 싶어 한 것이 잘 된 것 같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자료집에 사진을 실었으면 더 좋았을 듯 긴장을 해서 몇 가지는 빼먹고 이야기 했다.

-00: 발표문에는 만족했는데 원고를 그날 만들어서 말도 꼬이고 전달을 잘 하지 않은 것 같다. 발표하는 것은 미흡했던 것 같다.

-00: 목표했던 대로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발표준비는 충분하지 않았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달되었던 것 같다.

-00: 목표대로 발표가 되고 전달되었던 것 같다. 또 발표준비도 잘 되었다.

-00: ppt는 아파서 집에서 빨리 해서 만족을 못했다. 전달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전달되지 못했다.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 발표준비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

-00: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충분히 전달 못했고 발표준비는 괜찮았는데 슬라이드 작동의 문제로 거의 불만족스러웠다.

2) 학교의 철학과 꿈을 기억하다

① 사례1 : 자치활동(전체회의, 학생회)

- 전체회의: 학교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길잡이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의 운영과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논의해나가며 자치와 자율의 원리를 배워나가는 자리.

- 0000의 교육철학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고 학교문화로 자리 잡게 하는지 함께 논의해나간다.

2007년 가을겨울학기 자치활동 평가

- 전체회의, 실질적인 식구총회의 성격 갖춰

더 이상 어리다고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2007년 상반기를 돌아보면 작년과는 사뭇 다른 전체회의의 위상을 실감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올 초 카드게임에 대한 작은나무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작은나무의 경우 자신들이 들어왔으니 새롭게 규칙을 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요구에 큰나무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그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핸드폰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을 때 핵심적으로 논쟁되었던 부분은 선생님이 갖는 무한한 권력을 행사하는(?)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와 핸드폰 자체가 갖는 문화현상을 지적하면서 핸드폰의 개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결국 수업시간 외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폐해를 막고자 몇 가지 규율을 정했다. 2주 후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다시 원점으로 어렵게 돌아간 해프닝이 있었지만 핸드폰 문제를 통해서 약속과 합의에 대한 대원칙과 의의를 아이들 스스로가 깨우쳤다고 볼 수 있다. 물론 00샘의 눈물나는 노력이 없었으면 쉽지 않았겠지만... 얼마 전에는 도서관지기의 논쟁이 전체회의에 올라와 열띤 공방이 펼쳐졌으며, 기타동아리에 대한 제약까지도 모두 전체회의에서 만들어진 산물이다.

이렇게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합의와 규칙은 아이들이나 교사 모두 규칙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물론 교사의 발언이 상당부분 제약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개인의 욕구불만을 토로하는 장이 아니라 적어도 타인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은 한도 내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이들 모두가 몸으로써 체현되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 학생회 선거: 민주주의 체현의 장

2007년 학생회 선거는 적어도 출마했던 친구들은 내가 왜 학생회장이 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자기고민을 표출했던 장이었던 것 같다. 단순한 의사진행을 넘어서 학생회장으로서의 출마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분명히 했던 자리였다. 또한 부학생회장의 1차 낙선은 아이들이 자신의 표를 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자기반성의 계기도 된 자리였다. 또한 등록절차와 일정, 출마방식에 대한 토론 과정, 선거인명부 작성과 비밀투표제 실시 등은 아이들이 다소 형식적인 절차라고 하여도 민주제에서 왜 필요한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체현의 장이었다.

- 학생회 역할 찾기 혹은 존재 근거에 대한 실천 방안 모색 필요

위와 같은 분위기를 이어 갈 수 있으려면 학생회 자체의 준립근거들을 마련하는 일이다. 자치공간으로서 학생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어 갈지에 대한 학생회 자기과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학생회 선거만큼이나 중요한 지점이었다. 하지만 자기고민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학생회는 무엇이고 다른 곳에 있는 학생회는 어떤 활동들을 하며 이를 위해서 올해에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상 진행되지 못했다. 가을, 겨울학기 때에는 다른 현장을 두루 살펴보고 배움터 길에서의 학생회는 어떤 모습을 담아내야 할지에 대한 자기 역할 찾기를 모색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구체적 과제를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를 위해선 교사들의 일정한 리더와 학생회와의 의

건조율이 필수조건이다.

- 학생회 체계 마련과 구체적 활동 모색 필요

현재 학생회 하면 학생회장단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몇 차례 학생회에서 시도하고자 했던 행사가 애매하게 자리 잡은 부분이 있었다. 6월6일 0000 체육대회와 학기말 예술제는 시간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교사가 대부분 떠맡고 학생회는 뒤로 물러선 것이다. 학생회가 일정하게 자기 책임을 가지고 시도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려면 학생회 자체가 그만큼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생회 내부 체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학년대표와 정기적으로 열리는 부서별 모임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갈지 과제와 함께 다양한 현장 경험과 교사의 조언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 학생회와 교사회 관계 모색에 대한 새로운 장과 시야 확보

전체회의에 맞춰 진행된 교사대표와 학생회장단의 짝막한 안건 정리는 학생회와 교사회내 소통을 좀 더 깊게 가져가지 못한 소통구조다. 그러다 보니 한 주간에 대한 학생회장 자체 고민도 부족하고 교사대표 역시 의례적으로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안건제시 외에는 없었으며 주로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통로 밖에는 하지 못했다.

이것은 학생회와 교사회의 수평적인 논의 풍토와 깊은 토론의 장을 이끌지 못하면서 교사회와 학생회간의 고유권한과 책임을 만들어내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교사회 전원과 학생회 간부가 참여하는 확대운영위가 이루어지면 서로간의 역할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한 시도가 필요하다.

② 사례2 : 나눔 활동

-세상을 만나고 나눔을 실천하자./일상에서 나눔과 돌봄의 의미를 배운다.

-지역과 사회의 문제에 함께 호흡하고 그 속에서 세상을 만난다.

2006년 가을겨울 학기/2007년 봄여름학기 나눔활동 평가 중에서

2006년 가을·겨울 학기 나눔활동

▷사랑의 노인요양원 자원봉사 활동

:가능한 지역에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하고/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할 수 있는/일상적인 봉사활동을 하자는 것을 기준으로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협의

:00시 호계동, 사랑의 노인요양원에 가을학기 매주 월요일 1회/겨울학기는 격주로 방문

:3개 모둠으로 나누어 건물 청소, 배식, 설거지, 수발들기, 말벗되기 등의 활동을 했으며 준비과정으로 의왕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교육을 받음.

진행과정 속에서 노인들의 삶과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속에 노인체험센

터를 방문해 노인 역할체험을 해보기도 했음.

※노인체험센터

노인 이전세대가 노인이 된 후 일상생활을 가상체험 함으로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노인을 위한 물리적인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마련하는 역할/세대간 이해의 폭을 확대, 세대 통합을 이루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사회참여학습

:나눔활동이 봉사의 의미만이 아니라 세상을 만나는 사회 참여학습의 하나라는 것/지역의 학교라는 배움터 길의 교육철학을 실천해나가는 의미에서 지역의 이슈가 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어떤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해나가는지 알아봄

:OO공무원 노조 사무실 폐쇄 농성현장과 코오롱노조 농성현장 방문

■평가

-나눔 활동 2회 후 문제제기 표출/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자주 가는 것이다./할머니, 할아버지의 요구가 많다/모듬을 바꾸고 싶다/왜 함께 논의하지 않고 결정을 했는가/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므로 자원봉사가 아니다 등 다양한 문제제기를 표현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해, 사회참여 의미 등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점/월요일에 1교시를 마치고 출발해 다시 돌아와 수업을 받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점, 처음 하는 자원활동의 어려움과 부담들이 있었음.

:이후 2주에 한 번씩 하자는 아이들의 제안/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봉사활동이라는 성격 못지않게 사회참여학습이라는 것을 고려하자는 취지에서 겨울학기에는 기존에 가던 노인요양원은 격주로 가고 다른 사회 참여활동(학의천 정화활동, 수화교육 등도 고려)을 병행하기로 했음.

:일주일에 한 번씩 지속적인 방문을 해서 일회적이지 않은 일상적인 나눔과 돌봄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다. 여자 친구들의 경우 청소, 설거지를 하고 수발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을 위한 노력까지 보여주는 놀랄만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남자 친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이고 타인을 돌보는 일(특히 밥을 떠먹이고 말을 걸고 하는)에는 힘들어 하고 익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의 문제제기와 불만이 제기된 후, 노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된 노인인체험센터 견학은 노인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소수자, 약자로서 노인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사회참여학습의 경우 봉사활동에 비해서 아이들의 부담과 불평은 적었으나 주로 현장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는 방식의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획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이들의 주체적인 역할과 활동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았다.

:반면 우리의 활동이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과 신선한 자극이 되었고 지역의 단체와 함께 하는 경험, 아이들에게는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특색을 몸소 체험해 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과제

-나눔활동에 대한 충분한 공감 작업 필요(남을 돕는다는 것,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학교와 다른 공간을 갔을 때 그 곳의 분위기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 배우기

-학교 교육과정 외에도 동아리나 가정 안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다양한 삶의 체험을 할 수 있는 현장이 발굴되고,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와 내용공유, 아이들의 역할 찾기 등이 고민되어야

-어떤 공간에 가는 것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가는 것, 어떤 '관계'를 만드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한 두 개의 현장에 꾸준히 가보는 것

2007년 봄·여름학기 작은나무 나눔활동

000 중학교 특수학급 친구들과 어우러짐 교실에 참여했다.

초기에 새로운 환경에 기대를 했었다. 사회 적응 훈련으로 함께했던 외부활동에서 지루함과 힘들음이 나타났고, 민속촌 나들이를 갔다 와서는 불만이 심해지기도 했었다. 복지관측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높은 수준의 배려를 기대했던 것에서 오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다. 항상 짝과의 행동 일치를 강요한다거나 억지로 손을 잡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남자 친구들의 거부감이 심했었다. 이 후 복지관 선생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고 진행방식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전환하면서 아이들의 불만이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을 낸 게 컸다고 본다.

프로그램 준비과정에 이제는 교사인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작은나무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 후 상황이 호전되어 비교적 즐겁고 편안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어우러짐 교실의 목적은 장애인친구들과 비장애인 친구들이 함께 하면서 친구가 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 친구들은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것이며 비장애인 친구들은 장애인 친구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세심하게 열심히 준비해 주시는 복지관 선생님들 덕분에 활동은 늘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0000 친구들의 경우에는 10-20분이면 끝낼 수 있는 것을 1시간 30분씩 해야 한 다거나 하는 지루함이 있기도 한다. 여자 친구들은 나눔활동 시간을 무척 좋아하는 것에 비해서 남자친구들은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다. 처음엔 1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염려되었으나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도 보인다.

000 특수학급 친구들끼리도 서로 얘기를 한다거나 관계맺음이 안되거나 적은 친구들과 작은나무 친구들과 어떻게 마음을 열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1년 동안 하는 다양한 체험활동 아이들 모두에게 좋은 경험으로 즐거운 시간으로 느껴지길 바란다. 이 과정을 끝내고 갔을 때 작은나무 친구들이 장애인 친구들을 바라보는 느낌과 태도는 달라지리라고 본다.

3) 학생들과 함께 평가하다

① 사례1: 교육위원회와 학생들의 만남

* 2006년을 돌아보며 교육위원회와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설문조사한 내용

교육과정에 대한 워크숍을 한다고 많은 것을 물어보면 화나겠지. 그래서 딱 세 가지만 물어볼게 대신 성실히 답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12명중 11명이 씬).

1. 첫 번째 질문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중고등학교를 만들고, 교육과정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교육과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만 정한다면 무엇을 정할 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

자발성, 공존성, 의논토론/학교 수업 시간 외에 전혀 터치 안하기, 교육과정 방향은 학생의 의견을 40% 이상 반영하기, 서로 친하고 편하게 지내되 서로 갖추어야 할 예의를 갖춘다/돈(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교사(특수과목, 목공 등), 공존성(00이 써서)/재산, 교육과정/하교시간을 앞당긴다, 점심을 빨리 먹는다, 내 마음대로 다한다/안 적음/돈,돈,돈/컴퓨터 시설을 만든다. 참고로 컴퓨터도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된다. 과학을 하지 말고 체육으로 바꾸자. 역사시간에 옛날 지도만 공부한다/수업과목, 장소(터전), 재산(쓰고 지움)/교우관계, 공부/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게 한다. 수업주제나 학교가 중요시 하는 가치관을 뚜렷하게 한다. 학생들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보고 들어줄 수 있는 한은 반영한다.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파고 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2번 문항 후배들에게도 이렇게).

2. 두번째 질문은 작은나무 1년 중 여름방학을 전, 후로 교육과정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어느 쪽이 어떤 점에서 좋은지, 그리고 너희들 후배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니?

수업과정 빼고는 바뀐 거 없는데.../선택제로 하고 선택 사항으로 지정된 과목을 안 할 시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그것으로 한다. 계획 형식으로 진행이 안됐을 시 출석을 깎는다(했으면 한다) 점심시간이 30분 줄었고 수업과목이 다양해졌다(바뀐 점) /모르겠다/중 좀 바꾸자/모름/가을·겨울학기가 좋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이 짧고 수업 과목도 늘어났기 때문이다/좋은 거는 여름방학 후의 수업이 더 좋았다. 전보다 점심시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규칙적이어서 좋다. 후배들은 봄, 여름학기 때의 수업을 추천한다. 일부러 사악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학기 초에 자기 주체성을 찾을 수 있는 거 같다/안 적음2/여름방학 후가 더 좋았던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수업을(선택의 폭이 좁긴 하지만)내 맘대로 골라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좋다. 후배들은 자기들이 좋은 듣고 싶은 수업을 듣게 했으면 좋

겠다/교육과정의 변화는 솔직히 말해서 변화는 분명히 있는데 또렷하지 못하다.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딱히 말할 수가 없다. 조금 더 확실해졌으면 좋겠다.

**3. 마지막 질문은, 너희들 각자의 성장기록부 다 보았니? 본 느낌이 어떠니?
만약 무언가 바꾸고 싶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철학을 좋게 바꾸시오(한마디로 좋은 말만 쓰시오)/느낌은 참으로 최악이다. 그리고 큰나무에도 열심히 할 느낌이 든다. 역사시간에 옛날 지도만 공부한다. 수업을 30분만 한다./못봤음7(근데 나는 이런 식으로 성장기록부 이래 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보여주는 거 자체가 좀 싫다. 물론 부모님들은 궁금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다. 우리가 무슨 실험대상도 아니고-- 애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보고 부모님들한테 결과 알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기분 진짜 구려. 할꺼면 모여서 얘기하고 끝내고, 기록을 남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다 컸다고!/없음/안 적음/보긴 했는데 기분이 그리 썩 좋지는 않았다. 바꾸고 싶다면 답임이 평가하는 걸 모든 선생님들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② 사례2 : 2007년 가을·겨울학기 학생 자기평가

* 2007년의 교육과정을 평가하며 학생들 스스로가 얼마나 교육목표를 알고 실현하고자 했는지 향후 대안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1. 배움터 길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생활태도를 교육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프로젝트, 학생회, 문화제 여행 등에서 교육목표를 위해 어떤 노력과 실천을 했는지요?

2. 배움터 길은 더불어 사는 삶을 중요한 교육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교육목표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논의해 봅시다.

지난 1년 동안 학교 구성원(선생님, 친구, 선후배)들과 잘 소통하고 배려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이를 위해 그렇게 노력해왔는지 돌아봅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이 있겠는지요?

* 다음은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1. 자신이 가장 충실하게 했던 수업과 그 이유는?

2. 가장 충실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수업과 그 이유는?

3. 다음 학기에 더 노력해보고 싶은 수업은?

4. 선택 수업 중(생활체육, 문화적 상상력, 인지선택) 다음 학기에도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은 수업은?

5. 이후 개설되었으면 하는 수업은?

6. 교육과정이나 문화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2007학년 교육과정 평가>

이름: _____

* 아래 문항은 수업과 생활면에서의 자기 평가입니다. 아래 질문에 자기의 평가와 그 이유를 적어 주세요.

	수업에 자발적으로 성실히 참여했나요? (발표, 질문, 대답, 집중)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 과제를 충실히 했나요?	수업에서 기대했던 바가 성취되었나요?
언어문화			
영어			
한국사			
철학			
발견과 발상 에너지			
배드민턴 요가 농구			
기타 만화 사진			
일본어 세계사 한자			
일하기 목공			
책읽기 자기학습			
풍물			

	자발적으로 성실히 임했나요?	다른 친구들과 배려하고 협동해서 했나요?
지각 결석		
소박한 밥상		
청소		

4) 한 아이의 성장을 기록한다

① 사례1: 성장기록부

0000에서는 학생에 대한 평가라는 말 대신 성장기록이란 표현을 쓴다. 이 성장기록은 학생, 교사의 수직적 관계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해서 학습의 과정과 학생의 생활면에서 관찰하고 기록한다. 교사는 학생, 학부모, 멘토와 소통한 이야기나 수업과 생활면에서 사실관계, 수업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된다. 성장기록이 잘 이루어진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자, 앞으로 삶의 길을 개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반 학교에서의 생활기록부는 본의 아니게 노예문서가 된다고 한다. 생활기록부의 성적과 내용이 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대안학교의 성장기록부는 아이의 성장과정을 담는 것인데 이는 평가하는 교사에게도 많은 것을 요구한다. 20대 세상물정 모르는 교사가 과연 이런 평가를 어떠한 기준으로 내릴 수 있는가 평가를 하기가 어려웠음이 사실이다. 한 아이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평소에 소통한 내용이 아이의 생활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성장기록부의 사례>

가을·겨울학기 성장기록부

*수업일수: 95일/ 출석: 90일/ 지각: 51회

총평	요즈음 00이를 보면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약적으로 자기 껍질을 깨고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00이가 가장 성장을 보인 부분은 자기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모
----	---

	<p>습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상황 속에서 누적된 감정이 엉뚱한 상황에서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학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상황 속에서 자기 이야기 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또한 억울함이 아니라 ‘승화’로서 자기와 남을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은 극복해가려고 했습니다. 자전거 여행에서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대화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한다면 더욱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p> <p>개인프로젝트 글쓰기는 글을 통해 자기를 새롭게 만난 00이의 훌륭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상황 속에서 섬세한 감정의 변화와 생각들이 글쓰기에는 더없는 좋은 재능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욕심을 부릴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동기가 나는 대로,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하는 과정에서 멘토와 소통과정, 창작의 스트레스에 대한 극복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00이를 더욱 단단하고 크게 만들거라 확신합니다.</p> <p>시설관리부장으로 학생회에 참여해서인지 회의 시간에도 자기의 생각을 전체속에서 이야기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p> <p>생활 속에서의 자기 뒷정리를 스스로 해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p> <p>00이는 아직도 자신 안의 자기를 발견해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기에 대한 몰입과 욕구가 강하고 거침없이 내달리며 몰입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성장을 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p>
언어 문화	<p>00이는 봄과 여름사이 글쓰기를 통해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자기 자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블로거이지요. 만남의 일기를 거의 매일매일 쓰면서 그동안 잘 드러내지 못했던 자신 안의 아픔, 공포, 분노, 억울함, 불안함, 희망, 기쁨, 즐거움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까지 모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한 편 한 편의 글을 쓰면서 경이 안에 맺힌 부분이 풀려가는, 스스로가 가진 언어적인 표현능력들을 확인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온전히 자기의 힘으로 만든 경이에게 칭찬과 격려를 보냅니다.</p>
영어	<p>00이는 개별 학습지도의 방법이 아닌 현재 전체수업으로는 학습이 힘든 상황입니다. 영어를 완전 거부하고 있지는 않아서 가능성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은 수업을 듣느라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잘 듣기도 하고 해보려고 노력했던 00이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2학기에는 개별학습을 하겠다고 마음을 냈으니 잘 지킬 거라고 기대 합니다.</p>
철학의 친구들	<p>이번 학기에도 철학이 1교시 수업이라 지각을 하는 날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긴 쉽지 않았고 00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다. 00이의 가능성과 변화는 일대일의 철학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이해, 상대의 질문을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밝히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00이는 철학은 어렵다고 했지만 저는 00이의 가능성을 본 시간이었습니다.</p>
한국사	<p>드라마 대조영을 보고 글을 쓰거나 모르는 것을 저에게 물어보는 등 00이는 역사에 대한 흥미가 많습니다. 다만 수업시간의 내용과 자신의 관심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서 교사로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국사 방학 과제를 잘 해내도록 집에서 지지해주신다면 다음 학기에는 그 연결고리로 관심의 영역이 확대될 거라 믿습니다.</p>
에너지	<p>봄학기때와 여름학기때 가장 많은 변화를 보여준 친구다. 전체적으로 수업을 하였을 때 많은 부분 소외감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강의 내용이 어렵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에 편승하게</p>

	나 주위 집중이 떨어졌다. 하지만 여름학기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훨씬 어려운 강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자신이 과학이라는 학문과 친숙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어 무엇보다 선생으로서 기쁘다. 진행과정에서 집안의 분위기가 좋지 못하면 그대로 수업에서 드러나기도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려 많은 노력을 하였다. 또한 자신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강한 갈증과 물음을 유발하였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촉진시켜갈지가 관건인 친구다.
만화	000에게 만화 수업은 치유적 효과가 컸다고 보여진다. 결석이 전체 횟수중 절반이 넘고 그나마 나머지 지각을 하지 않은 횟수는 3회밖에 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수업에 대한 밀착감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수업 자체가 개별적 과제 중심으로 나아갔고 그에 대한 책임성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는 분위기였기에 000에게 딱히 싫은 소리를 하지는 않았다. 학기말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무엇을 그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서 그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났다. 앞으로 조금 더 칭찬의 언어로 만화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가면 좋을 것이다.
풍물	처음에는 000에 대한 걱정이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000가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초반에 000의 성향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았다면 다른 악기 편성을 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징을 맡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또한 저 역시 000에 대한 성향 파악이 늦어 초반에 많은 관심을 쓰지 못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4. 평가를 평가한다

이제 개교 3년차인 새내기 학교로서, 2년의 평가 경험으로 ‘평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선부른 일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년의 시간은 0000 나름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만으로도 벅찼고, 우리의 ‘평가’에 대해 충분히 돌아보고 음미하기엔 부족했다. 그러므로 어설피고 서툴지만, 지금의 문제의식 정도를 솔직히 드러내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하나, 가치와 담론 위주의 평가가 주는 어려움

-0000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새롭고 낯설게 바라보기’, ‘자기시선 갖기’ 등 가치, 태도적 목표가 많기 때문에 측정하기 쉽지 않으며 단기간에 평가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다. 따라서 몇 개월의 평가 토대로 아이의 가치나 태도에 실망하고 교육과정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많은 시간을 들여 가치와 철학을 이야기 하지만 교육목표를 이루었는지, 교육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평가하지는 못할 때도 많다.

-평가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교육활동의 구체적인 과정과 교육방법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음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변화와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도 한다.

-질적인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평가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교육적인 목표도 분명하지 않다.

둘, 교사의 성장, 그만큼의 평가

-10년여 대안교육의 역사 속에서 아직은 교육과정의 질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교사는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지만 정작 자신이 만든 교육과정의 의미와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뒤늦게 발견하기도 한다.

-교사가 자기 영역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으로 평가를 해내기엔 아직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 서로가 평가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하지 못하면서 개인의 준거로만 평가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다면화된 평가, 정교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 평가를 위한 평가를 넘어서

-평가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뭔가를 새롭게 계획하는 미래지향적인 일이다. 하지만 때로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기도 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갈 에너지를 잃기도 한다.

-평가과정의 비판과 비난이 되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오가는 자리가 되기를...

넷,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평가주체들의 지향의 차이

-많은 대안학교들이 교육과정을 둘러싼 문제 때문에 분리되거나 해체되어온 사례들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교육과정을 둘러싼 각 주체들의 생각을 모아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리라. 특히 공교육에서 학부모의 교육권은 미약한데 비해 대안학교에서는 교육과정 계획과 평가 과정에 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직접 대상자가 아닌 학부모는 자기 아이를 통해서 본 교육과정을 평가하기 때문에 자기 책임성보다는 다른 이의 책임만을 묻기도 하는 등 평가회 자리가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성찰하는 시간이 아닌 비판하는 시간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현재 실현하기 어려운 점까지 개인의 욕구로서 표현되는 것은 학교가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대안학교에서 소통의 자율성이 오용되

는 사례이다.

-특정 주체들의 평가를 묵살하거나 추수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서 각 단위의 특성을 고려한, 서로가 같이 만든 평가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 학생의 평가를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가

-교육의 대상이면서 주체인 학생들의 평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반영할 것인지 혼란스러워 질 때가 많다. 수업을 마치고 나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이루어지곤 하는데, 순진하게 학생들의 평가내용을 100% 반영했다가는 낭패를 보기도 한다. 학생의 평가를 신뢰한다는 것과 반영한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데 학생의 평가의 내용을 100%로 반영하다 하더라도 수업은 완전할 수 없고 수업을 교사가 이끌어가는 이상 학생의 평가 내용을 어디까지 어떻게 반영할지 결정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학생은 수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수업내용이나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수 있고 또 원하는 이가 원하는 수업을 개설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평가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의 학습 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교육의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되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조상식 (동국대학교)

평가를 평가한다

강수돌(고려대학교)

1. 평가(evaluation, Bewertung)의 의미와 ‘평가의 평가’

해마다 10대 청소년 250~300명이 자살하는 나라, 해마다 약 5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이탈하는 나라, 날마다 아이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점수 따기 경쟁에 절어 사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과연 교육의 경쟁력을 논할 수 있을까?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학교 가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사회, 학교 가서는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따뜻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 매일같이 학교에서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끼를 뽐어내게 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곳, 나날이 자신의 내면이 발전하고 실력이 발전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점점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과연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요구하는 평가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평가란 그 말의 뿌리에서도 드러나듯이 ‘가치를 밖으로 드러내 재는 행위’ 또는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다. 우선, 두 가지 도전적 과제가 대두된다.

하나는 ‘가치’라는 질적인 것을 수량으로 ‘재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다. 주관적인 것의 객관화가 초래하는 어려움이다. 평가자 또는 평가 과정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어떤 측면을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다. 일례로, 한국에서는 높이 평가받지 못하거나 ‘문제아’로 평가

받는 학생이 다른 나라에서는 '우수' 학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다른 하나는, 평가가 이뤄지는 사회적 맥락에서 오는 어려움이다. 누가 누구를, 누가 무엇을 평가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왜, 무엇을 위해 평가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일례로, 한국에서는 정치적 탄압을 받는 사람이 해외에서는 '모범' 시민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동일한 평가 대상에 대해서도 평가자나 평가 철학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동일한 대상이나 요소에 대해서도 '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한국 교육에서 평가의 문제는 그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이슈다. 현실적으로 교육 평가, 학생평가, 교사평가, 학교평가 등 다양한 평가들이 존재함에도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의미와 결과는 천지 차이다.

그런데, '평가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육 당국의 의도와 과정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평가의 평가' 문제는 지금까지 소홀히 다뤄져왔다. 이 글은 이런 점에서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평가가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의 평가

일제고사나 모의고사, 수능평가 등으로 상징되는 학생평가, 그리고 학생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와 관련한 교사평가, 어느 학교가 우수하고 어느 학교가 낙후된 곳인지 가리는 학교평가 등 각종 평가는 결국, 상대평가다. 상대평가란 그 개념 자체에 비교와 경쟁을 내장하고 있다. 비교와 경쟁은 우선 당사자들을 우월감 또는 열등감의 구렁텅이로 몰아감으로써 결국은 모두를 비인간화시키며, 나아가 전 사회적으로는 기득권층이 설정해놓은 기준으로, 즉 특정한 방향으로 시간, 열정, 자원을 집중시킴으로써 낭비를 초래하고 의도하지 않게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를 조장한다.

일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9년 4월, 사상 처음으로 최근 5년간의 일반계 고교(전체 1500여 개) 수능 성적 결과를 공개했다. 16개 시도와 230여 시군구별로 언

어, 수리, 외국어 세 과목 성적을 분석한 것이다. 수능 표준점수 기준으로 학교 간 점수 차는 최대 73점이었고 평준화 지역 안에서도 점수가 최대 42점이나 차이가 났다. 보다 자세히 보면 광주나 제주 등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고교가 있는 곳은 성적이 높았다. 230여 시군구 중 상위 20곳은 도시 지역은 85.5%, 농어촌은 14.5%였다. 도농 간 격차가 극명했다. 그 와중에도 농어촌의 비평준화 지역, 예컨대 전남 장성고와 경남 거창고가 속한 곳은 높은 성적을 보였다. 게다가 전체적으로 국공립보다 사립학교가 더 높았다. 일반화하자면 사립, 비평준화, 특목고, 도시 지역 등에서의 학력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처음부터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모인 곳이거나, 치열한 경쟁으로 '공부' 강도가 높은 곳이 강세를 보인 것이다. 한편, 2008년 10월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마찬가지로 이 수능 성적에서도 충남은 전국 최하위에 속했다.

이로써 이미 우려한대로 학교별, 지역별 차이가 재확인된다. 특히 그간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실, 예컨대 특목고, 서울 강남, 비평준화 고교 등이 세다는 것을 구체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점이 이 공개의 성과라면 성과다. 흥미로운 점은, 전교조의 존재와 수능 성적 간 (역) 상관성이 드러나지 않은 점이며, 또 평준화와 수능 성적 간 (역) 상관성도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원래 성적 공개의 핵심 배경은 고교생들의 학력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높일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성적 공개를 통해 상호 비교를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인다는 발상, 과연 이것은 얼마나 타당하며 또 교육적으로 바람직할까?

우선, 이러한 성적 공개는 만약 원 자료가 보다 폭넓게 공개된다면 학교별 성적 비교가 가능함으로써 점수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이다. 경쟁의 장점이라면 경쟁을 통해 정제하지 않고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사회의 학력 경쟁은 발전이 아니라 파괴로 간다. 잘 하는 아이는 자기 억압을, 못 하는 아이는 자포자기를 계속해야 한다.

둘째, 시험 성적이 교육적 효과를 거두려면 상대 평가보다는 절대 평가를 해야 하고, 공개 비교보다는 자기 성찰을 하게 해야 한다. 미국 고교에서는 학기 초와 말에 학부모와 교사 간 미팅을 가진다. 각 학교 벽에 성적을 공개한다. 학생 이름은 없고 학번만 있다. 등수도 없다. 점수만 있다. 이로써 학생 본인과 그 부모, 담임만 성적을 알 수 있으며, 학기 초와 말 사이의 비교만 한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거나 다른 학교와 비교하지 않는다. 학생 발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 경쟁력은 시험 점수에 있지 않다. 교육이란 원래 아이들이 한 인격체로서 자율적이고 공동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드높이는 과정이다. 시험 점수는 그를 위한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성적과 무관하게 사회와 역사를 알아야 하고 인간관계를 배우며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높이고 자기 내면의 소질과 끼를 탐색해야 한다. 이 중요한 걸 놓치고 오로지 점수 만 높이는 건 교육이 아니다. 핀란드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각 학교마다 일정한 교육 목표(예, 전인적 발달, 개성 발현, 공동체적 심성의 고양)를 세우고 그 목표 달성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면 나라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성실히 지원하기 때문이다. 평등 교육, 통합 교육, 인간 교육이 핵심이다. 핀란드가 학력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이런 시스템의 자연스런 결과지 처음부터 시험 점수 중심으로 교육한 결과가 아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가 행복해야 교육 경쟁력 또는 교육의 존재이유도 생긴다.

요컨대,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교육평가란 결국, 자본주의 이윤 시스템에 기능적으로 필요한 '인적 자원human resources'을 공급하기 위해 그 자원에 등급을 매기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것은 교육 시스템이 한편으로, 일 잘 하고(노동 의욕), 다른 편으로, 말 잘 듣는(노동 능력)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내어 등급 분류해서 자본주의 기업에 원활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돈벌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는 철저히 제거하되, 도움 되는 것만 가득 주입시켜 공급하되, 예컨대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분류하여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시각이다.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 아이들의 참된 잠재력은 억압되기 쉽고, 다른 편으로, 전체적으로 학교나 가정, 온 사회가 성적을 중심으로 자기 분열된다. 그러니 날마다 10대 청소년이 1명씩 자살해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회, 비정상이 정상이고 정상이 비정상인 그런 '괴물 사회'가 탄생하고 말았다.

3. 학생 평가에 대한 평가

학생을 지금과 같은 평가 시스템 속으로 내모는 것은 교육적 처사가 아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오로지 '100점, 1등'을 기준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육적 처사

라기보다는 집단적 자살 행위에 다름 아니다. 아이는 물론, 학부모에게도 파괴적 결과를 초래한다.

100점이나 1등 기준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마치 자신이 모든 성취를 이뤘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늘 상대적 비교의 관점에서만 그렇다. 자신의 진정한 꿈이나 소망, 필요나 욕구와는 거리가 멀 수 있다. 우월감에 젖어 사는 아이들은 다른 존재와 인간적 친밀감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선민의식과 차별 의식에 빠져들기 쉽다. 강자와의 동일시(1차, 2차) 속에서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군림하려 한다. 진정한 자신의 꿈이나 소망과 일치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 어딘가 부족한 사랑의 느낌을 칭찬이나 보상 속에서 대리만족하기 쉬우므로 늘 2% 부족한 듯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한편, 우월감에 젖어 살던 아이들이 갑자기 성적이 떨어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삶의 절망감에 빠지고 마침내 자살을 시도한다.

동일한 기준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아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은 좌절감, 패배감, 무력감을 느끼기 쉽고, 열등 의식, 피해 의식, 자기비하를 드러낸다. 심하면 타자에게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고, 심하면 그렇게 하고도 자신이 잘못을 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다(사이코패스). 결핍된 사랑의 느낌을 학교에서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일탈 집단' 또는 '폭력 집단' 등에서 찾고자 노력한다. 누적되고 반복된 좌절감은 마침내 삶의 자신감을 잃게 하고 심하면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만든다.

어떤 대학생은 두 가지의 가치, 즉 한편에서는 가치관 values, 다른 편에서는 부가가치 value added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킨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다. 자신은 부가가치 증식에 기능하는 톱니바퀴가 되기 싫어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그것이 비록 많은 돈은 벌지 못하지만 스스로 만족스런 삶을 사는 비결이었다.

학생 평가가 인간성과 삶의 자신감을 촉진하도록 하려면 평가의 기준이나 방식, 평가자나 학생, 학부모 등의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 두 가지다. 하나는 다양한 과목이나 활동 중에서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거나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관점이다.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동일한 관심사라도 아이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삶에 대한 '자신감 self-confidence'이 생긴다.

4. 교사 평가에 대한 평가

교사를 학생과 마찬가지로 A에서 E까지 등급 분류한다는 것은 결국 돈벌이 시스템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얼마나 잘 양성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분류하고 보상함으로써 그런 분위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때 교사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필요한 노동력 상품(학생)을 만들어내는 노동자가 된다.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교사는 생계 안정이나 승진 출세의 욕구에 충만한 이들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자신의 심신이 소진될 뿐 아니라, 처음에 가졌던 교육자로서의 꿈이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눈을 좀 더 크게 떠 보면 교사 사이에 공동체적 관계망이나 협동은 사라지고 치열한 업적 경쟁, 점수 경쟁, 눈치 경쟁만 살아남았음을 알게 된다.

바람직한 교사 평가를 하려면 교육 당국이나 사법 당국이 돈벌이와 보수 권력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곤란하고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평가해야 한다. 그 기준은 1) 교사가 가진 교육 및 사회에 대한 관점이나 철학, 2) 교사가 아이들의 참된 내면이나 아이들 사이의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 3) 교사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울이는 개별적, 집합적 노력 등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평가 결과도 보수의 차별화와 경쟁의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 자신의 교육적 자질 고양과 전체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쓰여야 한다.

5. 학교 평가에 대한 평가

일제 교사 뒤에 일선 학교나 교육청 등에서 성적 조작이 이뤄진 사실은 세계적인 수치다. 학교 평가는 교장의 출세에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기도 하다. 그런 조작과 기만에 익숙하도록 아이들이 자라난다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와 사회의 미래를 암담하게 한다.

굳이 학교 평가가 필요하다면 인간 교육, 사랑과 자발성, 공동체성을 기르면서도 스스로 독립적인 인격체로 살아갈 의지와 능력을 얼마나 키우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부족한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평가

에 목을 매는 교장 이하 모든 학교 구성원이 비인간화한다. 결말은 자살이요, 죽음
이요, 불감증이자 사회의 자아 분열이다.

6. 평가를 넘어 배움 그 자체로

지금의 평가는 결국, 돈벌이 시스템에 순기능 하는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급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 그 과정에서 상하 모두가 비인간화한다면 그 평
가는 더 이상 쓸모없다.

평가의 다른 면은 과정process보다는 결과result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결과 중심
적 삶이나 결과 중심적 교육은 삶을 충만하게 살지 못하게 막는다. 자칫, 로또 게임
이 되기 쉽다. 과정 중심적인 삶이나 과정 중심적 교육이 되어야 아이들이나 어른들
은 매 순간 배움의 기쁨, 깨달음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것이 전 사회적으
로 자연스럽게 녹아 들 때, 비로소 교육의 존재 의미도 되살아날 것이다.

평가가 굳이 필요하다면, 자신을 성찰하고 사회를 성찰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
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아이들의 경우, 자신의 소질이나 관심을 찾아낼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노력과 몰입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깨
닫는 과정, 자신감을 얻는 과정으로 삼을 수 있다. 교사나 학교도 마찬가지다. 개성
이나 특성을 찾는 과정, 집합적 노력에 대한 보람을 찾는 과정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배움은 삶 전체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평가는 삶의 특정 부분만 측정한다. 평가
가 삶을 왜곡하거나 편협화, 심지어 압살시키는 까닭이다. 폭력적인 평가 시스템을
탈피하여 행복한 배움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절실하
다. 아이들을 더 이상 죽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사회의 내면을 더 이상 죽이지 않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스
트레스 사회가 아닌 행복 사회를 위해서다.***